



잊지않겠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 ▶◀ [이달의인물] 나는 배우다, 삼현여고 2학년 홍여빈
- ▶◀ [청소년뉴스] 톱스타 빨아들이는 게임 광고
명문대 진학 늘리려 교장-교사 성적조작
- ▶◀ [학교소식] 선명여고 배구부, 전국 최강 입증
진주 로봇클럽, 호주 로보컵대회 준우승
진주여중 전국학생독서토론회 흰솔어
진주중 관악부 5년 연속 금상
진주중앙고 제5회 전국 고교생 모의군사재판 대회 2위
- ▶◀ [이슈톡톡] 지진과 원전, 공포의 9월
- ▶◀ [지역이슈] 남강유등축제 올해도 전면 유료화 강행
경상대학교 국내 최고가 되다
- ▶◀ [필통실험실] 삼성 LG 애플 3사 음성비서 누가 더 똑똑해?
- ▶◀ [핫플레이스] 진주에서도 클라이밍을 즐기자
- ▶◀ [필통에게 물어봐]궁금해? 타국기, 애국가 궁금해!
- ▶◀ [맛강년맛반] 경진고등학교 2학년7반 편
- ▶◀ [글로벌미팅] 경상대학교 베트남 유학생 부이티 푸영
- ▶◀ [JOB을 잡아라] 공군교육사령부 박준영 상사를 만나다
- ▶◀ [동아리탐방] 진주중앙고 방송부 CBS
- ▶◀ [19금 파헤치기] 여러분은 저위를 할니까?
- ▶◀ [진주투어] 진주시 영화관을 돌아 보다
- ▶◀ [대학생이 말하는 학과 이야기] 경상대학교 간호학과를 찾아서
- ▶◀ [우리 선생님] 삼현여고 박형순 국어선생님
- ▶◀ [선배님 반갑습니다] 자랑스런 진주여고 선배님
- ▶◀ [현장포커스] 위험한 등굣길은 20년이 지나도 똑같은 풍경
- ▶◀ [취재수첩] 오후면 괜찮아요! 자속하고 복귀하면 그만
창의적 체험활동! 창의적 자습활동인가?
선생님! 연세가 99세이신가요?
문과생 죽이는 프라임사업, 계속 문송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택배로 사고 파나요?
- ▶◀ [필통 타임머신] 역사 속 9월, 무슨일이 있었을까?
- ▶◀ [필통우체통] 독자글모음
- ▶◀ [필통네모로직] 1등 2명/ 2등 25명 추천



2016년 한 해도 진주 아이쿵 생협은 필통과 함께 합니다

진주 icoop 생협

필통을 후원합니다.
필통을 진주의 자랑으로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윤리적 소비를 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갤러리아백화점
건너편
확장이전



White Medical
하얀메디컬

하얀메디컬은
분야별 전문의가 진료를 합니다

하얀메디컬 전문과목

하얀피부과
하얀성형외과
하얀소아청소년과
하얀이비인후과



www.whitemedical.co.kr

[이달의 인물] 나는 배우다, 삼현여고 2학년 홍여빈

언제까지라도 배우의 길을
행복하게 걸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삼현여고에서 배우의 길에 들어 선 당찬 여학생. 홍여빈 학생이다. 발랄함과 쾌활한 기분 좋은 에너지가 느껴지는 여고생. 일반고에서 배우를 하겠노라 준비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임에도 스스로를 '무대체질'이라 얘기하며 행복한 도전을 준비하고 있는 그녀다. 삼현여고 연극부「연우리」를 이끌며 미래의 드라마 배우를 꿈꾸는 홍여빈양을 만나 보았다.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저는 삼현여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5반 34번 홍여빈입니다.

Q 연기를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A 딱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건 고등학교 와서 동아리를 들어가고 나서부터인 것 같아요. 동아리에서 실제 연기를 처음 접했으니까요.

Q 그러면 예전부터 연기에 관심이 있었던 건가요?

A 중학교 때는 꿈이 성우였거든요. 성우도 목소리로 연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우에 관심이 있었는데 고등학교 올라오고 동아리 소개란에 연극부가 있는데 여기 나랑 꿈이 맞겠다. 해서 들어갔는데 꿈이 배우 쪽으로 바뀐 거죠. 무대에서면 가슴이 뛰니까요.

Q 작년에 동아리에서 <외눈박이>라는 작품을 공연했는데 <외눈박이>에서 어떤 역할을 맡으셨나요?

A 극중에서 주인공인 외눈박이 엄마 역할을었는데 당시 1학년인 제가 주인공 역할을 맡게 돼서 선배들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연기 개인

상을 받았죠. 솔직히 부족한 점이 많았는데 캐릭터가 특이하니까 상을 주신 것 같아요.

Q 연극에서 팀원들끼리의 호흡이 중요하데 어떤 방법이 있나요?

A 연극이나 드라마나 영화도 마찬가지로. 혼자서 하는 작업이 아니라 공동작업 이잖아요. 주인공이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함께 하는 이들이 조화되지 못하면 좋은 작품이 될 수가 없겠죠. 어쩌면 그래서 조연들이 더 중요한 것 아닌가 생각해요. 배역의 크고 작은 것을 떠나 서로 존중해 주며 팀워크를 만들어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Q 연극을 하면 소품 등 비용도 들고 대회 출전 경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학교에서 지원이 있나요?

A '네!' 라고 답하고 싶지만 학교에서는 전혀 지원이 없어요. 선생님께 동아리만 지원해 줄 수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연우리'도 한 달에 3000원씩 회비를 내서 그 돈으로 운영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형평성도 중요하지만 동아리별로 지원신청을 받고 꼭 필요한 요구사항을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을 해 주는 방법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Q 연극을 하면서 있었던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다면?

A 외눈박이 극중에서 엄마가 눈물을 흘려야 하는 장면이 있는데 솔직히 눈물 연기가 어렵잖아요. 감정을 조절하고 몰입해서 감정을 잡아야 되는데 연습할 때 눈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슬픈 내용이라는 걸 아는데 집중을 못 했

다는 거죠. 그런데 마음속으로 진심 엄마가 되고 싶었어요. "엄마다. 엄마다..." 나는 딸이 있고 "엄마다. 엄마다..." 연기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터졌어요. 그때 진짜 저 자신한테 감동을 받은 거예요. 눈물연기가 정말 힘들었는데 무대 올라가서 더 잘했어요. 저는 무대 체질인 것 같아요.^{^^}

Q 가장 자신 있는 연기가 있다면?

A 말하자면 부끄러운데 전 바보연기를 잘해요. 중학교 때 친구들이 제가 웃으면 바보 같다고 막 놀려 댔는데 그게 제 개인기가 된 것 같아요. 어찌나 구분이 안되는지 저더러 진짜 바보가 아니냐구 그런다니까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보여드릴게요.

Q 미래에 어떤 배우가 되고 싶은가요?

A 제가 라미란 씨를 좋아하는데요. 라미란 씨처럼 끈기 있고 포기하지 않은 그런 배우가 되고 싶어요. 라미란 씨가 무명 생활만 11년이었고요. 그분은 단 한 번도 연기를 포기해야겠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라미란 씨의 남편분도 돈을 잘 버는 직업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들었을 거 같아요. 그래도 늘 연기를 하는 배우였다는 것이 너무 존경스럽고 그런 진심이 빛을 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언제나 늘 스스로 꺼지지 않고 빛나는 배우가 되고 싶어요.

Q K리그에 FC서울의 팬이신 것 같은데?

A 저희 동아리에 연기장인 친구가 축구를 진짜 좋아해요. 저는 축구라는 단어를 들으면 아~, 왜?! 이런 반응이었는데 저도 올해부터 빠졌답니다. 그 전엔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친구가 매일 FC서울의 응원가를 부르는 거예요. 친구 때문에 자꾸 보게 되고 궁금해서 검색해보고 흥미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축구 경기가 재밌는 거예요. 함께 응원하면 더 그렇구요. 어쩌다보니 저도 팬이 되어 있었답니다.

Q 애니메이션을 좋아 한다고 했는데 애니메이션도 연기에 도움이 많이 되나요?

A 전 어떻게든 연기를 배울 수 있는 곳

A 네, 그렇죠. 아무래도 연극이나 드라마에서 볼 수 없는 동작들을 많이 볼 수 있고 그래서 잘 따라하게 돼요. 또 제가 성우에도 관심이 있어서 예전부터 캐릭터를 흉내 내고 따라하고 많이 그랬어요. 일종의 연습이 되는 것 같아요.

Q 롤 모델이나 존경하는 인물이 있다면?

A 유아인씨를 좋아합니다. 그 분은 연기를 보면 항상 자기 색깔을 버리고 완전 다른 인물이 되더라고요. 장단점이 있겠지만 어떤 연기를 해도 항상 똑같아 보이는 배우가 있는데 그런 연기는 절대 안하고 싶어요. 그래서 유아인씨를 존경하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지 만나서 꼭 물어보고 싶네요.^{^^}

Q 오디션엔 본 적이 있다고 들었는데?

A 제가요. '크다컴퍼니'라는 회사에 오디션을 갔는데 정말 잘 했어요. 진짜 심사위원들이 모두 저한테 칭찬을 해주신 거예요. '지방에 사니까 사투리를 쓸 텐데 연기를 할 때는 180도 달라진다'라고 하면서 잘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최종결과는 떨어졌지만 좋은 경험이었죠. 또, 카메라 앞에서 오디션을 본 적도 있어요. 그건 진짜 불태워버리고 싶어요. 그때는 진짜 망했었어요. 대본을 두 개 주고 둘 중에 아무거나 하라고 했는데 제가 분석을 잘못했었어요. 그 대본을 사투리로 해볼까? 했는데 완전 망해버린 거예요. 연기를 사투리를 한다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망하고 나서 심사하시는 분들의 표정이 영 아니었죠.

Q 일반고에서 입시준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A 전 어떻게든 연기를 배울 수 있는 곳



으로 진학을 할 예정입니다. 목표는 서울예대죠. 제가 좋아하는 분들이 그 학교 출신이 많아서 꼭 가고 싶어요. 3학년때는 서울에서 전문적 연기학원도 다닐 계획입니다. 학교공부도 해야 하고 진주에서 서울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쉽지 않겠지만 그것 역시 제가 좋은 배우가 되기 위한 경험들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Q 같은 배우의 꿈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배우의 길이 쉬울 리 없습니다. 요즘 연습생은 갈수록 늘어나고 무명인 배우도 엄청 많습니까. 또 가수나 아이돌, 연예인들이 연기로 전업을 많이 하기도 하구요. 저 스스로에게 그리고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 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연기가 나의 길이라고 하면 끝까지 포기하지 말자!"

[취재/ 한송지(진주여고2), 정창민(동명고2)기자]



[필통칼럼]

공부하는 이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왜 공부해야 하지? 라는 물음은 우문인지 모른다. 학생은 공부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니까 말이다. 좀 솔직히 얘기해보자. 사실 지금 하는 공부가 나중 필요한가? 실제 삶에 쓰여지는가? 아니다. 대부분은 아무짝에 쓸데가 없는 것들이다.

진짜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는 그 결과에 따라 명백한 차별이 있기 때문이다. 차이가 아닌 차별이다. 같은 교실에 앉아 있는 지금은 그다크 그렇게 큰 차별이 없지만 그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고졸인지, 대졸인지, 대학을 어디 나왔는가? 영어를 잘하나 못하나? 그것으로 우리 사회는 큰 차별이 있다. 안타깝지만 그 차별은 곧 인격의 차별이고 사람의 차별이다.

2류대 지방대라는 이유로 서류심사에서 버려지고, 같은 회사 같은 일을 해도 비정규직이란 이유로 절반에 임금이만 줄어든다 하며, 학벌이 인격처럼 또는 계급처럼 낙인 되고, 돈 없고 학벌 없다는 이유로 결혼 상대도 줄어들며,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능력보단 학벌에서 밀리고, 취업난에 이곳저곳 원서 넣지만 번번히 SKY에

처린다. 뒤늦게 공무원시험을 보려 해도 공부로 날고 기는 고수를 준비하니... 그래서 공부하라 하고, 그래서 대학 가라고 난리다.

꿈을 이루기 위해선 한 목소리로 닥치고 공부하라고들 한다. 맞다. 그것이 현실이다. 지금은 한교실에서 웃고 떠들지만 20년 후엔 누구는 의사네 변호사네 좋은 차에 오를이리한 아파트, 이쁜 마누라에 목에 기브스한 마냥 몸 나게 앉아 있고 누구는 찌질하게 나름 잘 나간다는 친구들 모습에 뺨이 꼬여 공한 모습으로 쪼주잔만 연신 들이킬 것이다.

그래서 공부해야 하는가? 차별을 누리면 행복하냐? 누군가의 몫을 빼앗아 더 많은 권리를 누리려하지만 그것이 꿈이고 성공인가? 그러나 차별과 차이는 다른 것이다. 공부를 한 결과가 차이를 만들 순 있어도 차별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공부를 못하고 경쟁에서 뒤처진다고 해서 그들의 삶, 그들의 꿈이 차별 받아선 안 된다. 부와 명예를 얻는 성

공만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하는가? 어쩌면 무엇이 되는 것 보다 어떻게 사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 무엇이 되는 것을 가르치는 것보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배우고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

공부 잘해서 관공사가 된 친구와 공부 못해서 구두수선공이 된 친구가 같을 순 없다. 그러나 또 다를 건 무언가? 관공사의 사회적 책무에 경의를 표하고 수선공의 기술에 박수를 보내면 된다. 평소 읽는 옷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며 만나는 사람이 다를 뿐이지 않은가? 왜 차이를 우리는 차별로 만들까? 경쟁에서 이긴 이들은 그 차별을 유지하려 하고 패배한 이들은 스스로의 삶에서 꿈을 지워버린다. 꿈은 관공사가 된다고 이루어지는게 아니다. 수선공이 된다고 사라지는게 아니다.

동화 같은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지만, 누군가는 공부 잘해서 성공이란 꿈을 하더라도 스스로 차별을 거부하고 기득권이 아닌, 삶에서 행복을 찾으며 자신의 꽃을 피웠으면 좋겠다. 누군가는 경쟁에 밀려 조금 뒤처지더라도 차이는 받아들이고 차별에 저항하며 흔들리

는 바람을 지양분 삼아 자신만의 꿈을 꽃피워 나갔으면 하고 바래본다.

[필통편집국]



톱스타 빨아들이는 게임 광고



요즘 TV를 켜면 모바일 게임 광고에 등장하는 톱스타들을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따르면, 2011년 26억원에 불과했던 게임 업계 지상파 방송 광고액은 2015년 8백60억원 수준. 불과 4년 새 TV 광고를 위해 게임 업계가 쏟아 부은 비용이 무려33배가량 증가한 셈이다.

작년 넷마블게임즈의 '레이브 with naver'는 차승원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홍보 효과를 톡톡히 봤다. 이후 게임 업계에선 너 나 할 것 없이 톱스타 모시기를 시작해 이병헌, 이정재, 하정우, 하지원도 게임 광고 모델 대열에 합류했다. 올해 모바일 게임 광고 시장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스타는 배우 유아인. 그는 '톱스타 광고 모델 기용'의 강자로 불리는 대

형 게임 회사 넷마블게임즈의 RPG(역할 수행 게임) 'KON'의 모델로 활약 중이다. 온라인 시장의 강자 카카오도 카카오게임즈의 브랜드 모델로 톱스타 이유를 내세웠다. 아이유는 카카오의 자회사인 연예기획사 로엔엔터테인먼트의 대표 연예인이다. 포털 사이트 메인 광고로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통투코리아의 모바일 게임 '검과마법 for Kakao : 다시 만나는 세계'의 모델은 소녀시대 태연. 그녀가 직접 부른 이 게임의 OST는 음원으로 발매돼 차트에 랭크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아이오아이, 여자친구, 에이핑크 등 걸 그룹의 진출도 눈에 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톱스타가 모바일 게임의 TV 광고 모델로 등장하는 것에 대해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청소년들이 롤 모델로 삼고 있는 인기 연예인들이 갑작스럽게 무장한 전자 캐릭터로 변신해 전투하는 장면이 청소년들에게 자칫 폭력성을 미화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 게임 속 여자 캐릭터를 다소 선정적으로 묘사하는 것 역시 경계하는 부분 중 하나다.

하지만 모바일 게임 업계의 톱스타 모델 기용 전략은 당분간 식지 않을 전망이다. 비슷한 콘셉트의 게임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오는 시장에서, 출시 초반에 유저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데 스타만 한 상품이 없기 때문이다.

명문대 진학 늘리려 교장-교사 성적조작

광주 A고등학교는 지난해 8명, 올해 6명을 서울대에 입학시켰다. 과거 명문대 진학 결과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A고교는 단숨에 학부모들 사이에서 '진학 잘 시키는' 신홍 명문고로 소문났다. 그러나 '반짝 명성'의 배경에는 교사들의 생활기록부와 성적 조작이라는 조직적 불법행위가 있었다. A고교는 2014년부터 1학년 입학생 400명 가운데 성적이 최상위권인 학생 10여 명과 교사들을 멘토링 관계로 연결했다. 학교생활을 지도해 준다는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명문대 입학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을 3년간 일대일로 집중 관리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입학할 때 1등급인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성적이 떨어지지 않도록 각종 불법행위가 이뤄졌다. 당시 박모 교장(62·해임)은 멘토링 대상 학생들을 선정한 뒤 명단을 작성해 관리했다. 박 교장의 지시를 받은 교사 박모 씨(38)와 한모 씨(39)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나이스(N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229차례 무단 접속해 멘토링 대상 학생 25명의 생활기록부에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36차례 조작했다.



박 교장은 상위권 학생 50명이 토·일요일 공부를 하는 심화반을 만들었다. 학부모들에게 과외비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거뒀다. 특히 기초학력증진이나 진로활동 등을 위한 예산 9000만 원을 심화반 운영 예산으로 돌려댔다. 광주지방경찰청은 7일 생활기록부를 조작한 혐의(공전자기록 위작) 등으로 해임된 박 교장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심화반 과외비 등을 받고 각종 예산서류를 위조한 혐의(횡령)로 김모 씨(44) 등 교사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중학교서 대낮 칼부림 괴롭힌 친구 찢러 중태

지난 9월26일 원주의 한 중학교에서 A(15)군이 같은 반 B(15)군을 흉기로 수차례 찢은 사건이 발생했다. 너무나 충격적인 이 사건은A군이 B군의 전 여자친구를 헐뜯었다는 이유로 B군이 수차례에 걸쳐 A군을 폭행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 A군은 26일 1교시 후 쉬는시간에 "B군으로부터 지속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며 학교에 피해사실을 신고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보복은 옳지 않다"면서 별다른 조치 없이 A군을 돌려보냈다. A군은 이때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B군은 2교시가 끝나자 A군을 화장실로 불러내 폭행했고 폭행을 당하던 A군은 미리 준비한 흉기로 B군의 복부를 수차례 찢었다. 사고 직후 A군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한때 중태였으나 현재는 상태가 다소 호전된 것으로 전해졌다.



교접수, 전담기구 구성, 자치위원회 개최, 조치 이행 및 결정과 같은 매뉴얼이 존재한다. 그러나 일부 학교들은 문제가 확대되면 학교 이미지가 손실된다는 생각에 사건을 축소하기에 급급하다. 각 학교와 교육청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학교폭력에 맞는 대응방안을 준비하고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이미지가 실추된다는 일부 인식을 바꾸려고 노력해야 한다.

A군이 학교 측에 피해사실을 일렸을 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이런 비극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신

연예인 지망생 100만 넘어... 아이들의 붕어빵 꿈 아이돌 될래?



연예인 지망생 100만명 시대다. '너도 나도 아이돌, 과학자를 꿈꾸는 아이들이 없다'는 모 TV광고 속 이야기는 요즘 세태를 그대로 보여준다. 서울 청담동과 논현동 일대에는 서울 각지는 물론 전국에서 모인 연예인 지망생이 5000여 명이 모여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막연하게 연예인을 꿈꾸는 초등학생까지 포함한다면 연예인 지망생이 100만명에 육박한다는 관측도 나왔다.

연예인지망생과 관련된 사업도 성행 중이다. 보컬학원, 연기학원, 성형 전문 병원 등이 번창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카데미'로 불리는 연기 및 가창을 지도하는 학원들이 우후죽순 늘고 있다. 불과 2~3년 사이에 메이저 보컬전문학원이 10배 증가했다. 이는 K

팝 열풍과 케이블채널 Mnet의 '슈퍼스타K'로 시작된 오디션 열풍과 맞물려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전국에 등록된 실용음악학원만 3000개, 서울에만 수백 개에 이른다.

연예인 지망생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국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힘입은 바 크다. 엔터테인먼트 사업의 폭발적인 성장 뒤에는 어두운 그림자도 있다. 부나방처럼 몰려드는 연예인 지망생을 부추겨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어두운 손'도 많다. 엠넷 '슈퍼스타K' 참가 신청자 200만 명 돌파, 전국 225개 대학의 방송영화 관련 학과 재학생 3만 명, 수도권 지역 230여 개 연기학원 수강생 4만3000명, JYP 연습생 선발 오디션 경쟁률 5000대 1... TV는 이처럼 대한민국을 연예인 지망생 공화국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연예인 지망생 100만 명 시대에 2015년 지난 한 해 데뷔한 아이돌 그룹 60여 팀, 한 팀에 5명씩 치면 한 해 아이돌로 데뷔한 숫자는 300명에 불과하다. 어렵게 데뷔를 해도 데뷔 무대가 은퇴 무대가 되는 팀도 30여 팀에 이른다.

하지만 오늘날 TV에선 "여러분의 꿈과 끼, 재능을 마음껏 펼쳐 보세요. 당신도 스타가 될 수 있습니다"라며 안방의 수많은 청소년을 설레게 한다.

무인모델서 청소년훈숙, 운영자 처벌 못해



무인모델' 운영자는 청소년이 이성애와 함께 숙박하는 것(이성훈숙)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친중, 변형 숙박업소 규제를 위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7일 청소년의 이성훈숙을 방조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숙박업자 고아무개(47)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경북 칠곡에서 무인모델을 운영한 고씨

는 15세 여중생이 30대 남자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도록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씨의 사절은 주인이나 종업원 없이 이용자들이 자판기로 결제하면 투숙할 수 있는 무인모델 방식이었다.

이번 판결을 두고 무인모델을 통한 청소년의 이성훈숙이 방지되어 있다며, 무인모델 영업주에게도 청소년 보호 의무를 부여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인모델이 청소년 성보호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입법활동이 필요하다.

음란물 차단앱 비슷한 청소년들...40%가 차단앱 삭제

청소년 스마트폰 가입자들 가운데 40%가 가입 시 기본적으로 설치된 음란물 차단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하거나 탈옥해 음란물에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1년 6개월 전 스마트폰을 통한 청소년들의 음란물 접근을 강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시작한 '청소년 음란물 차단 앱' 정책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9월27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의원실(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현재 이동통신3사와 알뜰폰에 가입한 청소년 221만9249명 중에서 36.9%인 81만9438명이 '유해 매체를 차단' 수단 삭제 의심 청소년 가입자'로 추정됐다. 이는 청소년 스마트폰 가입자 중 40%에 가까운 수치다.

오버워치, 청소년 단속령

'초·중학생을 색출하라' 전국 PC방에 떠돌던 '15세 미만 청소년' 단속령이 내려졌다. PC게임 '오버워치'를 하는 15세 미만 유소년이 크게 늘면서 단속이 강화된 것이다. 오버워치는 15세 미만 이용 불가 게임이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PC방 사업자는 고객에게 연령제한에 맞는 게임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또한 1년 적발 시 경고, 2년 적발 시 5일 영업정지, 3년 적발 시 10일 영업정지로 최대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영업폐쇄에 달하는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초·중학생이 연령 등급에 맞지 않는 게임을 즐겨도 PC방 측에서 밤 10시 이후의 이용만 막을 뿐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PC방 입장에선 매출을 올리지만 할 뿐 직접적인 단속으로 이어져 불이익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오버워치의 경우는 다르다.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인터넷커뮤니티에서 오버워치를 즐기는 초·중학생을 신고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이들은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바로 경찰에게 신고하기 때문에 PC방 입장에선 전혀 알 수 없는 사이 단속이 들어오는 것이다. PC방 사업주들이 급기야 지구책까지 마련했다. 자체 신고 포상금을 건 것이다. 일부 PC방은 오버워치를 하고 있는 초·중학생을 신고할 경우 PC방 이용시간을 무료로 추가 지급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인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PC방을 일일이 규제하기는 어렵다"며 "직접적인 단속보다는 이용등급에 대한 교육을 확실히 시키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라 보고 학교·PC방 업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고생들, 친구따라 담배 피운다



청소년 자녀에게 담배를 피우는 친구가 있다면 흡연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가족보다는 친구의 흡연이 담배를 피우게 되는 주요 원인이기 때문이다. 9월21일 대한간호학회지 최근호에 실린 '청소년의 평생 흡연 및 현재 흡연 영향요인' (권석현 미국 위스콘신대 간호대 교수, 정수용 서울대 간호대 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흡연하는 친구가 있는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흡연할 가능성이 18.1배로 높았다.

진주여중 전국학생독서토론대회 휩쓸어

진주여자중학교는 지난 9월24일 제5회 대한민국 평생교육박람회 전국 중·고등학생 토론대회에 참가해 대상을 비롯해 최우수상, 우수상, 개인상 등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진주여중은 이 대회에서 3학년 디바이스 팀이 대상, 3학년 빛슬과 1학년 지니어스 팀이 최우수상, 3학년 사내래 팀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또한 3학년 김수연 학생은 디베이트상, 김시현 학생은 스피치상을 수상해 개인상까지 휩쓸었다.

전국 중·고등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예선 심사를 거쳐 본선에 진출한 진주여중 토론팀은 '학교 폭력의 방관자도 처벌해야한다'라는 주제로 토론을 펼쳤다. 이번 대회를 통해 청소년의 민주 시민의식의 제고 및 토의토론 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하고 토론 대회를 경연 방식으로 치름으로써 청소년들의 자기주도학습의 동기를 부여하는 계기가 됐다.



진주여중, 2016년 추계 한국여자축구연맹전 3위 쾌거



경남 진주여자중학교 축구부가 지난 9월3일부터 11일까지 강원도 화천에서 열린 '2016년 추계 한국여자축구연맹전'에서 3위를 차지하면서 명실상부한 여자축구부로 거듭나고 있다. 진주여중은 예선성적 1승 1무 1패로 8강에 진출했고 8강전에서 서울 오주중학교를 승부차기 끝에 승리해 4강에 올랐다. 하지만 4강에서 여흥여자중학교에 3대 0으로 패하면서 최종결과 3위를 차지했다.

진주여중은 올해 '제24회 여왕기 전국여자축구대회' 6강, '제4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8강 '제15회 전국여자선수권대회' 8강 '2016년 추계 한국여자축구연맹전' 4강을 기록하면서 명문 여자축구부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다. 능했다"며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진주여중 축구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삼현여중, 스포츠클럽대회 활약



진주 삼현여자중학교 창작댄스부와 축구부가 지난 9월9일부터 10일까지 양산시 일원에서 열린 '2016 제10회 경상남도 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대회'에서 각각 여자중등부 부문 우승과 준우승을 차지했다. 지난해에 이어 이번 대회에서 역시 우승을 차지한 진주 삼현여중 창작댄스부는 오는 11월에 열리는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에 경남 대표로 참가하게 된다.

진주남중 사랑의 빵 저금통 전달식

진주남중학교는 9월20일 지난 2달간 교육공동체가 함께 모은 '사랑의 빵' 저금통 459개를 월드비전에 전달했다. 이 저금통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이 함께 참여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실시했고 그 동안 학생들은 용돈을 사용할 때 동전이 생기면 이 저금통에 모아왔었다. 진주남중은 해마다 실시하는 사랑의 동전 모으기를 통해 학생들은 이웃과 나누는 삶의 중요

성을 배우고 국내는 물론, 지구촌 이웃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체험했다.

개양중 과학기술 드림톡콘서트

진주 개양중학교는 지난 9월5일 1학년을 대상으로 자유학기 수업 중 진로탐색활동 시간을 이용해 학교로 찾아가는 과학기술 진로컨설팅 '과학기술 드림톡콘서트'를 실시했다. 이 콘서트는 개양중학교가 진주 시내 중학교 중 유일하게 선진화 자유학기제를 실시하고 있는 1학년 학생들에게 미래의 과학기술 진로·직업에 대한 학생들의 고민과 궁금증을 쉽고 재미있게 해결해 주는 시간을 가졌다.

이 행사는 교사형 과학기술분야 진로컨설턴트와 전문가형 과학기술분야 진로컨설턴트로 구성된 과학기술 진로전문가가 학교로 찾아와 학생들의 과학기술 진로·직업 관련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드림톡콘서트와 희망학생 대상 1:1 진로컨설팅을 제공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봉원중 경남중등수학체험전에 부스 운영

진주봉원중학교 수학동아리학생들은 지난 9월3일부터 4일까지 김해 진영중학교에서 열린 경남중등수학체험전에 부스

를 운영했다. 이 행사는 '체험으로 수학을 즐기자'라는 주제로 경남도교육청 주최로 김해 진영중학교에서 수학체험 부스 76개와 교구체험, 전시, 수학마술공연, 수학보드게임대회, 음악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날 봉원중이 운영한 '스트링아트-드림캐쳐 만들기' 부스에서는 일정한 규칙으로 나열된 점을 직선으로 연결해 행운의 드림캐쳐를 만드는 체험을 하면서 부스를 방문한 학생들은 수학 함수의 원리를 체험했다.

진주동중, 박정현 산악인 특강 개최

진주동중학교는 지난 9월22일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박정현 산악인과 함께하는 꿈 따라잡기 행사'를 열었다. 이날 진로 특강 강사로 초빙된 박정현은 히말라야의 내로라하는 고봉을 난도 높은 루트로 등반해 산악계의 주목을 받았던 인물로 학생들에게 '놓지 않는 꿈'이란 주제로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강의에 이어 진행된 '나의 꿈 발표대회'에서 21명의 꿈 발표자들은 프리지, PPT, 노래 등 전교생 앞에서 자신의 꿈을 마음껏 발표했다.

진주서 드림樂 청소년 진로 탐색 페스티벌 개최

진주시와 삼성전자, 진주교육지원청이 주최한 진로탐색 페스티벌 '2016 드림樂

서'가 9월20일 오후 12시30분 진주실내체육관 일원에서 학생 및 교사 2200여명의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드림樂서는 중, 고등학생들에게 진로 및 직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지역 청소년들에게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키워주고자 2013년부터 삼성전자가 시군구청, 지역교육청과 공동작업으로 4년째 진행해오고 있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특히 이번 행사는 경남에서는 최초로 진주에서 개최되어 진주를 비롯한 경남지역 청소년과 도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1부 '진로박람회'는 '미래를 만나는곳! 미래를 응원받는 곳' 꿈의 플랫폼 드림樂서'라는 슬로건 아래 4개 주제(미래·직업·사람·꿈)의 체험형 공간으로 마련되었다. 개그맨 김원호의 사회로 진행된 2부 '토크콘서트'는 복서출신 성악가 조용갑 테너와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김보미 사원의 끈기와 도전의 감동적인 강연, 걸그룹 I.B.I의 축하공연으로 참여자들의 뜨거운 열기속에 마무리 됐다.

유해물질 검출 교복 착용금지 조치 해제

경남교육청이 최근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난 3 업체 교복 착용금지를 해제했다. 9월20일 도교육청은 학사모와 공동으로 최근 도내 5개 학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착용 중인 3 업체의 여학생 하복 상의 블라우스 안감 메시를 한국

의류시험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되지 않거나 기준치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착용금지 조치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 1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공산품 안전성 조사 결과 3 교복업체 제품(여학생 하복 블라우스)의 안감 메시에서 시력, 피부 장애 등을 유발하는 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의 1.70배에서 5.27배까지 초과 검출됐다고 발표하자, 곧바로 이 업체 교복의 착용금지를 일선 학교에 지시한 바 있다.

경남 초중고생 1만 명이나 줄어

도내 학생 수가 지난해보다 1만 1684명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30일 발표한 '2016년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경남 지역 전체 학생 수는 45만 7825명으로 지난해(46만 9397명)보다 1만 1572명이 줄었다.

경남의 중학생은 지난해 10만 8732명에서 올해 9만 9401명으로 8.6%(9331명) 감소해 가장 감소율이 높았고, 고등학생은 11만 7575명으로 지난해 12만 84명보다 2509명(2.1%)이 줄었다. 학생 수는 창원시가 14만 5341명으로 가장 많았고, 김해시 8만 4346명, 진주시가 4만 9049명으로 뒤를 이었다.

진주중 관악부 5년 연속 금상



진주중학교(교장 손국복) 관악부가 지난 31일 부산 을숙도문화회관에서 열린 교육부 장관기 제41회 대한민국관악경연대회 중등부에서 금상을 차지했다. 한국관악협회가 주관하고 교육부가 후원한 이번 대회는 8월29일부터 6일간 을숙도문화회관에서 전국 115개 초·중·고등학교 관악부가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진주중 관악부(지휘자 최혁준)는 지정곡 '금강의 혼'과 자유곡 'Moses and Ramses'를 웅장하고 역동적으로 연주하여 5년 연속 금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진주중 관악부는 1957년에 창단, 올해로 69년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2010년부터 매년 정기연주회를 통해 진주지역 시민과 청소년에게 음악으로 아름다움을 공유하고 있으며, 재능기부 봉사활동의 하나로 '찾아가는 음악회' 등을 열어 따뜻한 사랑을 나누고 있다.

진주남중-경남정보고 제2회 춘천 소양강배 씨름대회 휩쓸어

경남 씨름선수들이 제2회 춘천 소양강배 전국장사씨름대회에 출전해 단체전 우승 2팀, 준우승 1팀에 이어 개인전에서도 10개의 메달을 휩쓸면서 경남의 씨름 역량을 높였다. 지난 8월23일부터 29일까지 강원도 춘천달갈비행사장 내 특설경기장에서 열린 '제2회 춘천소양강배 전국장사씨름대회'에서 중등부 진주남중, 대학부 경남대가 단체전 우승, 고등부 경남정보고가 준우승을 차지하고 개인전에서도 금메달 4개, 은메달 2개, 동메달 4개 등 함께 10개의 메달을 휩쓸었다.



진주남중 씨름부는 이 대회 우승으로 올 시즌 2관왕(선수권대회, 춘천소양강배)이자 이 대회 2연패를 달성했다. 고등부 경남정보고는 준결승에서 용인고를 4-1로 제압하고 결승전에 진출했으나 결승에서 송곡고에 1-4로 패하면서 아쉽게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진주여고 매사꿈친 교육기부&방과후 학교 박람회 참가



다. 더불어 방과후 학교 박람회 부분은 초·중·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운영을 통한 결과를 홍보를 함께 진행하였다.

교육부에서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과 부산광역시 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주관한 만큼 규모가 큰 행사다. 그 현장에 진주여자고등학교의 동아리인 매사꿈친도 지금까지의 동아리활동의 결과물과 나눔활동을 소개하기 위해 참가하였다. 기업과 공공기관, 학교단체와는 달리 동아리 단위로 참여한 작은 규모였지만 그 속에서 알찬 운영을 보여주었다. 매사꿈친 동아리는 '매일 교사를 꿈꾸는 친구들', '매스 사이언스를 꿈꾸는 친구들'의 줄임말로써 올해 만들어진 동아리이다. 현재 현대차정몽주재단에서 지원하는 2016 창의인성 동아리 지원사업 '온도리온'과 '이투스' 동아리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본인들의 자비와 지원금으로 모든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전혜원(진주여고2)기자]

진주 로봇클럽, 호주 로보컵대회 준우승



2개 팀, 레스큐 부문에 3개 팀 등 총 8개 팀 30명의 선수가 참석해 열린 경기를 펼쳤다.

한국팀 중에서는 유일하게 유나이티드 진주 로봇클럽(박재현 진주 동명고 2학년, 박성혁 진주 명신고 1학년, 박수민 진주남중 3학년, 박성국 대야중 2학년)이 축구 Gen II 부문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진주레고센터 소속 유나이티드 진주 로봇클럽 팀이 지난 9월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호주에서 열린 '호주 로보컵 오픈대회'에서 한국출전팀 중 유일하게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호주 시드니 UNSW 대학교(The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올 2월에 대구에서 치러진 '2016 한국로보컵 오픈대회'에서 상위 입상한 축구 부문 GEN II 종목에서 3개 팀, 축구 라이트 웨이트 종목에

진주중앙고 제5회 전국 고교생 모의군사재판 대회 2위



취사키기 위해 해마다 전국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개최되고 있다. 이번 대회는 1차 예선대회를 통과한 전국 6개 고교가 9월 1일~2일까지 이틀간 용산에 있는 고등군사법원에서 치러졌다.

진주중앙고등학교 자치법정동아리 가온(이한희외 18명) 학생들이 9월 2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실시된 '제5회 전국 고교생 모의 군사재판 경연대회'에서 공동 2위에 해당하는 해군참모총장상을 수상했다. 고교생 모의 군사재판은 국방부(고등군사법원)와 교육부가 후원하고 국방부에서 주최하는 대회로 재판 절차와 관련 법규에 대한 해석을 통해 법률적 지식을 함양하고 학생들의 준비절서의식을 고

진주중앙고 자치법정 동아리 가온은 법무부가 주최한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에서 민사부문에서 4년간 연속 대상(3회) 및 금상(1회)을 수상한 전적이 있으며 이번에는 군사재판에 도전하여 수상함으로써 모의재판에 있어서 명예로운 학교의 전통을 이어가게 되었다고 한다.

선명여고 배구부, 전국 최강 입증



진주 선명여고가 9월 5일 막을 내린 제27회 CBS배 전국 남녀 중·고 배구대회에서 우승하며 올해 전국대회 3관왕을 차지했다. 선명여고 배구부는 5일 전남 영광 스포티움 실내보조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여고부 결승에서 원곡고에 3-0으로 승리했다. 선명여고는 목포여상(3-0), 남성여고(3-0)를 꺾고 4강에 진출했으며, 수원전산여고와 준결승에서도 3-0으로 이기는 등 결승지 4경기 모두 3-0 완승을 거뒀다. 이로써 선명여고는 올해 춘계 전국남·녀 중·고배구대회, 전국남·녀중별배구선수권대회에 이어 CBS배까지 우승하며 전국체육대회에서 3연속 우승 전망을 밝혔다. 선명여고는 3학년 지민경(레프트)·이선정(센터)·유서연(라이트) 등 청소년대표 5명을 보유하고 있다.

진주기계공고, 제51회 전국기능경기대회서 금1, 동1



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가 제51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금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수상하는 영광을 차지했다. 지난 9월 5일부터 12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 기계과 3학년 천혜준 학생(지도교사 고봉석)이 프로토타입 모델링 직종 금메달을, 건설과 2학년 류형진 학생(지도교사 김택중)이 미장 직종 동메달을 획득했다. 입상 학생은 이후 삼성전기(주)에 특별채용이 약속되며, 지난해 입상자와 평가전을 거쳐 국가대표로 선발될 경우 2017년 아랍에미리트에서 개최되는 국제기능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명신고 Human Library 행사 진행

지난 9월21일 명신고등학교 2기 졸업생인 정인성 영남대 문화인류학과 교수와 홍용근 인제대 물리치료학과 교수가 후배들의 꿈 실현을 돕기 위해 모교에서 자신의 경험을 독서와 관련지어 강의했다. 이는 명신고등학교가 지난해 2015년 9월부터 학생들의 꿈 실현을 돕기 위해 시작한 'Human Library'라는 이름의 행사이다. 'Human Library'는 모교를 졸업한 졸업생이 행사의 이름과 겹치게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책과 함께 이야기하는 강연이다. 작년에는 1기 졸업생인 하병필 현 경남도청 기획조정실장을 초청해 행사를 진행했다.

진주고 전국과학전람회 우수상 수상

진주고등학교는 지난 8월18일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주최하고 국립중앙과학관의 주관한 제62회 전국과학전람회에서 학생부문 물리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행사에서 우수상을 차지한 진주고 2학년 전창훈, 김성재 학생(지도교사 송현중)은 실제 타악기 연주자와 복지는 인형이 만드는 소리의 차이가 연주 동작의 차이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연구를 진행했으며 실제 연주자의 동작을 분석해 동작의 유연성 원리를 파악하고 이를 적용한 기계모형을 만들었다.

진주제일여고 과학·수학 한마당 행사 열려

진주제일여자고등학교는 지난 9월10일 '교과서 속의 과학과 수학을 직접 현장에서 보고, 느끼고, 익히자'라는 주제로 '2016 진주제일여고 과학·수학 한마당'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경남도교육청, 한국과학창의재단 주관으로 진주제일여고의 과학·수학 동아리와 진주여고, 진주고 동아리 등 총 28개의 동아리가 참가해 다양한 체험활동 부스를 운영했다.

이 행사는 과학·수학 체험부스와 전시부스, 과학 및 수학교구 체험, 보드게임 개발업체 '행복한 바오밥의 바오밥 챌린지' 등 다채롭게 준비됐다. 굳은 날씨 속에서도 진주지역의 초·중·고 학생 및 학부모 등 약 1300여명이 행사에 참여해 다양한 교과서 속의 과학과 수학을 직접 현장에서 체험해보는 기회가 됐으며 과학과 수학의 대중화에 기여했다.

경진고 도제교육으로 청년실업 돌파

진주 경진고등학교는 지난해부터 독일식 도제교육을 바탕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을 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6학년도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사업에 60개 특성화고와 860여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경남에서는 경진고를 비롯한 3개교가 기계산업 분야의 도제학교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경진고는 이 사업을 통해 학생에게는 조기 취업, 기업에는 기업맞춤형 인재 공급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우리나라의 학교 중심 직업교육의 장점과 독일의 산업현장 중심의 직업교육의 장점을 접목한 것이다. 학생들은 (주)TNG 세정 외 6개 기업과 협약해 격주로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학교에서는 이론 수업을 받고 기업에서는 현장에서 실기 수업을 받고 있다. 추후 6개 기업을 추가해 더 많은 학생이 다양한 기업에서 산학일체형 배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진양고 포레 상담반 생명존중 캠페인

진양고등학교 포레상담반원은 지난 9월 5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교내 생명존중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 캠페인은 생명존중의식 함양 교육을 강화하고 자살예방교육 집중운영을 통한 생명존중·생명사랑 인식을 확산하고자 실시됐다. 이날 캠페인과 더불어 학생들은 생명존중 서약서를 작성하고, '희망을 주는 말 쓰기' 및 '칭찬 나무에 친구 칭찬 쓰기' 활동도 함께 전개했다.

행사를 주최한 포레상담부 부장 변여진 학생은 "학생들이 쉽게 생명을 포기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러한 캠페인을 통하여 자신의 생명을 더욱 더 존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이번처럼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 행사를 마련한다면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큰 활력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항공과학고, 전국기능경기대회 휩쓸어

공군교육사령부 항공과학고 학생들이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제대로 실력 발휘를 했다. 9월13일 공교사에 따르면 항공과학고등학교는 지난 5일부터 12일까지 8일간 열린 '2016년 제51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출전, 2개 직종에서 금·은상과 우수상을 수상했다. 전국기능경기대회는 경제발전과 기능인력 양성을 도모하기 위한 대회로 올해는 서울공업고등학교를 비롯한 8개 경기장에서 17개 시·도 대표선수 1916명이 참가해 49개 직종의 우열을 겨뤘다. 항공과학고는 강산(3학년)군과 유명지(3학년)양이 공업전자기기 직종에서 더욱 금상과 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또 김이섭(2학년)군은 컴퓨터정보통신 직종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진주 명신고 총동창회, 후배사랑 실천

진주 명신고등학교 총동창회는 지난 8월 30일 모교인 명신고등학교(교장 안명영) 도서관에서 후배사랑 실천을 위한 물품기증식을 열었다. 기증식을 통해 진주 명신고 총동창회측은 1620만 원 상당의 도서관 열람실 의자 90개를 학교에 전달했다.

경남과학고 박건우, IESO 국제지구과학올림피아드 은메달 수상

경남과학고등학교 3학년 박건우 학생이 국제지구과학올림피아드(이하 IESO) 대회에서 은메달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지난 8월20일부터 1주일간 일본 미에에서 열린 제10회 IESO 대회에서 은메달을 수상한 박건우 학생이 한국 과학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렸다는 후문이다. 2007년 한국에서 처음 개최돼 올해로 10화째를 맞이한 IESO는 지구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고 능력을 평가하는 대회다. 세계 26개국 102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한국 학생은 경남과학고 박건우를 포함해 금메달 2개와 은메달 2개를 수상한 것으로 전해진다.

진주중앙고 사도장학회 제자사랑 실천



진주중앙고 교직원으로 구성된 사도장학회가 지난 8월29일 교내 학생 6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제자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지난 2006년 조직된 사도장학회는 진주중앙고 교직원이 실시일반 모은 장학금을 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에게 수여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790만 원을 17명의 학생에게 지난 29일에는 2016년 1학기에 모금한 485만2000 원 중 270만 원을 6명의 재학생에게 수여했다.

경상대학교 국내 최고가 되다

세계 상위 1% 연구자 경상대학교 4명으로 국내 최고가 되다

논문 피인용 횟수 기준으로 '세계 상위 1%' 연구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국내 대학은 어디일까. 서울대도, 연세대·고려대도 아니다. 데이터 서비스 업체인 톰슨로이터에 따르면 한국 연구기관 중 논문 피인용 횟수 기준 상위 1% 연구자를 가장 많이 보유한 곳은 경남 진주의 국립 경상대다.

톰슨로이터는 자체적으로 '노벨상 수상 예측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이때 고려하는 다양한 지표 중 하나가 연구자의 논문이 다른 논문에 얼마나 많이 인용되었는가다. 톰슨로이터는 2004년부터 2014년까지 발표된 21개 분야 12만8887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각 연구자의 피인용 횟수를 계산했다.

이렇게 선정된 '논문의 피인용 횟수가 많은 연구자(Highly cited researchers)' 3200명 중에서 국내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는 총 28명, 이 가운데 경상대 소속 학자는 4명으로, 모두 수학자였다. 서울대 고려대 KA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이 2명씩, 연세대·포스텍은 1명씩 이름을 올렸다.

'상위 1% 연구자'에 이름을 올린 경상대 학자는 2명이 현직 교수(강신민 수학과 교수, 조열제 수

학교육과 교수), 1명이 명예교수(전영배 수학교육과 명예교수), 1명이 시간강사(조선영 박사)다. 조열제 교수와 전영배 교수는 각각 700여 편 안팎의 논문을 발표했고, 강신민 교수는 SCI급 논문만 300여 편을 썼다. 40세에 불과한 조선영 박사 역시 지금까지 70편의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했다. 이들 덕에 경상대는 한국 수학의 메카가 됐다.

비결은 뭘까. 조열제 교수는 "밤낮 없이 연구에 몰두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당연한 얘기처럼 들리지만 사실 밤낮 없이 연구하긴 쉽지 않다. 하지만 "우리 학과 연구자들은 '수학 공부를 하다 죽고 싶다'는 분위기가 있다"는 조 교수의 말에서 열정이 묻어났다. 조 교수 자신도 해외 학회에 참석할 때를 제외하면 평일과 휴일을 가리지 않고 거의 100% 연구실을 찾는다. 연구에 몰두하다 음급실에 실려 간 적만 네댓 번이다.

수학에 '미친' 사람들이 몰려 있다는 점은 연구 주제를 결정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됐다. 같은 주제를 연구하는 사람들끼리 매주 세미나와 공동 연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논문거리를 찾을 수 있다. 거의 같은 분야를 연구하는 강신민·조열



(사진 왼쪽부터 강신민, 조열제, 전영배 교수, 조선영 박사 사진=경상대 제공)

제 교수와 조선영 박사는 평균적으로 주 1회 세미나를 함께한다. 최신 연구 트렌드를 분석하기 위해 경상대 수학과는 격년으로 국제학회를 주최하기도 한다. 해외 저명한 수학자를 안방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셈이다. 매년 방학이면 태국 수학 연구자 5~7명이 경상대를 방문하기도 한다. 조선영 박사는 "중국 장성성 쓰촨대 수학과 석좌교수를 매년 경상대에서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 꿈만 같다"며 "국제학회가 열리면 해외에서 공부하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고 말한다.

학교의 지원도 탄탄하다. 국제 학술대회 참석차 출장을 간다거나 외국인 학자를 초청하는 데 드는 강연비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논문을 저널에 투고할 때 들어가는 비용도 학교가 책임진다. 3대 학술지(네이처·사이언스·셀)에 논문을 발표하면 1억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경상대의 연구비 주수액(800억원) 대비 연구성과금(15억 4400만원) 비율은 전국 거점국립대학 중 2위다.

[필통편집국/중앙일보 기사 인용]

남강유등축제 올해도 전면 유료화 강행

돈벌이 성공한 가림막 축제가
시민들이 원하는 축제일까



<올해 남강교와 천수교에는 첨단 LED가림막이 설치되었다. 낮에는 보이고 밤에는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10월 남강유등축제가 막이 올랐다. 지난해 남강에 가림막을 둘러친 전대미문의 가림막 축제를 만들었던 남강유등축제가 1년 동안 시민들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결국 우여곡절 끝에 올해도 전면 유료화를 고수하고 가림막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시민들의 조망권, 통행권을 막고 시민이 함께 해야 한다는 축제의 본질인 망각한 가림막, 역사적인 축제를 돈벌이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이 계속되었고 1년 가까이 시민들의 가림막 반대 시위까지 진행되었지만 결론은 올해도 가림막을 치고 입장료를 받겠다는 것에는 변화가 없었다.

시민들의 반대여론과 경상남도의 야외축제 유료화 반대 권고 때문인지 내용은 약간의 수정을 했다. 금토,일을 제외한 평일은 진주시민이 확인만 되면 무료로 입장이 할 수 있다는 것, 경남도와 인근 지자체의 관광객들은 할인을 해 준다는 것이다. 가장 문제가 되었던 가림막은 지난해 보다 더 예쁘게 만들고 조경등으로 자연친화적으로 한다고 한다. 특히 남강교와 천수교는 LED를 이용해 낮에는 보이고 밤에는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평일 무료입장이 가장 큰 변화로 보이지만 작년에도 무료입장권을 주말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처럼 진주시민은 주말 구경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 이는 축제의 주인인 진주시민을 여전히 들러리로밖에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진주시는 진주남강유등축제의 품격과 발전을 위해 많은 돈을 투자했으니 유료화와 이를 위한 가림막은 당연하다는 논리를 펴다. 그러나 그것은 그야말로 축제의 인식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다. 축제는 규모의 확장찬란함에 성공이 달려 있지 않다. 지역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다.

유료화와 가림막 유지는 또다시 진주시민과 축제를 갈라놓을 것이다. 시민과 장벽을 쌓고 장사의 이문도 시원찮은 남강유등축제 유료화를 끝까지 고집하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일인지 모를 일이다.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진주시민은 가림막 없는 남강유등축제를 원한다는 것이다.

10월 어김없이 남강 유등축제는 시작되었다. 또 축제가 끝나면 진주시는 입장객이 몇 명이었는지, 수입이 얼마였고 자립율이 최고를 달성했는지 하며 축제의 대성공을 이야기 할지 모른다. 그러나 장삿속으로 전락한 축제, 시민들이 고개 흔들고 외면하는 축제는 결코 성공할 수가 없다. 과연 진주시민들이 이런 남강유등축제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한편으로는 시민들의 뜻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닌지 하는 걱정이 더 앞서기도 하다.

[필통편집국]



<진주시청 앞에서는 가림막 반대와 시위 반대를 주장하는 1인 시위가 반복되었다>

모두의 축제, 학생들에게는 축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축제가 되길..



매년 10월이 되면 진주에는 진주시민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들, 심지어 외국인까지 와서 즐기는 축제가 열린다. 그것은 바로 개천예술제와 남강유등축제다. 모두가 즐거울 줄만 알았던 이 축제에서 웃고만 있을 수 없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바로 진주시내 고등학생들이다! 학생들은 이 맘때면 항상 '진주남강 유등축제 창작등 경연대회' 준비로 바쁘다.

대한민국 대표축제인 진주남강유등축제를 널리 알리고 전국 고교생·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회를 통해 창의적인 표현의 장을 제공해 준다는 취지로 전국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매년 진행되고 있다. 진주 시내에서는 진주 중앙고등학교, 진주여자고등학교, 진주고등학교, 경남지동차고등학교, 진주동명고등학교 등 대부분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강제적으로 참여해야만 한다. 바로 미술 수행평가로 연결되기 때문인데 그래서 대충 할 수도 없는 일이 되었다.

대학입시에 반영이 되는 수행평가를 왜 굳이 '유등 만들기'를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지역축제에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이 어찌 나쁘다고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축제 참여는 자율적이어야 되지 않을까? 학생들에게 민감한 수행평가를 이용해 축제에 필요한 유등을 강제로 만들게 하는 것은 축제의 본질적인 의미와도 맞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이런 유등을 만들려면 금전적 비용도 부담이 될 뿐 아니라 수행평가 점수를 더 잘 받기 위해 더 많은 돈을 들이는 학생들도 생길 수밖에 없다. 또한 지난해부터 남강유등축제가 유료화 되면서 학생들이 자신이 만든 등을 자유롭게 볼 수도 없게 되었다. 돈을 주고 입장료를 사서 들어가야 자신이 만든 등을 볼 수 있는 기막힌 일이 벌어진 것이다.

축제는 모두가 즐길 때 그 의미가 있다. 그런데 화려한 축제의 보이지 않는 뒷면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는 것은 씁쓸한 현실이다. 지역의 축제는 우리 청소년들도 함께 즐길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고등학생들에게 축제가 숙제처럼 받아들여지는 현실은 축제 유료화만큼이나 학생들을 화나게 하고 있다.

[여가현(진주중앙고1) 기자]

맏칸년맏반 [경진고등학교 2학년7반]



3년 동안 동고동락, 가족 같은 우리 반! 잊지 못할 3년의 고교시절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맏칸년맏반 역대급 경진고등학교편을 소개한다.

철은 없어 보이는 장난끼가 가득하고 서로간의 끈끈한 정과 바른 인성으로 똘친, 화기애애한 2-7반 산업디자인과다. 산업디자인과는 반이 하나다 보니 입학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같은 반으로 3년을 동고동락한다. 벌써 2년째, 25명 모든 친구들이 가족처럼 느껴진다. 함께 장난치고 공부하고 고민하고 또 자신들의 미래를 준비한다! 잊지 못할 3년의 고교시절을 함께 만들고 있는 그들을 만나본다.

잠깐! 산업디자인과에서는 어떤것들을 배울까?

가능성, 심미성을 창조하는 Soft Science!
경시대회 매년 최다 입상! 경남 최고!
뛰는 아이디어로 멋진 신세계를 창조한다!
디지털시대를 선도하는 감성 디자이너

... 산업디자인과

Dept. of Industrial Design

교육과정 디자인일반, 디자인제도, 컴퓨터그래픽, 그래픽디자인, 광고사진, 색채학 디자인실습, 조형실습, 공예, 시각·광고·제품디자인, 일러스트레이션, 인테리어 경시대회 준비 지도(입상자 대입 특혜)

실습실 컴퓨터그래픽실습실, 그래픽디자인실, 시각디자인실습실, 디자인실계실습실, 디자인공예실

자격취득 컴퓨터그래픽스, 제품디자인, 제품응용모델링, 컬러리스트, 광고, 건축도장 외 디자인 관련 전문분야

진로 전망 제품디자이너, 가구디자이너, 광고디자이너, 패션디자이너, 디스플레이어 편집디자이너, 조형디자이너, 보석디자이너, 안경디자이너, 인테리어 만화 기획, 웹툰 기획 등의 디자인 전문가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의 관련 학과에 진학

2-7반이 말한다! 이상형과 장점, 좋아하는 것은?

이름	나의 이상형	나의 장점	내가 좋아하는 것
강경민	좋은 냄새 나는 사람	잘 논다	놀이, 음악, 요리
강예림	you♥	다리가 이뻐다	치킨 사주는 사람
김근영	수히	수히	수히
김근원	조신한 여자	정다영이랑 친구다	랩
김완석	가슴 큰 여자 C컵 이상	뽀뽀를 타는 것	차타는 것
김태현	박하선	공부를 잘하는거 같다	요리
박민규	재진이 가슴(몸무게 45kg)	우리반 당구 통	은
박상민	이쁜여자	착함	여자
박예진	순하고 말투 부드러운 사람	입이 작다	남자친구랑 데이트
양성규	착하고 예쁜 여자	피부가 좋다	축구하는 거
오경석	신세취	착함	운동
유순정	서인국	팔과 목이 이뻐다	공포영화, 웹툰, 반려동물
이상용	귀엽고 키 작은 사람	착하다	노는 거
이연석	키작은 사람	성격이 온순하다	요리, lol, 자동차
이정환	단발머리	바보짓	그림그리기
이지훈	착하고 단발	잘논다	피파3
이태현	뭔가 끌리는 여자	착하다	메이플 스토리
이형찬	듬직한 여자(몸무게100kg이상)	몸보면 바로반함	자동차
임채광	착한여자	잘 웃는 남자다	밥
정다영	눈웃음 있고 순하고 자상한사람	눈웃음^^	오버워치,밥,
조재진	처녀귀신♥	우리반 운동통	돈까스!!!
진태성	없음	인성이 좋다	게임
하중혁	받는 걸 좋아하는 여자만 아니면	요리를 잘 한다	꿀
허지운	성준이♡♡♡♡♡	애기피부	성준이, 오버워치, 반려동물
황인옥	없음	없음	없음

[취재/ 정다영(경진고2)기자]

매력이 철철 흐르는 7반의 매력남녀들을 소개합니다



강경민 수업시간 김태현이랑 장난치며 웃다가 선생님께 혼이 날 때도 웃음을 멈추질 않아서 선생님도 결국 미소 짓게 만드는 우리 반 대표 귀염둥이다. 통통한 몸에 예쁜 눈 엄청난 개그감을 장착한 7반의 미친 존재감이다.



양성규 자는 모습만 정말 잘생겼다.^^ 아기 같은 피부와 조용한 성격에 비해 남자다운을 좋아하지는 항상 카리스마 있는 척(?) 하지만 친구들 눈에는 마냥 순한 양 같다. 반전 매력이려면 축구도 게임도 노는 건 잘한다.



이상용 5분 지각할 때마다 배를 부여 잡고는 배탈이라고 핑계를 많이 부려서 이전 선생님들도 더는 속지 않는다. 완벽한 여우상, 키도 큰 편에 비율도 좋고 매력 있는 외모를 가졌지만 성격이 정말 백치미 같은 순수함이 반전이다.



이형찬 시청 주자장, 63빌딩 주차장이 자기 집이라는 말도 안 되는 말장난으로 항상 웃긴다. 하지만 오빠란 소리를 들으면 한없이 수줍어하고 귀가 빨개지는 게 특징. 말이 많다고 느낄 정도로 재밌는 친구지만 큰 키에 몸도 좋고 모범생 같이 생겨서 첫인상과 매우 다른 친구 1위다.



정다영 긴 생머리의 로망을 꿈꾸며 2년 반 동안 길렀더니만 어울리지 않는다는 주위 친구들의 말에 바로 단발로 잘라 버렸다. 헤어 디자이너를 꿈꾸며 먹을 때가 잠자는 거보다 행복하다고 말할 정도로 음식을 좋아한다. 매점 이준마에게 사랑받는 친구다.



오경석 "내가 없으면 7반은 돌아가지 않는다."라며 강력한 리더십 있다고 주장하는 것 만큼이나 미친 존재감인 것은 확실하다. 말 한마디 한 마디가 웃기다. 교실에서서 옷 벗고 여학생과 눈이 마주치면 씩씩하고 부끄러워 하지만 어깨도 넓고 잘생기고 운동도 잘하는 자칭 멋진 남자다.



조재진 한 여름 불거리로 고생했던 아픈 기억. 불거리 걸린 반은 한 동안 에어컨 들지 못하는 규칙 덕에 반 친구들이 고통스러웠던 적이 있다. 자신이 반에서 축구를 제일 잘한다고 말하는데 맞다. 정말 잘한다. 조용히 할 말 다하고 카리스마 있어서 남자에게 인기가 많다.



박예진 정말 실물이 9999배 이쁘다. '셀고' 라는 말을 많이 듣고 예쁜 몸매, 예쁜 얼굴에 순한 인상이지만 말 하나는 꼭 부러지게 잘해서 여학생들 사이에서 사이더라고 불린다. 눈썹을 잘 그리고 운동도 알바도 공부도 워든 열심히 하는 친구다.



김완석 엄청나게 시끄러운 환경에서도 혼자서 굳이 잘 지는 모습이 겨울잠 자는 꿈 같다. 신문에 올릴 사진을 달라는 말에 이런 귀여운 사진을 찍서 당황했지만, 깨어 있을때 반전으로 엄청 시크하고 카리스마 있다. 노래를 잘 불려서 김근원이랑 축제 때 무대에 서기도 했다.



이지훈 선생님들 앞에선 조용하지만, 친구들이랑 놀 때는 시끄럽고, 제일 재밌다. 여자보다 친구를 더 좋아하고(?) 뽀로로처럼 큰 안경을 쓴다. 학교에서 자는 모습이 아주 겨울잠 자는 곰과 흡사하다. 수업이 있어서 그렇지 반에서 금수저라고도 불린다. 신 잘 입고 나름의 무한 매력을 뽐낸다.



박상민 학생 신분이지만 치킨집 사장이다. 큰 키와 통통한 몸, 완벽한 '곰' 상이다. 단기간 20kg이 찘다고 한다. 학교에서 자는 모습이 아주 겨울잠 자는 곰과 흡사하다. 수업이 있어서 그렇지 반에서 금수저라고도 불린다. 신 잘 입고 나름의 무한 매력을 뽐낸다.



김근원 2년 연속 반장, 권력욕(?) 이 아닌 봉사정신이 투철한 2학년 7반의 리더다. 정다영한테 장난치는 걸 무지 즐기는 탓에 좋아하는 것 아니냐는 루머를 스스로 만들어 낸다. 남자다운 외모에 램을 잘한다. 뜻밖에도 강아지를 엄청 좋아 해서 무한애정을 쏟는다.



선입견은 이제 그만! 경진고의 특별함!!

대박에 꼭 가야하는데...

재밌게 학교 다니고 싶어요.

좋은 회사에 취지, 꼭 받고 싶어요!!

미래정보사회 첨단 지식 배우고 싶어요!!

1 진학반 운영 선배멘토링(대학탐방) 유리한 내신성적 + 특별전형 희망자 100% 진학

2 동아리(밴드반, 난타반 등 다양함) 배드민턴 왕 선발 슈퍼스타 경진대회 (노래방 개설)

3 다양한 5개학과 21C 지식정보화 사회 인재양성 컴퓨터 특성화고 (최신 PC 300대 보유) 다양한 교육시설

4 삼성전자, 삼성코닝, 삼성모바일, LG전자 등 희망자 100% 취업 (연봉 3,000만원 내외)

[19금 파헤치기] 19금이상 관람불가 자위행위 미니보고서

여러분은 자위를 합니까? 제대로 알고 있나요?



자위행위 사전적 의미
[masturbation, 自慰行爲]

‘자기위로’ 줄여서 자위라고 칭하겠다. 자위란 손이나 다른 물건으로 자기의 성기를 자극하여 성적(性的) 쾌감을 얻는 행위를 말하며 오르가즘에 도달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혼자서 혹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루어지며, 성기가 아닌 다른 성감대를 자극함으로써 이루어질 수도 있다. 다르게는 ‘수음’, ‘마스터베이션’, ‘오나니즘’ 이라고도 한다.

자기위로에 대해서 당신은 얼마나 아는가? 일종의 성적 욕구해결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하는 자기위로.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공공연하게 말하기엔 사회적으로 금기시된 자기위로. 이번 19금 파헤치기에서는 이 ‘자기위로’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 보려 한다. 뭇들 숨기고 감추기만 하면 잘못된 정보를 갖게 되기도 하고 편견과 오해를 범하게 된다. 청소년에게 자위에 대한 애기와 토론은 금기도 아니고 19금 또한 아니니 터 놓고 함께하길 바란다.

자위행위에 관한 오해와 진실



먼저 자위행위를 하면 남성은 정액이 부족해져 불임이나 발기불능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알고 있다. 그런데 남성은 한 번 사정하고 1~3일 후면 다시 원래대로 채워지는 기특한 몸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더구나 정액은 평생 지속적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

또 자위행위를 자주 하면 머리가 나빠지고 학습 능력이 저하된다고 교육받고 자란 사람들이 많은 것이다. 그런데 무슨 일이든 지나치게 집착하면 해가 되는 법이다. 하루에 3~4번 이상 하는 경우가 아니면 문제가 없다.

혹자들은 자위행위가 성기의 변형과 기형을 유발한다고도 믿는다. 그렇게 말하는 이들에게 묻는다. 도대체 어떻게 자위행위를 하길래 변한다는 것인가. 단지 성 기구를 사용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경우 상처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기를 당부하고 싶을 뿐이다.

간혹 응급 치료 사례를 보면 어떤 여성은 전구 같은 깨지기 쉬운 물건을 사용했다가 병원을 찾았다는 기록이 있고, 어떤 남성은 발기된 성기에 링을 끼웠다가 빠지지 않아 낭패를 보아 병원을 찾았다는 기록이 있으나 그런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다.

또한 여성이 자위행위를 하면 처녀막이 터질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마사지 조금 받는다고 터질 처녀막이 아니다. 자위행위를 하면 질에 냉이 많이 나오거나 냄새가 심하게 나고 색깔이 누렇게 변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다른 신체의 질병이 있는 것이니 병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위행위가 성생활에서 개인의 성적 반응을 감소시킨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자위행위는 파트너가 찾지 못한, 혹은 지금까지 나조차 알지 못했던 나만의 성감대를 찾는 아주 특별한 탐험이 될 수 있다.

즉 스스로 숨어 있는 성감대를 찾아 실제 성행위를 할 때 상대방에게 알려준다면 더욱 만족스러운 섹스를 위한 양념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나보다 더 나를 잘 아는 사람은 없으므로. 한편 성 의학에서 인정하는 자위의 유일한 악영향은 죄책감뿐이라고 하니 차라리 자위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것이 어떨까.

Q. 자위행위를 많이 하면 다크서클이 생긴다?

A. 본인의 건강이 허락하는 빈도보다 너무 자주 자위행위를 한다면 신체·정신적으로 피로하고,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다. 대인관계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다크서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보고는 없다. 다만 밤늦게까지 혼자 너무 열을 올리다보면 잠도 부족하기 쉽고 늘 피곤한 사람처럼 보일 수는 있다.

Q. 자위를 많이 하면 조루증에 걸릴 확률이 높다?

A. 신체적인 면에서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지만, 간접적으로는 관련이 있다. 자위행위는 자신의 성감에 맞추기 쉽고 혼자서 남몰래 하다보니 들쭉날쭉 서두르는 경향이 많다. 지루 서두르는 것이 습관이 돼 이성과의 성관계에서도 서두르는 원인의 하나가 될 수는 있다. 따라서 이러한 원인으로 인한 조루증은 약물치료나 훈련을 반복하는 행동치료 등이 도움이 되곤 한다.

Q. 여성이 자위를 많이 하면 소음순이 검어진다?

A. 남녀 모두 성기 주변에 멜라닌 색소가 많아 성 자극이 많으면 멜라닌의 활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는 하지만, 자위행위나 성관계가 많아서 소음순이 검어진다는 표현은 옳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자위에 대한 몇 가지 설문조사

‘자위’가 청소년들에게 민감한 주제고 드러내기 쉬운 이야기가 아니어서 필통기자단 학생들에게 간단한 설문을 통해 청소년들의 생각을 엿보기로 했다. 남학생 8명, 여학생 14명이 참여했다.

남, 여학생에게 물었다.
서로 얼마나 자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실제 청소년들의 자위행위 경험비율을 남, 여학생들은 서로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했다. 남학생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90% 이상이 자위행위를 할 것이라고 답했고 여학생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20%~50% 정도로 의견이 갈렸다.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이 절반이상은 자위를 하지 않을 것으로 느끼고 있다는 얘기다.

여학생들은 어떨까? 일단 남학생들을 볼 때 다수

인 6명이 90% 이상이 자위를 할 것이라 답했고 70% 이상이 4명, 나머지 모두 50% 이상이었다. 여학생들도 남학생들은 대부분 자위를 한다고 느끼는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러면 여학생들 스스로는 어떻게 평가할까?

10% 이하 2명, 20% 이하 4명, 30% 이하 3명, 9명



Episode1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1975년 경주 안압지(雁鴨池) 준설 작업을 겸한 발굴 조사 도중 특이한 유물 하나가 출토됐다. 17.5cm 길이의 이 목재 유물은 너무나도 사실적으로 발기된 남자의 성기를 닮아있었다. 이후 크기와 모양이 다른 남근(男根) 모양의 목재 유물이 2점 더 발견됐다. 이 목재 남근의 표면은 꽤 오래 손때를 탄 듯 반질반질했다. 단순한 남근송배 신앙의 산물로 보기에 무리가 있는 유물이었다. 목재 남근이 ‘달도(남자 성기 모양 자위기구)’가 아니냐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목재 남근은 1300여 년 전 신라 여성의 ‘달도’인 셈이다.



Episode 2 광고가 주는 메시지가 자위행위?

미국의 유명 패션 디자이너 알렉산더 왕의 2014년 새 청바지 광고가 선전성 논란에 휩싸였다. 자신의 새 청바지 라인 ‘데님 X 알렉산더 왕’을 론칭하고 광고 사진을 공개했다. 알렉산더 왕의 광고 비주얼은 늘 업계에서 열광적인 호응을 얻었지만, 이번엔 달랐다.

사진 속 모델 안나 이버스는 청바지를 종아리까지 내린 채 소파에 눈을 감은 채 기대어 있다. 청바지 외에는 몸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있다. 또 하나의 사진은 모델이 다리와 다리 사이에 한 손을 올려놓고 다른 한 손으로는 청바지를 내리는 포즈를 취하고 있다. 많은 매체와 누리꾼들은 이 광고 비주얼이 마치 여성의 자위행위를 연상시킨다며 쓴소리를 가했다.



죄책감에 빠지고 학업에 지장 줄 수도... 자위를 하더라도 에티켓은 지켜요!

“성호르몬의 급격한 분비로 인해 청소년기는 성적 욕구가 강한 시기로 이러한 성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학생들이 자위를 선택하기도 하는데, 자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는 행위이지만 성 욕구 해소의 진정한 모습이 라고도 보기는 어려워요. 자위의 순간에는 쾌감을 느끼게 되지만 그 이후에는 허탈감을 느끼며 괴로워하기도 하고 특히나 여학생들의 경우는 심한 죄책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한 자위에 빠지게 되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신만해지면서 당연히 학업

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죠. 따라서 자신의 성적 에너지를 인정하되 에너지를 분산시킬 수 있게 학업이나 운동, 기타 취미활동 등 다른 곳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자위를 하게 된다면 자위 에티켓을 지키는 게 중요하겠죠?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을 혼자만의 공간, 손은 깨끗이 씻고, 몸에 상처를 내거나 건강에 문제가 없을 정도로 뒹정리는 깔끔하게 하도록 해요!”

[경해여고 보건교사 김보은 선생님]

이성의 자위, 어떻게 생각해?

원00(17,여)

물론 종교와 문화의 가치관이나 신념에 따라 옳고 그름에 있어 확고하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이 행위는 결코 잘못된 행동이 아니다. 인간이 성적 쾌감을 추구하는 것은 본능이며, 지극히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동이 지나치게 강박적이라면 자칫 성병 등 좋지 않은 파국을 초래할 수도 있지만 이는 약간의 이례적인 결과라고 생각한다. 단지 몸을 보호하기 위한 절제가 필요할 뿐,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박00(19, 남)

나쁜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일상생활 속에서 득이 되는 부분이 더 많은 것 같다. 하지만 우리는 적극적인 남성과 수동적인 여성이라는 이분법이 지배하는 사회 속에서 살아간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여성의 경우에는 심사리 자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어려울 것이다.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자위행위를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고, 조금 더 자신의 본능에 솔직하게 대하는 자세도 필요할 것 같다.

의 학생들은 여학생들의 자위행위가 많지 않다고 봤고 50% 이하 2명, 60% 이하 2명, 70% 이하 1명, 5명의 학생은 조금은 다른 의견이었다. 확실한

조사는 아니지만 남학생과 여학생이 서로의 자위 행위를 바라보는 약간의 온도차가 있는 듯하다.

남학생	여학생
만일 자위를 하다가 부모님에게 들켰다면? (자위를 한다고 가정)	
①시간을 내서 얘기를 한다. (4명) ②모른 척 한다 (2명) ③대화가 끊기고 어색해 질 것 같다. (2명) ④ 누군가에게 상담을 신청한다. (2명)	①시간을 내서 얘기를 한다. (6명) ②모른 척 한다 (3명) ③대화가 끊고 어색해 질 것 같다 (2명) ④기타의견 (들켜도 상관없을 것 같다. 부모님께서 크게 문제 삼지는 않으실 것 같다.)
이성친구가 자위를 한다면	
①개인의 자유니 상관없다. (6명) ②말리진 않겠지만 기분은 좋지 않을 것 같다. (2명)	①개인의 자유니 상관없다. (12명) ①말리진 않겠지만 기분은 좋지 않을 것 같다. (2명)

[취재/ 한현치(경해여고1), 이동연(명신고1) 기자]

궁금해? 태극기, 애국가 궁금해!

항상 보고 접하는 태극기, 애국가 얼마나 알고 있나요?

올림픽 시상식, 1등의 자리에 오르면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는 태극기, 흘러나오는 애국가. 대한민국 국민을 하나로 이어준다고 하고 과언이 아닌데요,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태극기와 애국가는 늘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접하는 것이죠. 가깝고, 친근하다고만 느꼈던 태극기와 애국가의 새로운 모습들! <필통에게 물어봐>에서 같이 파헤쳐 봅시다.



최초의 태극기는 누가? 박영호 VS 고종황제



우리나라 최초의 태극기를 만든 사람은 박영호로 보는 것이 기존의 학설이었다. 그의 일기인 '사화기략'에 나온 기록을 보면 그가 준비해 간 '태극 팔괘도'를 본 영국인

선장 제임스(James)가 '너무 복잡해서 식별이 어렵다'는 의견을 내 '팔괘도'에서 네 개를 뺀 '사괘도'로 고쳤다는 언급이 있었던 것인데,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박영호가 수신사로 일본으로 가기 이전인 1882년 5월 조미수호통상조약을 조인할 때 만들어 졌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조미수호통상조약 당시 미국 전권특사 슈펠트(Schufeldt) 제독이 조선 대표인 신현과 김홍집에게 국기를 제정해 조인식에 사용할 것을 권하고, 김홍집은 역관 이응준에게 국기를 제정할 것을 명하면서 이응준이 1882년 5월 14일에서 22일 사이에 미국 함정인 스와타라호 안에서 국기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모든 국기 도안과 제정 문제는 고종황제의 지대한 관심 속에서 진행되었고, 고종이 그 중심에 서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미 1875년 8월 일본이 일으킨 운양호 사건 후 조일수호조규 체결 때부터 조선은 국기의 존재와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역사에 두루 밝고 국가의 독립과 왕권 강화 문제에 민감하던 고종이 국기를 결정하는 중대한 문제에 무관심했을 리가 없다.

태극기는 언제 달게 되어 있나요?

국경일에 관한 법률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5대 국경일인 3.1절과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은 물론 현충일(조기)과 국군의 날에도 국기를 달게 돼 있다.

애국가 작곡가 안익태는 친일파인가?



애국가의 작곡자인 안익태 역시 친일반민족인사란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2000년대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에서 안익태가 '예키타이 안'이라는 일본 이름으로 활동한 자료가 공개되면서 안익태도 친일반민족인사 명단에 오르게 된다.

일본왕 기원 2600주년 봉축회와 만주건국 10주년 기념회를 위하여 일본과 만주국을 찬양하는 만주환상곡을 지었을 뿐 아니라, 1938년에 발표하여 자신의 역작이라며 각지에서 지휘하고 다니던 '에텐라쿠'라는 음악은 일본 천황 즉위식 때 축하작품으로 연주된 곡이다. 자기 나라를 식민지로 만든 일본 천왕을 칭송하고, 일제의 침략전쟁의 교두보인 괴뢰국 만주국을 찬양하는 음악을 만들고, 다른 나라에 일제를 홍보하는 음악 활동으로 반민족행위자 명단에 오른 인사가 작곡한 노래를 애국가라고 계속 부르는 것이 옳은 일일까.

언제부터 지금의 태극기가?

광복 이후 태극기의 제작법을 통일할 필요성이 커지자 정부는 1949년 국기시정위원회를 구성해 오늘날의 '국기제작법(문교부고시 제2호)'을 확정했다. 1972년에는 '국기에 대한 맹세'를 실시했으며, 현재는 2007년에 제정된 '대한민국 국기법'에 의해 국기에 관한 사무 전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북한도 태극기를 사용했나요?



제1회 조선로동당 전당대회 모습을 보면 단상의 모습에서 당시 태극기를 인정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북한 역시 광복 후 3년간은 태극기를 사용하다가 인공기를 만들 정도로 태극기는 우리 민족의 상징으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였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소지하는 것마저도 어려웠던 우리의 소중한 태극기지만, 지금은 국경일조차도 태극기를 달지 않는 집이 많은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잠시라도 우리의 태극기를 바라보며 그 소중함을 되새기고, 태극기를 가슴에 품은 채 일제의 억압에 맞서 싸운 순국선열이 계셨다는 점 정도는 기억하면 좋지 않을까요?



애국가 작사가 윤치호는 친일파인가?

그는 1940년대부터 '황국신민으로서 일제에 충성'을 호소하고 '일제의 징병에 협력할 것'을 공개적으로 권유한다. 귀족 직위도 모자라 중추원 고문·대화동맹 위원장을 넘어 1945년 일본 제국의회 귀족원 의원에 선임됐다. 일제강점기 조선인으로 일본 제국의회 귀족원 의원에 선임된 인사는 단 10명이었으니, 친일파로서 그의 지위가 어땠는지를 짐작케 한다.

윤치호는 일본 왕을 천황 폐하라 부르고 조선 총독을 조선인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일본을 위해 죽자는 각오를 다진다. 일본의 침략전쟁을 동양민족 해방을 위한 성전(聖戰)이라고 주장한다. 침략전쟁에 협력해야 한다며 '황군 위문곡', 국방헌금과 비행기 구입비를 헌납하고, 각종 시국강연회와 언론 기고문을 통해 징용과 징병을 독려했다. 조선 청년들에게 일제의 총알받이가 될 것을 강요한 것이다. 이런 일급 친일파, 반민족 인사가 가사를 지은 것으로 알려진 노래를 우리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오늘도 애국가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

태극기가 가진 역사적 의미는?



태극기는 구한말 이후 국권회복과 대한 독립의 굳은 염원과 결의를 보여주는 상징이었다. 실제 구한말 의병장 고광순(1848~1907)은 일본군과 싸울 때 '불원복(不遠復, 조국의 국권을 곧 회복할 것이다)'이라는 글자를 새긴 태극기를 지니고 다니며 조국의 국권 회복을 기원했다. 임시정부 요인들은 1921년 신년축하식에서 태극기를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하며 대한독립의 의지를 다졌다. 임시정부 김구 주석은 1941년 미국에 있는 한인교포들에게 태극기를 보내며 '일본을 타도하고 조국의 독립을 달성하자'는 요지의 글을 태극기에 써서 보내기도 했다. 윤봉길 의사의 한인애국단 입단 기념촬영에도 태극기는 어김없이 광복을 향한 염원의 상징으로 함께 했다.

광복 이후에도 정부수립 경축식, 3.1절 및 광복절 행사 등 정부의 주요 행사에 태극기가 개양됐고, 경축 시가행진을 할 때에는 맨 선두에 대형 태극기가 등장했다. 6.25전쟁이 발발하자 우리 국군은 태극기 위에 승전을 다짐하는 글귀를 새기며 조국수호의 의지를 다졌고 서울을 수복했을 때에는 옛 중앙청 건물 앞에 태극기를 게양하며 기쁨을 함께 했다.

광복 이후에도 정부수립 경축식, 3.1절 및 광복절 행사 등 정부의 주요 행사에 태극기가 개양됐고, 경축 시가행진을 할 때에는 맨 선두에 대형 태극기가 등장했다. 6.25전쟁이 발발하자 우리 국군은 태극기 위에 승전을 다짐하는 글귀를 새기며 조국수호의 의지를 다졌고 서울을 수복했을 때에는 옛 중앙청 건물 앞에 태극기를 게양하며 기쁨을 함께 했다.

태극기에 담긴 의미는?

흰색 바탕 순수함을 상징,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의 민족성을 나타낸다. 음(파랑)과 양(빨강)의 조화를 상징하는 태극문양은 음양의 상호작용에 의해 우주 만물이 생성하고 발전한다는 것을 뜻한다고 한다. 건곤감리 4괘는 음과 양의 조화를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 건은 하늘, 곤은 땅, 감은 물, 이(리)는 불을 상징한다. 봉에 있는 무궁화 꽃봉오리에 담긴 뜻은 우리 민족의 잠재성, 발전성을 상징하며 아직 피어나지 않은 무궁화의 무궁한 발전을 염원하며 제작하였다. 태극기는 우주와 더불어 끝없이 창조와 변명을 추구하는 한민족의 이상을 담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애국가 그 진실을 역사는 알아야 하는 이유?

법으로 애국가를 '국가'로 지정하지 않았지만, 이미 70년 동안 관행으로 불려온 애국가를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현실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은 우리가 부르는 애국가를 지었다는 윤치호와 안익태가 민족을 얼마만큼 배신했는지 속속들이 알지 못한다. 따라서 반민족 행위자로 알려진 인사들의 행적을 국민에게 정확하게 알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말로만 광복 70주년을 외치고, 일제 잔재 청산을 외친다고 저절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 일제강점기에 수많은 버전들이 있었는데 왜 하필 친일파가 지은 노래를 부르게 되었는지 따져볼 일이다. 특히 반민족 행위자들이 만든 노래를 부르는 건 후손으로서 너무 민망하다. 이미 역사학자들, 심지어 음악전문가들도 친일파가 만든 애국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애국가를 작사·작곡한 것으로 알려진 윤치호와 안익태가 친일 반민족행위자인지 아닌지 먼저 따져본 뒤, 그들이 반민족행위자가 맞다면 애국가에 대한 논의도 새롭게 해야 한다.

태극기의 변천사는?

▶1883년, 주미태극기 현존하는 태극기중 가장 오래됐다.

▶1890년, 데니 태극기 국내 현존 태극기 중 가장 오래됐다.

▶불원복 태극기 조선 말에 활약한 의병장 고광순이 사용한 태극기, '머지않아 국권을 회복한다'는 뜻의 글자가 수놓아져 있다.

▶1923년,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태극기 상해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에 걸렸던 태극기다.

▶1941년, 김구 친필서명 태극기 김구 주석이 이혜련 여사(안창호의 부인)에게 보낸 태극기다. 광복군에 대한 동포들의 지원을 당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한국광복군 서명문 태극기 광복군으로 활동한 문운명(문수열)이 간직한 태극기로 결의를 다지는 글귀와 서명하 빼곡하게 담겨 있다.

▶1950년, 학도병 서명문 태극기 건국법정대학 법률과 학생이 주축이 되어 서명한 태극기로 학도병들의 맹세가 적혀있다.

전 국민 차렷, 경례. 영화속 장면이 정말인가?



국기 게양대에서 국기를 내리는 이 의식은 1978년 10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영화 <국제시장>에서 덕수(황정민 분)와 그의 아내 영재(김윤진 분)가 공원에서 말다툼을 하다 해 질 무렵에 애국가가 흘러나오자 가슴에 손을 얹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장면을 보고 관객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나 1970~90년대엔 애국가가 거리에 울려 퍼지면 다들 가던 길을 멈추고 국기를 향해 가슴에 손을 얹어야 했다.

1971년에는 극장에서 애국가 상영이 의무화 되었다. 우리나라 모든 극장에선 영화 상영전 애국가가 상영되었고 관객들은 일어나서 예를 갖추어야 했다. 이렇게 시작된 강압적인 애국심 고취는 박 정권 말기에 접어들며 극에 달한다. 국기 게양식과 하강식은 1989년 이후 사라졌다. 또 모든 건물에 국기게양대를 설치해야 하는 의무조항도 1999년 폐지됐다. 2007년부터는 "몸과 마음을 바쳐"라는 문구를 "정의와 진실로서"로 바꾼 '국기에 대한 맹세문'이 사용되고 있다. 이마저도 '파쇼의 잔재'라는 지적이 있기도 하다.

[취재/류재영(진양고1)기자, 김동현(영신고1)기자]

지진과 원전, 공포의 9월

공포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정확한 정보와 대비다

유래없이 강한 지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공포를 경험했다. 아마도 경주는 물론 인근 부산, 울산지역은 여전히 그 공포는 진행중일 것이다.

지진이라는 자연재해는 그 자체로도 두려운 존재다. 세계각국에서 있었던 재앙과도 같았던 지진의 모습은 우리에게 공포를 선사하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건물이 무너지고 쓰나미에 모든 것이 사라졌다. 더구나 우리는 5년전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의 충격이 있다. 지진과 함께 경험했던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공포 그 자체였다. 그 역시 진행중이지만 말이다.

지진과 원전사고. 그것은 이웃나라 일본의 얘기인줄만 알았다.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이다. 살기좋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지진은 남의 나라 이야기였다. 대비가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일까? 9.0규모의 동일본 대지진에 2만여명의 인명피해가 있었다. 그러나 2010년 아이티의 7.0 지진에는 무려 30만명이 희생되었고 2004년 인도네시아 9.1 지진에는 50만명 이상이 사망했을거라 추정하고 있다. 우리는 어떤 대비를 하고 있을까? 과연 경주, 아니 또 우리나라 어딘가에서 이런 대지진이 발생한다면 대체 어떻게 될까?

경주지진은 양산단층이 활성단층이라는 것을 입증했다. 또한 그동안 지

진이 없었을 뿐이지 한반도에도 대지진은 역사적으로도 있어 왔다는 것이 알려졌다. 어떤 전문가의 말이 섬뜩하다. “그동안 지진이 없어서 우리나라는 안전하다고 말하지만 안전한 기간은 역으로 말하면 지진의 에너지가 축적되는 기간이다.”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들은 국민을 속여서는 안 된다. 후쿠시마원전사고가 나와 우리나라는 지진에 안전하다고, 큰 지진이 발생할 위험이 없다고 했다. 이런 다른 말을 한다. 활성단층은 맞지만 6.5이상 대지진 가능성은 없다고 말한다. 원전도 규모6.5 이상까지 내진 설계되어 있으니 걱정 하지 말라고 한다. 또 7.0으로 올릴거니까 더 걱정 말라 한다.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원전을 더 짓기 위해 지진 보고서로 조작하고 폐기하는 정부를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당장, 수년 내 더 큰 지진이 없을 수도 있고 원전도 아무 문제없이 잘 돌아 갈 수도 있을 것이다. 당장 또는 수년 내 아니 우리 대에만 다행히 대지진이 비껴가지만 하면 되는 것일까?

일본에서 30만명, 50만명이 희생되지 않는 것은 적어도 그 나라 전체가 알고 대비해 왔기 때문일 것이다. 최악의 상황은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 한반도에 6.5이상의 지진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거짓말이지 않은가? 아무리 큰 지진이 일어나도 원전이 안전하다는 것 역시 거짓

국내 원자력발전소 현황



말이지 않은가? 지금 그 지진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기막힌 논리를 언제까지 믿어 줘야 하는가 말이다.

국민을 속이고 거짓을 말하는 괴물같은 국가권력이 지진이나 원전이 주는 공포보다 더 클 수 있음을 절실히 느끼는 요즘이다.

[필통편집국]

경상도는 옛날부터 지진 위험지대

조선왕조실록 449회 지진 기록 중 영남 145회... 2000년 이후 경남만 44회, 세계 최대 원전 밀집 아이러니



2000년 이후 경남에서 발생한 지진은 모두 44건에 달한다. 이런 가운데 조선시대에는 전체 지진 3건 가운데 1건 꼴로 경남을 비롯한 영남지역에서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이후 통영 해역 '규모 4.0' 최고

9월28일 기상청 지진화산감시센터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경남지역이 진앙인 경우는 모두 44건으로 나타났다. 강도가 가장 컸던 때는 2005년 6월 29일 통영시 매물도 동남동쪽 46km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4.0'이었다. 바다 아닌 내륙 중에서는 2013년 2월 5일 거창군 북북동쪽 11km 지점에서 일어난 '규모 3.5'가 가장 강력했다.

그 외 '규모 3.0 이상'은 다섯 차례 더 있었다. 2002년 1월 7일 밀양시 남남동쪽 10km 지역 '규모 3.1', 2002년 10월 20일 하동군 북북서쪽 16km 지역 '규모 3.0', 2008년 7월 23일 남해군 남남동쪽 41km 해역 '규모 3.2', 2011년 9월 26일 남해군 남동쪽 36km 해역 '규모 3.3', 2012년 11월 22일 진주시 서북서쪽 11km 지역 '규모 3.0'이었다. 가장 최근에

는 올해 8월 30일 합천군 서쪽 13km 지역에서 '규모 2.6'이 발생했다.

전국적으로 보면 2000년 이후 현재까지 발생한 지진은 모두 965회였다. 경주 지진 이전만 놓고 보면 전국적으로 모두 823회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경남은 44회로 비율로 따지면 5.34% 수준이다.

◇조선시대 경상도 지진 발생 비율 '33%'

과거 조선시대에는 경상도 지역에 지진이 집중됐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2001년 <대한지리학회지> 제36권 제2호에 게재된 '조선시대 이래 한반도 지진 발생의 시·공간적 특성(윤순옥·전재범·황상일)'에 담겨 있다. 논문은 조선왕조실록을 바탕으로 조선시대 1392년부터 1893년까지 일어난 지진을 분석했다.

논문에 따르면, 이 기간 지진은 모두 449회 발생했다. 이 가운데 경북 94회(20.9%), 충남 59회(13.1%)에 이어 경남은 51회(11.4%)로 세 번째로 많았다. 논문은 '도별 지진 발생 빈도는 경북-충남-경남-전북의 순으로 나타났고, 영남지방이 전체의 33%를 차지하여 경상 분지에서 지진활동이 가장 활발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실제 '국사편찬위원회-조선왕조실록' 사이트에서 '지진(地震)'으로 검색하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1454년 12월 28일에는 큰 지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기록에는 '경상도 초계(草溪·지금의 합천군)···에 지진이 일어나 담과 가옥이 무너지고 허물어졌으며, 사람이 많이 깔려 죽었으므로, 향과 축문을 내려 해괴제를 행하였다'고 나와 있다.

또한, 1432년 세종은 "지진은 천재지변 중의 큰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지진이 없는 해가 없고, 경상도에 더욱 많다. 지나간 기유년에 지진이 경상도로부터 시작하여 충청·강원·경기의 세 도에 파급하였다"고 말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렇듯 조선시대 때부터 지진 위험지대였던 경상도에 오늘날 '원전'이 밀집해 있는 현실은 이래저래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기사출처/ 경남도민일보]

일본의 경고 “더 강한 지진, 쓰나미도 올 수 있다”

도쿄대 지진학자들 “일본보다 진원·지표거리 가까워 피해는 한국이 더 클 수도”



일본의 대표적 지진 전문가로 알려진 가사하라 준조 도쿄대 명예교수가 9월28일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앞으로 3~4개월을 전후해 경주 지진이 발생한 진원지의 동쪽 방면에서 이번 지진보다 더 강력한 지진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가사하라 교수는 “동일본 대지진 이후 지진 발생 범위가 확산되고 있으며, 한반도 지진도 그 연장선에 있다”며 “과거에도 일본 열도와 한반도가 강진 시기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주고받았고, 지금이 그런 시기로 추정 된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가사하라 교수를 두고 “그는 지난 4월 구마모토 대지진 예측에 성공한 적이 있다”고 소개했다. 이 신문은 “가사하라 교수의 주장은 일본 동쪽에 위치한 태평양판의 북상(北上)을 기온 근거로 한다”며 “태평양판이 연간 평균 10cm씩 북서 방향으로 올라오며 일본 열도와 한반도가 놓여 있는 유라시아판에 부딪치는 바람에 지하에 엄청난 에너지가 축적되며 이 에너지가 광범위한 지역에서 강진을 일으킨다는 설명”이라고 전했다.

2011년 규모 9.0의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뒤 활성 단층에 축적된 응력에 불균형이 생겼고 이 때문에 한반도에서도 예전에 비해 강한 지진이 자주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전문가 지적도 존재하는 상황이다.

가사하라 교수는 “한반도 지진의 특성은 일본 지진보다 진원(지구 내부의 지진 최초 발생 지역)과 지표 거리가 매우 가깝다는 것”이라며 “같은 규모의 지진이라면 피해는 한국이 더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조선일보는 “실제로 일본은 진원 깊이가 보통 80~100km인데 한국은 5~15km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똑같은 진도여도 한국의 피해가 극심할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지난 9월26일 경주에선 정체불명의 가스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연이어 접수됐다.

더 큰 문제는 '쓰나미'(해일)다. 해저지진연구 권위자인 박진오 도쿄대 지진해일연구소 교수는 27일 tbs교토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2011년 동일본 지진 당시 사망원인의 90%가 익사였다”고 강조하며 “인공위성에 따르면 양산단층의 북동쪽은 동해로 향하고 있고 남서쪽으로는 남해안으로 향하고 있다”며 “만약 양산단층의 연장선 해저단층이 남해와 동해에 발달하고 있다면, 그 단층이 움직이게 된다면 쓰나미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쓰나미가 등장하면 해안이 부근에 위치한 핵발전소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 박 교수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데미지를 입었던 이유는 흔들림 때문이 아니라 단지 바닷물 때문이었다. 바닷물이 방파제를 넘어 발전소 안에 들어와서 지하에 있는 전기설비를 잠식해버렸기 때문에 전기가 멈추고 냉각수도 쿨링하는 효과가 다 떨어지며 무너졌다”고 밝혔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은 후쿠시마 제1발전소에 13.1m의 쓰나미를 몰고 와 5.7m 방벽을 넘고 10m암반위에 건설된 후쿠시마 1~4호기를 덮쳤다. 그 사이 비상 디젤발전기 13기중 12기가 침수해 고장 났다. 지진을 견디는 것만큼 쓰나미로 인한 피해에 대처하기 위해 해저단층도 함께 조사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이유다.

박진오 교수는 “활성단층의 길이와 단층의 발달 상황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없이 (한반도에서) 반드시 규모 6.5 이상이 안 일어난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6.5 이상 대지진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기상청의 주장이 비과학적이라는 의미다. 박 교수는 “동일본 대지진 때도 모두 진도 7.0을 예상했지만 9.0이 일어났다. 상상을 초월하는 지진에 대한 대비는 한국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신고리 5·6호기 건설지점에서 5km 떨어진 곳에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 활성단층이 자리 잡고 있는 걸 알면서도 한수원이 원전건설을 강행한 것으로 최근 드러났다. 원전 14기가 몰려있는 경주·부산 원전단지 인접 지역에 2개의 활성단층이 존재한다는 국민안전처 연구보고서가 이미 2012년 정부에 제출됐던 것으로 밝혀져 역시 파문이 일고 있다.

[기사출처/ 미디어 오늘]

[핫플레이스] 진주에서도 클라이밍을 즐기자

경남 최대 규모의 실내 암벽등반장 예티 클라이밍 집을 소개합니다!

클라이밍이라고 들어 보았는가? 최근 들어 가장 핫하고 인기 있는 스포츠, 혹은 레포츠가 바로 스포츠클라이밍이다. 클라이밍은 산악 등지에서 경험할 수 있는 암벽 등반을 인공 시설물을 이용하여 즐기는 스포츠이다. 스포츠클라이밍은 건물 벽면이나 암벽을 연상케 하는 거대한 합판, FRP 등의 구조물에 인공 홀드를 설치해 놓고 손과 발만을 이용해 벽면을 따라 이동하는 스포츠이다.

진주에 이 클라이밍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경남 최대의 실내암벽장이 만들어졌다. 바로 진주 종합경기장내 위치한 '예티 클라이밍 집'이다. 산악인 박정현씨가 직접 설계에도 참여하고 직접 운영을 맡고 있다. 새롭게 시도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청소년들에게도 클라이밍으로 스트레스를 날리고 여유와 휴식을 즐길 문화공간으로 진주의 핫플레이스가 되고 있다.

INTERVIEW 궁금한 몇가지



Q. 예티 클라이밍 집을 소개 하자면?

〈예티 클라이밍 집에서와 만난 박정현 대장〉

A. 이곳은 클라이밍 집과, 갤러리, 카페 등이 어우러져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이에요. 스포츠 클라이밍을 체험하거나 배울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규모 3번째를 자랑하는 실내 암벽장입니다. 예티는 제가 다녀온 히말라야의 전설 속의

설인 이름입니다! 키가 250cm 정도의 거인으로 힘이 굉장히 세고 발자국 크기는 코끼리 발자국만 하죠.

Q. 실내 암벽이 무엇인가요?

A. 자연 암벽을 오르기에는 주말 이외에는 시간이 나지 않고 또, 산에 가려면 멀기도 하니까 이렇게 실내에 인공 암벽 장을 설치해두면서 평소에도 연습을 하고 트레이닝을 할 수 있죠. 또, 바위는 형체가 한 번 붙여 놓으면 옮길 수가 없는데, 이 인공 암벽들은 홀드를 여러 각도로 조절해 가면서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죠. 근데 이게 발전하다 보니까 하나의 스포츠로 자리 잡게 되었어요. 암벽을 오르기 위한 트레이닝에서 경쟁 스포츠 종목이 되고 있죠. 2020년에는 도쿄 올림픽에 정식 종목으로 '스포츠 클라이밍'이라는 이름으로 채택되었습니다.

Q. 스포츠 클라이밍 트레이닝을 하면 어떤 점이 좋나요?

A. 청소년들에게는 분명 집중력하고 성취감을

강화시켜줘요. 그냥 보기엔 단순하게 벽을 올라가는 것 같지만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모두를 다 써야 해요. 볼드링의 어떤 코스 같은 경우 암벽에 칼라가 있잖아요? 그럼 저걸 어떤 방향으로 잡고 어떻게 올라가야 하며, 손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순간 생각하고 판단 해야 되죠. 시선을 멈출 수 없고 체력적으로 건디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오로지 내 힘만으로 말이지. 실제로 경험해 보면 생각보다 훨씬 매력적인 운동입니다.

Q. 클라이밍을 배우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가요?

A. 보통 초급단계의 경우 2개월 정도 교육을 받아야 하구요, 초급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손을 쓰고 발을 쓰는 기술이거든요, 그런 기본을 배운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오히려 애들은 너무 잘해요, 7세 이하의 애들은 잘 할 수

박정현 대장은 어떤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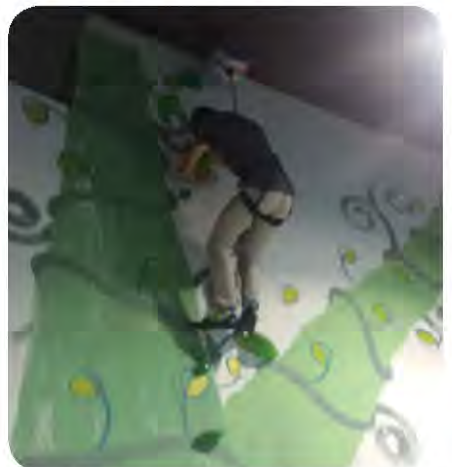


히말라야의 설인이라 불리는 박정현 대장은 8개의 8천m 봉우리를 등정했고 국내 최초 안나푸르나 남벽과 에베레스트 남서벽, K2 남남동릉 등지를 등정한 산악인으로 2005년 출라체 북벽을 알파인 스타일로 동계 초등하고 하산 중 동로 최강식씨를 구조하며 조난당했다. 기적적으로 생존했다. 이후 히말라야 2500km 패러글라이딩 횡단과 무동력 횡단 그리고 다시 카약, 패러, 산악자전거, 스키를 이용해 이상향의 세계 배움을 찾아 6600km를 탐험하는 등 끊임없는 탐험과 도전활동을 해왔으며 진주에 히말라야 갤러리를 오픈하기도 했다.

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처음부터 가진 본성,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오름짓이거든요. 애들은 무조건 보면 어디든 오르잖아요. 애들은 본능적으로 올라요. 어쩌면 우리는 어른이 돼서 다시 배우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처음 인간의 욕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이나 7세나 8세 정도까지는 특별히 교육을 하지 않아요. 그냥 뒹요. 그냥 하나의 놀이로 인간이 가지고 태어난 기본적인 근성을 살려주는 거죠. 교육은 적어도 초등학교의 한 4, 5학년 되었을 때, 그때부터 교육을 한답니다.

이래서 특별해! 예티 클라이밍!!

첫째! 오토빌레이션 시스템



국내 암벽등반장에서는 보기 힘든 시설로 클라이밍 훈련에 도움이 된다. 사람 몸에 기계 장치를 달아서 혼자서도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 다양한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다.

둘째! 수준별 다양한 코스가 마련되어 있다

복층구조 5.8m 높이로 어린이 암벽장과 동굴 코스가 마련돼 있으며 430㎡(130평)규모의 공간이 모두 암벽장으로 구성되었다.

키즈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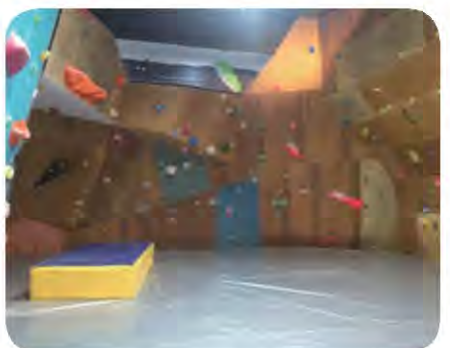
병아리벽-초급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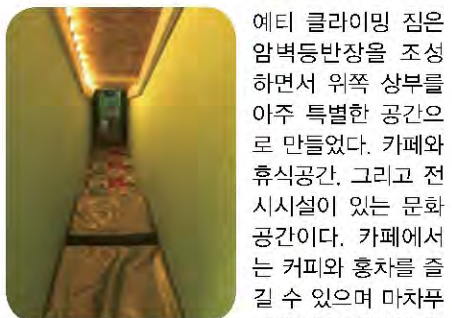
출라체-초급 볼드링



K2, 에베레스트 벽-초중급 볼드링



셋째! 갤러리, 카페 등 복합 문화공간!



치한 안나푸르나 히말에서 남쪽으로 갈라져 나온 산맥의 끝에 위치한 봉우리) 유화가 전시되어 있다. 히말라야 사진과 네팔 희귀한 물건들도 구경할 수 있다는 볼거리가 다양한 곳이다.

필통기자들이 체험에 나섰다



클라이밍 전용 신발을 착용하고 준비운동도 열심히! 좀 긴장 됩니다. 기자들이 모두 처음이라 키드존에서.. 손도 발도 떨리고^^

기자단 체험 후기

"이번에 처음 암벽등반을 해본 것인데 생각보다 재밌었다. 홀드를 잡고 한 발 한 발 올라가는 것이 힘들기도 하고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니 무섭기도 했지만 평소엔 해볼 수 없던 색다른 경험을 한 것 같아 기분이 좋았다. 겁이 많거나 운동을 잘 못한다고 걱정하지 말자! 차근차근 해보면 암벽등반의 색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문여주 기자)

"처음 클라이밍 집을 추천 받고 갔을 때는 흥미가 안 생기고 인기가 있을까 하고 의문이 앞섰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막상 체험을 해보니 벽에 붙어 있는 홀드들을 붙잡고 올라갔다가 높은 곳에서 기계장치를 밟고 뛰어내리는 짜릿함도 있었고 90도가 넘는 경사각을 팔 힘과 발끝으로만 올라가는 것이 너무 신선하고 재밌었다. 취재가 끝난 후에도 전용 신발을 벗지 못하고 몇 번을 계속 올라 보았다. 혁신도시에 올 때면 한 번씩 놀러와도 될 것 같고 수능이 끝난 후에는 배워봐도 좋을 것 같다.(강주현 기자)

예티 클라이밍 집은 회원제로 운영되지만 평일과 토요일에 언제든지 비회원도 이용이 가능하다고 한다.
〈평일 10:00~23:00 주말 10:00~20:00
문의전화 055-746-8848〉

[취재/ 문여주(사대부고2), 강주현(진주교2)기자]

[진주투어] 진주시 영화관을 돌아 보다

멀티플렉스와 독립영화관 진주는 씨네마천국?



롯데시네마 진주점

놀이시설 프리존, 청소년 영화와 함께 놀 공간

진주 롯데시네마는 경남 진주시 진양호로 521에 위치하고 있으며, 버스는 120, 122, 123, 124, 126, 127, 129, 250, 251, 260, 261, 262, 270, 272, 273, 280, 284, 290, 291, 296, 340, 341, 342, 343, 353, 354, 570, 571번을 이용하면 된다. 9관이 있으며, 자리는 총 2020석이다. 팝콘은 오징어 콤보, 나초 콤보, 수퍼콤보, 에이드 콤보 등 여러 콤보 메뉴가 있으며, 어린이와 치즈팝콘을 반씩 섞은 반반팝콘도 인기 있는 메뉴다. 할인

카드로는 LPOINT, 하나머니, My 신한포인트, 현대카드 M포인트, KB포인트, 씨티포인트, OK캐쉬백, T멤버십, KT멤버십, LG U+멤버십 카드가 있다. 시설이 상대적으로 노후화 되어 있고 상영관 자체가 쾌적함이 떨어지는 아쉬움이 있지만 진주 시내에 위치해 접근성이 좋고 프리존이라는 종합 오락 시설이 함께 있어 청소년들에게 영화와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 공간을 함께 제공한다는 점에서 청소년 고객들에게는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메가박스 진주점

가장 접근성이 뛰어난 차없는 거리에 위치

진주 메가박스는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1057, 인디고타워 6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버스는 120, 122, 123, 124, 126, 127, 129, 250, 251, 130, 132, 133, 350, 530, 531번을 이용하면 된다. 6관이 있으며, 자리는 총 900석이다. 상영관 앞에 포스터를 전시하고, 자판기를 설치했다. 팝콘은 메가박스에서만 즐길 수 있는 '메가콤보'가 있다. 가격은 14000원이고 팝콘(소) 두 개, 음료 두 잔, 버터오징어, 나초로 구성되어 있다. 그 외에도 에이드 콤보, 포테이토 콤보, 핫도그 콤보,

즉석구이 콤보 등 많은 콤보메뉴가 있다. 할인카드로는 T멤버십, 현대카드 M포인트, 해피포인트, GS&Point, 올레멤버십, U+멤버십, 오케이캐시백, 현대오일뱅크 카드가 있다. 메가박스는 가장 접근성이 뛰어난 멀티플렉스 상영관이다. 진주시내 차없는거리내에 위치해 있어 청소년들이 찾기가 쉽다. 휴게공간에 간단한 놀이 공간도 마련되어 있어 상영을 기다리는 대기시간에 이용할 수 있다.

진주 멀티플렉스 영화관 비교표

구분	엠비씨네(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롯데몰
위치	경남 진주시 가호로 13 (가좌동, 진주 문화방송 신사옥)	경남 진주시 진양호로521(중안동)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1057인디고타워 6층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440
회사	CJ	롯데	중앙미디어 네트워크	롯데
총 상영관 수	8관	9관	6관	7관
총 좌석 수	1279석	2020석	900석	1268석
최대 상영관	285석	327석	155석	246석
할인 혜택	KB카드, 기업은행, 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LPOINT, 하나머니, My 신한포인트, 현대카드M포인트, KB포인트, 씨티포인트, OK캐쉬백, T멤버십, KT멤버십, LG U+멤버십 카드	T멤버십, 현대카드M포인트, 해피포인트, GS&Point, 올레멤버십, U+멤버십, 오케이캐시백, 현대오일뱅크 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씨티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KB국민카드



엠비씨네 (CGV)

소리로 보는 영화관이라는 수식어, 음향시설 최고

진주 엠비씨네는 경상남도 진주시 가호로 13 (가좌동, 진주 문화방송 신사옥)에 위치하고 있으며 버스는 121, 128,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40, 141, 142, 143, 145, 151, 160, 170, 283, 285, 289, 292, 293, 294, 380, 381(연암공업대 하차), 150(MBC 하차) 총 8관으로 1279석이다. 팝콘은 토로콤보, 콤비콤보, 나초콤보, 에이드콤보, 패밀리콤보가 있다 할인카드로는 KB카드, 기업은행, 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

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등이 있다. 엠비씨네는 개관당시부터 소리로 보는 영화관이라는 수식어를 홍보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도 손꼽히는 음향시설을 자랑했다. 이후에도 좋은 음향시설에 많은 투자를 해 엠비씨네 관계자들은 음향이 중요한 영화는 엠비씨네에서 볼 것을 추천하기도 했다. 위치상 접근성이 떨어지지만 주차시설이 나쁘지 않아 가족단위로 영화보기가 좋은 곳이다.

롯데시네마 진주혁신점

롯데몰 내 위치해 쇼핑, 외식과 함께 즐기는 복합공간

롯데씨네마 진주혁신점은 지난 9월9일 개장한 롯데몰내에 위치한 멀티플렉스 영화관이다.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440, 혁신도시내에 자리하고 있으며, 버스는 152번, 296번, 300번, 301번을 이용하면 된다. 총 7관으로 1268석이다. 새로 오픈한 영화관답게 휴게 공간이 넓고 관람 의자도 편안하다고 한다. 특히 앞좌석 가방걸이, 커피석등이 눈길을 끈다. 팝콘은 에이드콤보, 칠리치즈 나초콤보, 즉석구이

콤보, 즉석핫도그 콤보, 커피 콤보, 맞춤형 스낵 콤보, 더블콤보등을 판매하고 있다. 할인카드로는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씨티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KB국민카드가 있다. 혁신도시내 위치해 접근성면에서 불리하지만 서부 경남 최초의 복합쇼핑문화공간 롯데몰이라는, 장소가 가지는 특징 때문에 영화를 쇼핑과 외식등을 함께 즐기려는 사람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팝콘 안버리기 아이디어]

이런 아이디어는 모든 영화관에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 먹다 남은 팝콘을 대부분 버리는데 영화를 보고 상영관을 나오면 밀봉할 수 있는 종이팩이 준비되어 있어 팝콘을 가져 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봉지에는 잠시 전자렌지에 돌리면 원래 팝콘을 그대로 즐길 수 있다는 안내문구도 적혀 있다.



영화관 상식과 이용 TIP!

1. 어떤 자리가 가장 좋을까?



제일 먼저 우리가 가장 많이 보게 되는 2D영화!! 2D영화를 볼 때는 큰 스크린이 한눈에 들어와야 더욱 집중하고 재미있는 영화 관람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눈에 모두 담기에는 버거운 한 가운데는 피하고 양 사이드 자리에 좌석을 선택하신다면 조금 더 편안한 영화관람이 가능합니다~!

외국영화를 볼 때 가장 중요한 요인! 자막을 보는 것 이죠~(외국어 능통자라면 패스!! ㅎㅎ) 자막이 있는 영화를 관람 할 때 가장 좋은 좌석은 정중앙에서 조금 떨어진 자리가 가장 선명한 자막으로 영화를 관람 할 수 있다는 사실!!

영화에서 소리가 중요한 영화를 관람 할 때! 음악을 소재로한 영화를 관람 할 때는 영화관 내에 사운드를 담당하는 스피커는 정가운데를 기준으로 최적화 되어 있기 때문에 가운데서 약간 떨어진 중간좌

석에서 영화를 관람하면 좋은 사운드와 화질로 관람이 가능합니다~!

3D영화를 관람 할 땐! 앞쪽 가운데 자리를 선택하세요~! 3D영화의 특성상 자막보다는 영상미가 강조되기 때문에 앞쪽 중간자리에서 화면을 조금 위로 올려다 보게 되면 더욱 생생하고 활기찬 화면을 감상하게 된다고 합니다~! 앞자리 일 수록 더욱 진짜 같은 3D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

2. 3D 안경 반납 하지 마세요

이건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실중 하나인데요! 3D영화를 관람하게 되면 상영관 입구에서 나누어주는 3D안경! 영화를 모두 관람하고 퇴출시에 바구니에 담으며 반납을 하고 나오죠! 하지만 아셨나요~? 우리가 지불하는 3D영화 관람액에는 3D안경의 비용이 함께 들어있다는 사실들요!! 3D안경은 반납의 의무가 없는 것!! 이것은 티켓가격에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3D영화를 관람시에는 3D안경은 이제 덕으로 가지고 가셔도 좋습니다~!

4. 의자 팔걸이 난 어느 쪽?

극장이나 공연장에서 항상 고민하게 된다. 양쪽의 의자 팔걸이 중 내 것은 어느 것일까? 먼저 차지한 사람이 임자? 아니면 신경전에서 승리한 사람의 것인가? 팔걸이의 주인은 정해져있다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른손잡이이기 때문에 물건의 이동이 편한 오른쪽 팔걸이가 자신의 것이고, 왼쪽 팔걸이가 옆 사람의 것이랍니다!

진주에는 독립영화 전용관이 있다

경남엔 2곳뿐, 진주시민미디어센터 인디씨네

일반적인 상업적인 영화 외에 진주시에 영화를 볼 수 있는 곳이 또 있다. 바로 진주시민미디어센터의 독립영화관 인디씨네이다. 진주시민미디어센터는 미디어교육, 영상제작과 제작지원, 독립영화 상영 등 여러 미디어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사회적 기업이다. 미디어 센터에는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독립영화를 상영을 한다. 성인 5천원, 청소년 3천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관람할 수 있다. 진주시민미디어센터는 경남 진주시 가좌동 492-8번지 3층에 위치해 있으며 버스를 타고 경상대학교 정류장에서 내려 쉽게 찾아갈 수 있다.

청소년 여러분 인디씨네로 오세요!

"여러 계층을 대상으로 미디어 교육을 하고, 장비나 공간 대여처럼 영상 제작이나 제작지원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주기도 하고 정기적으로 독립영화 상영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CGV나 롯데등에서 상영하지 않는 영화들? 지금은 다양성 영화라고 불려요. 자본이나 특정 목적에서 독립된 영화들. 새로운 시도를 하는 영화들이나 예술성 영화들을 골라서 상영합니다. 매주 금요일 토요일 정기적으로 상영을 하고 있어요.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상영되는 영화가 잘 안내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인디씨네로 오세요." <진주시민미디어센터 조정주 사무국장>



[글로벌 미팅] 경상대학교 베트남 유학생 부이티 푸엥

20살 베트남 유학생이 들려주는 베트남, 한국 그리고 청소년 이야기

바야흐로 글로벌 시대! 그에 발맞춰가기 위해서 필통이 발 벗고 나섰다. 진주지역에도 이제 흔하게 외국인들의 모습을 만날 수 있을 정도로 나라 사이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다. '외국인 탐방', 우리지역에 살고 있는 세계 각국의 외국인들(물론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도 있겠죠^^)을 만나서 한국에서의 생활, 그리고 문화적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물론 해당 나라에 대한 소소한 정보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번호의 외국인은 푸엥이라는 이름의 20살 엇뎀 베트남 유학생이다.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경상대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베트남에서 온 유학생 부이티 푸엥입니다. 나이는 스무살이고 한국에 온 지 5개월 됐어요. 한국말을 잘 못해요^^

(푸엥은 같이 공부하고 있는 한국에 온 지 7개월 된 동갑내기 친구인 부티 반치도 소개를 시켜 주었다.)

Q. 어떻게 한국으로 유학을 오게 된거죠?

A. 일단, 한국을 좋아 했었죠. 한국의 생활, 음식, 문화를 알고 싶었어요. 또 열심히 공부해서

베트남에 돌아가면 통역사를 하고 싶어요.

(반치는 고모가 한국인과 국제결혼을 하게 되어 자연스럽게 한국으로 공부하러 오게 되었다고 한다.)

Q.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 거죠?

A. 경상대학교 국제어학당에서 계속 한국어를 계속 공부합니다. 또 돈도 벌고 한국어도 빨리 배우기 위해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어요. 주로 저녁 타임에 식당에서 서빙을 하는데 힘은 들지만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한국말이 베트남과 어순이 달라 배우기 너무 어려워요.

Q. 베트남에는 동전이 없다고 하는데 왜 그렇죠?

A. 옛날에는 동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폐가 동전보다 더 편리하기도 하고, 동전이 작다보니 아기가 삼킬 위험이 있어서 지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폐에는 여러분들도 알만한 베트남의 국민영웅 호치민씨가 그려져 있어요. 한국과 다르게 모든지폐에 같은 인물이 있답니다.

Q. 한국에서 인상적으로 접했던 것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한국으로 관광 오는 외국인들에게 해인사를 추천하고 싶어요. 해인사에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술인 팔만대장경판이 있어서 정말 멋지거든요. 또, 비빔밥이나 삼겹살을 싸먹는 음식문화도 좋았어요.

Q. 한국 문화 중 신기했거나 적응이 안 되는 문화가 있나요?

A. 한국은 색깔이 뚜렷하고 자랑할 게 많아요. 특히 문화재가 놀랍고 정말 멋졌어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자기 주관이 뚜렷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폐쇄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Q. 베트남과 한국 학생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베트남도 교육열이 뜨겁긴 하지만 공열심히 시키는 한국에 비해 베트남은 공 너무 안 시켜서 교육의 질이 높지 않아요. 서 베트남은 독학하는 경우가 많아요.

Q. 요즘 베트남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직업.

A. 경영인, 의사, 선생님, 가수 등 다양해요. 좁은 경찰, 컴퓨터 관련 직업, 건축가가 인기가 많습니다.

Q. 베트남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은 어떤가요?

A. 네~ 일단 베트남 학생들은 1교시 수업을 너무 일찍 시작하는 거 같아요. 한국 학생들의 경우 1교시라 하면 보통 9시에 시작을 하는데 베트남은 6시 30분 부터 시작을 해요. 날씨 영향이 크죠. 보통 11시 반까지 수업을 들어요. 그리고 나서 남은 시간동안 이것저것 많은 활동도 하고 각자 대학 진학을 위해 공부도 해요. 치안이 별로 좋지 않아서 한국처럼 밤 늦게까지 학교에 남아서 공부하는 건 상상 할 수 없어요.

Q. 베트남은 방학이 더 길다고 들었는데?

A. 한국과 다른점은 베트남은 겨울방학은 짧아요. 2주 정도, 근데 여름방학이 대신 무지 길죠. 3개월이 넘어요. 근데 한국은 학교출석만 하면 졸업을 시켜주잖아요? 베트남은 고등학교도 졸업시험 성적이 나쁘면 졸업장을 주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 10% 정도는 졸업을 못해요.

Q. 베트남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한류스타는?

A. 한국 아이돌 그룹이나 드라마를 많이 좋아 하는 것 같아요. 특이한 건 런닝맨 이광수가 진짜 인기가 높아요. 저번에 총리랑 식사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수 비는 옛날부터 베트남에서는 최고 스타예요.

Q. 베트남에서 한국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많다고?

A. 그건 한국을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죠. 예전 베트남 전쟁때 한국군이 들어 왔잖아요. 당시에 민간인들이 많이 죽었고 그것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사과를 요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한국을 싫어 한다기보다는 과거 역사에 대한 사과를 바라는 거라고 알고 있어요.

Q.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

A. 한국도 전쟁을 치른 나라잖아요. 베트남과 비슷해요. 비슷한 아픔을 가진 공통점이 있는 나라잖아요. 서로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베트남이 못사는 나라라서 그런지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잘 대해주시는 분들이 더 많지만요. 베트남도 한국을 잘 배워서 더 많이 발전하고 한국의 청소년들도 베트남을 많이 찾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푸엥을 통해 들여다 본 베트남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오토바이의 나라



베트남의 정식 명칭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다. 수도는 하노이이고 사회주의 국가로 공용어는 베트남어다. 베트남까지는 비행기로5시간 거리, 시차는 2시간 차이다. 베트남의 아침은 오토바이소리와 함께 시작된다 라는 말처럼 요란한 오토바이의 하노이 시내 광경은 베트남하면 떠오르는 장면중 하나다.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강인 메콩강이 있는 나라. 사회주의 국가인관계로 우리나라와는 뒤늦게 1992년 수교. 베트남전쟁 당시 외화벌이로 미국을 도와 참전한 역사가 있는데 당시 우리 군인들이 베트남 민간인을 죽인 사건으로 우리정부가 사과를 하기도 했다.

쌀의 왕국,
트레이드마크 아오자이



영화등에서 자주 봤던 베트남의 전통의상, 바로 아오자이. 베트남의 트레이드마크다. 험령한 바지와 몸에 꼭 달라붙는 긴 뒷옷이 한 벌인 아오자이. 지금은 여학생들의 교복으로, 결혼식 예복, 공식행사 때 입는 정장으로 즐겨 입는다고 한다.

베트남 사람들은 노래를 좋아한다. 그래서 웬만한 집엔 다 노래방기기가 있다고 한다.

최근에 재미난 뉴스. 베트남은 요즘 인구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난리란다. 옛날 우리처럼 말이다. 피임약을 무료로 나눠주고, 정관수술 하면 장려금도 준다고 한다.

남녀공학, 동학교의 진학율 37%,
고등학교는 28%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은 직장 여성이 많기 때문에 유아원, 유치원 제도가 잘 되어 있다. 베트남의 모든 교육 과정이 남녀 공학이다.그리고 초, 중, 고등학생은 반드시 교복을 입어야 한다. 초등학생은 파란 바지에 흰 와이셔츠, 빨간 머플러를 두른다. 중고등학생 교복은 머플러를 두르지 않고 바지와 흰 셔츠 차림이다. 그러나 여학생들은 고등학생이 되면 베트남 전통 복장인 흰색 아오자이(Ao dai)를 입는다. 특히 흰 아오자이를 입고 자전거로 등교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인상적이다.

선생님들은 원칙적으로 학생 체벌이 금지되어 있다. 학기 시작은 9월초이며, 다음해 1월 중순에 끝난다. 그리고 한 달을 쉬고 음력설 1주 후(2월 중순)에 2학기를 시작한다. 그리고 6월말까지 수업을 하면 1년 과정이 끝난다. 중학교의 진학율은 대략 37%. 고등학교는 28%정도로 추산된다.

베트남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대학 입시가 있다. 대학 입시는 대학별로 실시되며 대개 같은 계열의 대학이 같은 날짜에 시험을 치른다.학생들은 무제한 원서 제출이 가능하며 내신과 본고사의 비율은 50:50 정도이다. 고등학생중 약 30%가 대학에 간다. 베트남 국민들의 교육열은 매우 높으며, 부모들이 사교육비를 부담, 별도 교육을 시키는 경우도 많고, 대학입시 경쟁률도 치열해 고교 졸업반에는 대체로 입시공부에 몰두하고 있다.



[우리선생님] 삼현여고 박형순 국어선생님

“남과 경쟁하기 보다는 스스로 성장하기 위해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INTERVIEW

Q. 교사가 되기로 결심한 계기?

학창시절, 학교에 관해서 친구들 외에는 그렇게 좋은 기억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요 과목인 국영수 보다는 예체능을 잘하는 학생이었고, 선생님들도 저한테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스쳐지나가는 학생..? 그런 학생이었어요. 잘해주시는 선생님도 안 계시고 그러다 뭐 하나 잘못하면 맞을 일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땐 한참 체벌이 강할 때니까요. 그렇게 학창시절을 보내고, 전 재수를 했어요. 재수 끝나고 나한테 맞는 길이 어디일까 생각해보다가 교직 쪽을 생각하게 된 거 같아요. “내가 과거에 좋은 기억보다 안 좋은 기억이 많다면 그 현장에서 좋은 기억을 만들 수 있게 한 번 도전해보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Q. 교사 생활 중 기억에 남는 학생

사실 학생들을 보면서 성적은 크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입 바른 소리 같지만 인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훌륭한 학생이라면 눈여겨볼 때가 많아요. 또 교직에 몸담고 있다 보니까 교직 쪽에 꿈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 특히 교사의 자질을 갖추고 있는 학생들을 보면 더 애착이 가는 것 같아요. 제 어릴적 모습과 비교해 보면 기쁘고 부끄럽기도 해요.

Q. 교사 생활 중 가장 좋은 점과 힘든 점?

좋은 점은 수업이 많지만, 가장 사소하면서도 좋은 것은 인사를 주고받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서로 인사를 하며 좋은 에너지를 주고받거든요. 참 좋아

요. 어쩌면 교사이기 때문에, 교사니까 누릴 수 있는 고마운 점이라고 생각해요.

힘든 점은 아무래도 시간과 체력의 문제인 것 같아요. “교사중에는 열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으면 한 가지만 하는 교사가 있다.” 옛날 어떤 선생님께 들었던 말인데 사실 열 가지를 모두 하지 않아도 교직에 있을 수 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 부어도 교직에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진심 저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고 싶어요. 시간과 체력이 뒷받침이 안 되 물리적 한계에 부딪힐 때 정말 마음이 아파요.

Q. 삼현여고 교사로서 좋은 점?

너무 많죠. 제가 다니는 삼현여고는 장점이 너무 많아서... 사실 단점이 거의 없다고 봐야하죠. 물론 저희 학교가 공부를 백세계(?) 시킨다는 말이 있긴 하지만 학생들이 그만큼 의욕적으로 배우려고 하고 선생님들도 열정적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분위기라서 포기하는 학생들이 없는 것 같아요.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하고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는 학교가 많은데 우리 학교는 그렇지 않아서 좋아요. 무엇보다 최고의 장점은 학생들의 인성이라고 생각해요.

Q. 교사로서 자신만의 교육관? 가치관?

교사가 되는 과정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교사와 학생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도 교사를 선택할 수 없고 교사도 학생을 선택할 수 없는데 서로가 인연이 닿아서 이렇게 사제지간으로 만났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요. 특히나 제가 담임을 맡고 있는 반 아이들 경우엔 정말 얼마나 소중한 인연이예요. 어떻게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전 그런 인연이 된 학생들에게 담임이 대충하면 누구에게는 상처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합니다.

Q. 학생들에게 어떤 교사가 되고 싶은지?

학생들이 학창시절을 돌이켜보았을 때 누구나 “아 맞아, 그 선생님 참 좋았어요.”라고 기억되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Q. 학창시절에 국어공부를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앞에도 말했듯이 학창시절에 국영수를 잘 못해서... 그래도 국어를 그나마 잘하게 된 밑거름이 된 건 독서였던 것 같아요. 제 독서 습관이 됐던 책이라도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보는 그런 스타일이예요. 초등학교 때 부모님이 사주신 책이 정말 유치원생이 읽을 법한 유치한 책인데도 고등학교 때 까지 한 5번을 읽은 것 같아요. 또 기본 개념을 확실히 알고 바로 문제를 풀어보는 공부 방법이 국어교사의 꿈을 이루게 해준 것 같아요.

Q. 인기가 많으시죠? 선생님의 인기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

굳이 말하자면 학생들을 되도록 편견 없이 공평한 시선으로 보려고 하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딱히 학생들을 재는 이렇다. 재는 저렇다 성급히 평가의 잣대를 들이대지 않아요. 또 제 눈엔 아이들의 장점이 더 눈에 차는 것 같아요. 이런 제 마음이 학생들에게도 전달이 되었지 싶습니다. 그래도 잘 해줄 때는 잘 해줄 학생들을 지도할 때는 무지 엄격하게 대한다는 것은 아마 다 알걸요.

Q. 이상형이 있다면?

이상이라는 건 꿈이잖아요. 그래서 눈이 높아야죠.^^ 성격적으로만 말하자면 밝고 애교가 많은, 그리고 무엇보다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 여자면 좋을 것 같아요.

Q.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

제가 몇 년 전부터 성모나 차를 지낼 때 마다 제



간단 Profile

이름: 박형순
담당과목: 국어
생년월일: 1981년 4월 15일
삼현여고 6년차
취미: 각종 구기종목, 시체놀이



'시의 매력을 느껴봐요'

시는 마음이 여러 사람을 대변해주고 마음이 강한 사람도 때때로 잊고 살던 감정을 끌어 내어 공감을 일으킨다. 시는 대중 읽고 그 분위기를 즐기든, 자세히 읽고 분석적으로 접근하든 그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다. 나에겐 10년 간의 타지 생활의 절반이 시와 함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동시간 틈틈이 지하철 속에서 시집을 읽고 그중 맘에 와 닿는 시를 곱씹으며 자연스럽게 시를 전공하게 되었다. 시가 죽었다고 하는 세상에서 더 많은 이들이 시를 즐기게 되길 바라 본다.

주변사람들과 학생들의 행복을 빌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행복하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일을 한다고 해서 사람이 다 행복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비록 차선책을 택하더라도 결국 행복하면 가장 좋은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남과 경쟁하기 보다는 스스로 성장하기 위해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보다 더 성장할 내일의 나를 보기 위해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학생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취재/ 전현주(삼현여고1)기자]



[선배님 반갑습니다] 진주여자고등학교 편

박경리, 이성자, 이우정 자랑스런 진주여고 선배님들을 만나봅니다

우리는 학생이다. 학생은 대부분 학교를 다니고 또 거의 대부분 졸업을 한다. 같은 학교를 졸업하면 동문이 되고 자연스레 선,후배로 불린다. 학년이 우리 사회의 병폐중 하나로 손꼽히지만 무조건 나쁘게 볼 수도 없다. 필통에서는 각 학교의 선배들을 찾아 후배들과 그 인연을 이어보려 한다.

소설가 박경리



(1938-1939)가 이름을 달리하며 민족교육의 산실로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나 일제의 황민화 교육정책(1938-1945)에 의해 일신재단에서 운영하던 여학교는 일제가 강제로 빼앗아 일제의 공립으로 만들어버렸는데 그 학교 이름이 진주공립여자고등보통학교였다. 그러잖아도 일제의 압박에 설움을 담고 허쳐온 교육이었는데 명실공히 일제는 민족교육의 현장을 강탈해버린 것이었다. 그 한많은 시기에 박경리는 진주여고를 다닌 것이다

박경리 작가를 기리는 우리나라 거점은 네 군데다. 원주의 토지문화관, 하동 평사리의 최첨관택, 통영 미륵도의 박경리 기념관, 진주의 진주여고가 그것이다. 진주여고에 시비가 있고 도서관 내에 '박경리 동문 기념문고'가 있다. 학교에서는 매년 교내 백일장으로 '박경리 백일장' 행사를 진행하며 선배인 박경리 작가를 기억하고 있다.

이성자 화백



정을 프랑스 미술계의 흐름 속에 합류시키는 대표작인 본보기가 되었고, 이후 프랑스는 물론 세계전역에 걸쳐 작가로서의 지위를 굳혔다.

한국미술을 세계에 알리는 데 애쓴 한국 서양화가 1세대인 이성자 화백은 1991년 프랑스 예술원으로부터 '예술 및 문화훈장'을, 2002년 프랑스 정부로부터 '예술 및 문학 최고 영예훈장'을 수상했다.

진주일신여자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이성자 화백은 2009년 91세를 일기로 타계하기 전 유화, 수채화, 판화, 소묘, 도자기 등 376점을 진주시에 기증하였고, 그로부터 6년여 만인 2015년 7월 마침내 진주시립 이성자 미술관이 개관하였다. 이성자 화백은 살아 생전에 진주는 자신에게 있어서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이라며 진주를 그리워했다고 한다.

이우정 작가



을 받으면서 작가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나영석 PD와 함께 1박 2일, 꽃할배를 제작하면서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tvN으로 이적하여 다양한 작품을 써내면서 계속해서 화제가 되었다. 무엇보다 tvN의 시청률 역사를 다시 썼다는 복고풍 열풍의 주역이었던 <응답하라 1997> 집필에 참여한 작가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다.

'이우정작가의 필모그래피 살펴보면 <KBS 해피선데이 1박2일>, 2004 <tvN 응답하라 1997>, 2012 <더 로맨틱&아이들>, 2012 <꽃보다 할배 유럽편>, 2013 <응답하라 1994>, 2013 <응답하라 1988>, 2015 등이다. 진정한 '마이다스의 손'은 나영석과 신원호 PD 그 너머에 있는 이우정 작가였을지도 모른다. 선배님의 다음 작품을 기다려보자.

[취재/ 오유진(진주여고1)기자]

[대학생이 말하는 학과이야기] 경상대학교 간호학과를 찾아서

나이트게일을 꿈꾸는 백의의 천사들, 간호학과

남학생들도 관심 높아, 10년 사이 남자 간호사 약 9배 증가

100세 시대 도래와 장기화된 취업난이 맞물려 최근 간호학과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하면 전문직으로 활동할 수 있는데다 병원이나 보건소뿐 아니라 학교나 산업체 등 취업 인프라도 넓기 때문. 이런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간호학과 입시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어릴 적 누구나 한 번 나이트게일의 위인전을 한 번쯤 읽어 봤을텐데요, 그 책을 읽고 백의천사를 꿈꾸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호의 필동 <대학생이 말하는 학과이야기>는 경상대학교 간호학과 2학년에 재학중인 최지영씨를 만나 후배들에 대한 조언을 들어 보았습니다.

* 간호학과에 대하여 소개해 주세요

☞ 간호학과의 전반적인 커리큘럼을 소개해 드리면 1학년 때는 간호학의 전반적인 내용을 추려서 서술한 교과목인 간호학개론을 공부해요. 2학년때부터 4학년때 까지 전공 공부인 해부학, 생리학, 기본간호학, 성인 간호학과 같은 전공공부를 하게 됩니다. 4학년 겨울방학에는 국가고시를 치고 병원으로 취직을 합니다.

* 간호학과 공부량 많다고 하던데 어떤가요?

☞ 확실히 타과에 비해서 배워야 하는 전공들이 많긴 해요. 여러분들이 알고계시는 해부학이나 생리학, 기본간호학 등등 전공수업도 많고 한 과목당 배우는 양도 굉장히 방대하고 수업진도도 빠르게 나가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적응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열심히 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구요. 친구들끼리도 공유하고 함께 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 고등학교 때 미리 공부하면 좋은 과목은?

☞ 아무래도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생물이나 화학 같은 과탐영역은 공부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생1, 생2 내용에서 심화해서 배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물을 공

부하고 오시면 좀 더 수월하게 수업내용을 이해할 수 있고, 편하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화학 같은 경우는 크게 다루진 않지만 1,2학년 때 기본화학과 생화학을 배우기 때문에 화1내 용정도만 공부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 실습경험이 있으세요? 어떤가요?

☞ 3학년 때부터 병원으로 실습을 나가기 때문에 아직 저는 학교 내에 있는 실습관에서 실습을 한 경험밖에 없어요. 실습관에서는 기초적인 것들을 교수님께 배우는데, 협박이나 체온 등을 재는 방법들을 배우고 손 씻기, 체위별 간호 방법, 무균술, 부위별 주사 놓는 방법 등을 배워요. 실습을 할 때 가운도 입고 머리로 단정하게 묶고 실습에 참여하기 때문에 실습을 할 때면 마음가짐이 평소보다 달라져요. 뭔가 진지해지고 나중에 병원으로 실습을 나갔을 때 실수하지 않기 위해 많이 배우려고 노력해요. 실습파트너랑 간호사, 환자역할을 번갈아가면서 실습을 하기 때문에 재밌기도 하고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실습물건들을 보면 신기하기도 하죠.

* '간호학과 같게면 의대가라' 라고들 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아무래도 인식차이 아닐까요? 아직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의사와 간호사에 대한 인식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간호사들이 하는 업무들에 비해 저평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구요. 의사도 간호사도 똑같이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지만 생명을 어떻게 다루냐의 차이거든요. 의사는 환자들을 병을 치료하는 역할이지만, 간호사는 환자들의 병이 나아질 수 있도록 환자 가까이에서 컨디션을 관리하고 전반적인 케어를 하는 역할이거든요. 서로 대신할 수 없는 영역이고 역할이기 때문에 직업에서 느끼는 만족도나 성취감도 다르겠죠? 결국엔 본인이 판단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 간호학과 군기 진짜 심한가요?

☞ 간호학과 군기는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저희 학교도 군기 없이 선후배간에 친하게 지냅니다. 물론 간호사가 되면 행동 하나하나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엄격하게 지내지만 간호학과 군기에 대한 선입견은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 간호학과 진로는 어떤가요?

☞ 병원간호사만 되는 것이 아니라 교직이수를 해서 보건교사가 되는 방법도 있고, 공무원 시험을 쳐서 간호직 공무원이 될 수도 있어요. 또, 보험심사간호사도 있고 다양한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산업간호사도 있습니다. 병원뿐만 아니라 보건소, 요양원 등에도 취직할 수 있어요. 제가 말한 진로 외에도 다양한 진로가 많아요.

* 간호학과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나요?

☞ 음... 주위 간호학과에 진학하고 싶어 했던 친구들이 '간호사가 말하는 간호사'라는 책을 많이 읽었더라고요. 제 생각엔 간호사라는 직업에 종사했거나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경험담이나 후기들이 적혀있는 책들을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 드려요. 아무래도 확실히 간호사가 무엇을 하는 직업이고 어떤 기분들을 느끼는지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을테니까요.

* 간호학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한마디?

☞ 간호사, 간호학과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잖아요. 위에서 질문해 주셨듯이 군기가 심하다더라, 공부량이 엄청 난다고 하더라 등등.. 근데 어느 직업, 또는 학과가 안 힘들고 안 어렵겠어요. 각각의 장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벌써부터 겁먹지 않으셨으면 해요. 저처럼 간호학과를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도 간호학과에 진학해서 잘 적응하며 지내고 있는걸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들을 많이 보면서 자신에게 잘 맞는지 판단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잖아요?



<경상대학교 간호학과 2학년 최지영씨>



www.i

간호학과란?

하지만, 의사와 간호사는 명백히 달라요.



의사는 환자의 전체적인 증상이나 상태를 보고 질병을 진단하고 그 질병에 맞는 치료계획을 세웁니다.

간호사는 환자를 계속 관찰하며 불편하게 느끼는 증상을 찾고, 의사가 처방한 약을 투약하거나 편안한 상태가 되도록 해요.

무엇을 배울까?

그럼, 간호학과에서는 무엇을 배울까요?



1,2학년 때는 대부분 기초해부생리학, 병태생리학, 약리학, 기본간호학 등 본격적으로 전공공부를 시작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과목들을 배웁니다.

무엇을 배울까?

3학년부터는 성인간호학, 모성간호학, 정신간호학, 아동간호학 등 전공을 배우기 시작하는데요. 이 때부터 다른 전공들과 크게 다른 점이 생겨요. 바로 한 학기의 절반 정도는 실습이라는 거죠.



학교마다 차이가 있지만, 저희 학교는 자대병원에서 학기 중에 합니다.

저는 한 학기 중 두 달은 이론을, 두 달은 실습을 했죠.

[취재/ 이소현(경해여고2), 박가을(진주여고2)기자]

주목!

취업 전망 밝은 간호학과 입시 전략

최근 보건계열학과 중 특히 간호학과의 선호도가 급증하고 있다. 전문직으로 높은 취업률과 안정적인 보수가 보장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미래를 생각할 때 보건계열의 직업전망은 밝은 편이며 학생과 학부모 사이의 선호도가 급증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또한 여학생이 다수였던 간호학과에 최근 남학생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이런 추세를 반영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간호학과는 학생부교과전형, 논술전형, 학생부종합전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선발한다. 4년제 대학은 수능최저학력기준이 높고, 전문대학은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없는 다른 학과와 달리 간호학과는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대학들이 많기 때문에 수능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3년제 간호학과 설치대학 중 전공심화과정(3+1년)을 운영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전문대학도 늘어났으니 학위 취득에 관심이 있는 학생은 눈여겨보면 좋다.

1. 높은 경쟁률에 주목해야 한다.

간호학과는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아 타 학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률의 변화가 적으며, 4년제와 2/3년제를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2/3년제 최상위권 간호학과와 4년제 간호학과는 수험생들의 지원이 연동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특히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매우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대학들이 많다. 교육부

의 대입 전형 간소화 정책의 일환으로 점차 적성고사 전형 모집인원 수와 논술 전형 모집인원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 반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하는 대학은 많이 늘어났다.

2. 교차지원 여부에 관심을 갖자.

전통적으로 간호학과는 자연계열 학과로 분류하고 있지만, 일부 학교에서 인문계열 모집단위를 분리하여 따로 모집하며, 일부 학교는 교차지원을 허용하여 통합 모집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간호학과가 경쟁률이 대부분 높다. 상위권 대학의 경우 모집인원 자체를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을 분리하여 배당해 놓았다. 논술시험도 자연계열 응시자는 자연계열 논술시험을 인문계열 응시자는 인문계열에 해당하는 논술시험을 응시해야 한다.

3. 부속 병원을 운영하는 대학에 주목하자.

대부분의 간호학과 개설 대학은 자체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간호학과 졸업 후에 취업이나 진로 측면에서 부속병원이 있는 대학이 유리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기 때문에 지방에 소재하면서 수도권에 대학병원이 있는 대학을 졸업 후의 취업을 염두에 두고 적극적으로 공략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CHA의과대(차병원), 가천대(길병원), 인제대(백병원), 순천향대(순천향대병원), 을지대(을지병원), 울산대(아산병원-협력병원), 한림대(한림성심병원) 등은 수도권에 종합병원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선호도도 높은 편이다. 지방소재 대학 중에서 병상수가 500개 이상의 종합병원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의 경우 졸업 후

소속 대학병원으로의 취업이 유리한 경우가 많다. 동아대, 계명대, 경상대, 영남대, 원광대, 대구가톨릭대 등이 있다.

4. 교직과정 개설 여부도 주목하자.

2009학년도부터 고등학교 1학년에서 보건교육이 의무화되었으며, 2010년부터는 교양선택 과목으로 분류되어 보건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를 두는 보건교사제가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지원 희망대학 간호학과에 교직과정이 개설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연세대, 한양대, 성신여대 등은 교직과정이 개설 운영되고 있다.

5. 수능최저학력기준 높은 학생부 교과성적을 고려하자.

대부분의 대학에서 간호학과 지원 가능 점수는 동일대학의 다른 학과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크게 나누어 학생부교과전형과 학생부에 논술이나 면접, 적성고사 등 대학별고사가 함께 반영되는 전형으로 나눌 수 있다. 학생부 위주 전형 중 학생부교과로 선발하는 인원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에 교과성적 우수자들은 지원에 참고하길 바라며 대부분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충족여부도 고려해야한다. 지난해 학생부 교과전형의 합격자들은 대부분의 대학에서 학생부 평균 1.5등급 이내인 경우가 많고 이에 비해 논술이나 면접, 적성고사 등 대학별고사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2등급에서 3등급 정도의 평균 성적을 나타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많은 전문대에서는 학사심화과정이 개설되어있기 때문에 간호학과를 지망하는 학생들은 4년제 대학 뿐만 아니라 전문대 간호학과도 함께 지원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선생님! 연세가 99세이신가요?

교사들의 학교내 흡연, 신중한 고민이 필요한 때다

청소년문제를 이야기할 때 늘 논란거리가 되곤 하는 것이 흡연이다. 담배 자체가 성장기 청소년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보니 우리 사회에서는 누구나 학생들의 흡연을 막으려 애를 쓴다. 더구나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흡연을 막는 것이 공부시키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호기심 많은 청소년기, 갈등과 고민이 쌓인 시기인 만큼 흡연의 유혹 또한 만만치 않다.

다행히 흡연율은 줄고 있다. 성인남성 흡연율은 39.3%로 2014년 대비 3.8%p 감소한 수치로, 공식 통계가 산출되기 시작한 이래 최초로 30%대로 진입했다. 성인 여성의 흡연율은 전년 5.7%보다 0.2%p포인트 줄어드는데 그친 5.5%로 추정 된다. 청소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2015년 중고등학교 청소년 중 흡연하는 남학생은 10명중 1명(11.9%)이며, 전년 대비 2.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은 3.2%가 흡연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0.8%p가 감소하였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여전히 담배를 피는 어른들과 청소년들은 있다. 학교에서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학생들이 담배를 피면 어떻게 되는가? 당연히 불법이기 때문에 철저한 제재와 그에 따른 처벌이 뒤따른다. 그러나, 교사들은 어떠한가? 만 19세가 지났기 때문에 담배를 피워도 문제 될 것이 없다. 그렇다면 학교내에서 교사들은 담배를 피워도 되는 것일까?

국민건강증진법규칙개정령에 의거 금연시설로 지정된 장소는 흡연이 불가능하다. 학교의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금연구역으로 전 학교건물이 이에 해당된다. 즉, 학교의 모든 건물 내부는 금연구역이며 별도로 교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에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단, 흡연이 가능한 곳은 공기가 순환이 되는 옥상, 옥외계단, 운동장뿐이다.

D고등학교에는 2층에 남자 교사휴게실이 있다. 그 곳에서 주로 남자 교사들이 담배를 피운다고 알려져 있다. 그래서 남자 교사휴게실을 지날 때면 학

생들은 담배 냄새를 맡게 된다고 한다. 창문이라도 열린 경우엔 담배 냄새가 여러 교실에 퍼지기도 한다. 담배를 핀 교사가 바로 수업을 위해 교실로 들어가는 경우엔 많은 학생들이 담배냄새 때문에 불쾌함을 느끼기도 했다고 한다. D고 이외에도 진주시의 몇몇 고등학교에서는 교사들이 학교내에서 공공연하게 흡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학교에서 교사들이 흡연을 하게 되면 학생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직접적인 담배 냄새의 불쾌함도 있겠지만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위험도 존재한다. 그러나 그것보다 학교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청소년들의 흡연을 강력히 막으면서도 정작 그것을 교육하는 교사가 교내에서 담배를 피는 모습이 학생들에게 과연 어떻게 비춰질까 하는 문제가 있다.

물론 교사들의 고충도 헤아릴 필요가 있다. 교사 또한 정당한 흡연권을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흡연이 사람에게 해롭다는 것은 사실이다. 더군



나 청소년기에는 더욱 그러함은 명백하다. 그래서 호기심에서든, 친구와 어울려서든, 반항심에서든 이유가 그 무엇이더라도 청소년기엔 담배를 못 피우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 아닌가? 그것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곳이 바로 학교다. 그러한 학교에서의 교사로서의 흡연은 개인의 흡연권을 넘어 좀 더 큰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 진다.

그 어떤 설득력 있는 말보다, 그 어떤 충격적인 금연 광고보다 학교에선 교사의 모습이 학생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 교사들 스스로 교내흡연에 대한 신중함이 필요한 때다.

[취재/ 정창민(진주동명고2)기자]

창의적 체험활동! 창의적 자습활동인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이 되어야...

“늘 비슷하고 이미 알고 있는 내용으로 형식적이예요. 일방적인 정보전달에만 치우쳐 있고...” 사대 부고의 한 학생의 말이다. 학교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는 이름으로 정규 교과 수업이 아닌 여러 활동을 하는 시간을 편성하고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르면,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의 4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창의적 체험 활동은 생활 기록부에도 기재되기 때문에 대학 입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당연히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의 경우 학교에서 학기별로 시간을 지정해 필수적으로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규일과 중에 활동을 위한 시간을 제공한다.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은 매주 시간표에 배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동아리나 봉사활동 시간이 잡혀 있지 않은 시간은 자연스럽게 비는 시간이 된다. 이럴 때 학교에선 자율활동과 진로활동이라는 이름

으로 여러 교육을 한다. 성폭력 예방교육, 흡연/음주 예방 교육,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등의 보건 교육이나 진로관련 교육이 내용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런 교육활동 시간에 불편한 진실이 있다. 비는 시간마다 외부 강사를 초청하거나 차별화 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부분 학교 자체적으로 교육을 할 수밖에 없고 강의의 질은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된다. 당연한 듯 동영상 시청과 인쇄물을 내 주는 것이 교육의 전부 일 때도 있다. 강의의 내용은 초등학교 중학교를 거치며 이미 반복해서 배운 것들이거나 늘 비슷한 내용의 자료들이 대부분이다. 학생들이 흥미를 가진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하다고 봐야 할 정도다. 그저 멍하니 시간을 보내거나 몇몇 학생들은 교과공부를 보충하는 시간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교육활동마저 없을 땐 그냥 자습을 하거나 학

생들 각자가 부족한 교과과목을 보충하는 시간으로 채워진다. 교과부에 따르면 ‘창의적 체험활동은 제7차 교육과정과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재량 활동 중 창의적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합한 교과 외 활동이며,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개인의 소질과 잠재력을 개발·신장하고, 자율적인 생활 자세와 타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세계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공동체 의식과 다양하고 수준 높은 자질 함양을 지향하는 교육과정이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현재 학교현장의 모습은 과연 이러한 도입취지에 알맞은 풍경일까?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는 커리큘럼에 따라 운영되는 전문적이고 질 높은 교육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부족한 교과를 보충하는 시간은 더욱더 아니다. 학교에서 늘상 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이라도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소통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고민한다면 같은 주제라도 학생들이 느끼는 차이는 분명히 클 것이다. 시간표에

자습활동			
과목	자습	적응	행사
19	국어(17월~18월)	영어(15월~16월)	특수목적활동(18월~19월)
20			영어(17월~18월)
21	학교폭력예방교육(19월~20월)		특수목적활동(18월~19월)
22	학교폭력예방교육(19월~20월)		특수목적활동(18월~19월)
23	영어(17월~18월)	영어(15월~16월)	특수목적활동(18월~19월)
24			특수목적활동(18월~19월)
25			특수목적활동(18월~19월)
26			특수목적활동(18월~19월)
27			특수목적활동(18월~19월)
28			특수목적활동(18월~19월)
29			특수목적활동(18월~19월)
30			특수목적활동(18월~19월)
31			특수목적활동(18월~19월)
32			특수목적활동(18월~19월)
33			특수목적활동(18월~19월)
34			특수목적활동(18월~19월)
35			특수목적활동(18월~19월)
36			특수목적활동(18월~19월)
37			특수목적활동(18월~19월)
38			특수목적활동(18월~19월)
39			특수목적활동(18월~19월)
40			특수목적활동(18월~19월)

만 있는 유령같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이 아닌 진정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취재/ 하준승(명신고2)기자]

오빠면 관참아요! 자숙하고 복귀하면 그만

사회적 물의 일으킨 연예인 방송복귀 너무 쉽다

술을 마신 뒤 외제 승용차로 서울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직후 차를 타고 자리를 떴다가 11시간 뒤 경찰에 잡힌 출세했다. 조사결과 사고 당일 오후 8시부터 11시까지 3시간 동안 한 식당에서 지인 2명과 함께 소주 3병을 나눠마셨다고 진술했고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57%로 산출됐다.

잘 나가던 몇몇 연예인들이 동시에 스포츠 경기에 거액을 베풀하는 이른바 ‘맛대기 도박’ 혐의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동료 3명과 함께 대마초 5g을 나눠 피운 혐의로 경찰수사가 시작되자 미국으로 도피했지만 1월 입국하면서 달미를 잡혔다. “예전부터 대마초에 대한 공공증을 가지고 있었다.”라며 “처벌을 각오하고 경험한 것”이라고 털어놨다.

나열한 사건들은 모두 유명 아이돌 멤버 혹은 랍퍼가 저지른 범죄들이다. 대중의 인기와 사랑을 먹고 사는 연예인들이기에 그들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건이나 범죄들에 사람들은 큰 배신감을 느끼고 비난을 쏟아붓는다.

그럼에도 연예인들의 범치는 오히려 다양해지고 최근들어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다른 원인도 있겠지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불법을 저지른 연예인에 대한 방송사들의 태도가 가장 큰 문제다. 송방망이 징계도 문제지만 공정한 기준과 원칙 없이 문제 연예인들의 방송 복귀가 너무나 쉽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연예인들은 자숙이라는 미명하에 잠깐 방송활동을 중단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양한 방법으로 너무나 쉽게 방송에 복귀한다. 특히 이전과 달리 웹, 케이블, 종편 등 연예인들이 활동할 채널이 많아지면서 범법 연예인들의 방송 복귀가 매우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웹드라마

나 웹예능 등 상대적으로 비난을 덜 받을 매체로 복귀한 뒤 케이블과 종편에 얼굴을 내밀고 곧바로 지상파TV에 출연을 재개한다. 출연 금지 제도가 있지만 문제 연예인의 방송 복귀에 대한 기준과 원칙이 명확하지 않아 연예인과 연예소속사 마케팅과 로비로 방송 재개가 손쉽게 이루어진다.

또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임에도 방송사가 시청률 등의 이유로 방송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무책임한 태도 또한 범법연예인을 양산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개그맨 장동민은 인터넷 방송에서 여성과 삼풍백화점 피해자들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과 욕설로 큰 논란을 일으켰지만 하차 없이 당당하게 방송에 출연했다. 또한 최근 tvN ‘코미디 빅리그’에서 한 부모 가정 아동 비하 등으로 또 한번 물의를 일으켰지만 방송사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연예인들 사이에 걸리면 좀 쉬다가 복귀하면 그만이라는 안일함이 팽배하고, 불법이나 범죄앞에 공인이라는 책임감이 사라진다면 대중은 더 이상 그들을 볼 이유가 없다. 내가 좋아하는 스타고,



오빠라는 이유가 그들에게 면죄부가 되어선 안 될 것이다. 범법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들의 방송출연 금지와 복귀에 대한 공정한 원칙 마련과 강력한 징계 도입으로 연예인들과 팬들의 의식전환이 필요한 때다.

“사람들이 연예인에게 더 엄격한 잣대를 대는 것은 가혹하지만 대중의 관심으로 수입을 올리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들에 대한 비판 역시 합당하다. 대중의 사랑과 인기 돈은 잠시 빌리는 것일 뿐 스타의 것이 아니다. 연예인의 존재 기반인 대중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마약, 도박 등 대중의 마음을 거스르는 일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배우 차인표가 한 말이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 따져보아야 한다.

[취재/전혜원(진주여고2)기자]

이름	사과내역	복귀 프로그램	복귀까지 걸린 시간
장근석	세금탈세	Mnet '프로듀스 101'	2년
최민수	폭행	SBS '영주'	6개월
송해교	세금탈세	KBS2 '태양의 후예'	1년 4개월
탁재훈	불법도박	Mnet '음악의 신2'	2년 3개월
신동엽	대마초	MBC '일밤-러브하우스'	11개월
강호동	세금탈세	KBS2 '달빛 프린스'	1년 4개월
이수근	불법도박	tvN 'SNL 코리아'	1년 6개월
장동민	막말논란	없음	없음
김용만	불법도박	Olvn '술모이는 남자들'	2년 7개월
노홍철	음주운전	MBC '임여들의 히치하이킹'	10개월

[동아리 탐방] 진주중앙고 방송부 CBS

학생들의 눈과 귀가 되는 방송부 한마루 학예제를 기대하시라



어느 학교에나 있지만 이곳은 늘 특별하다! 방송에 관심 있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들어가고 싶어하는 곳이다. 진주 중앙고 학생들의 눈과 귀를 담당하고 있는 방송부 CBS, 어디서 여진구 어퍼컷 치는 목소리가 들린다. 중앙고 2학년 김준호 방송부 부장을 만나보았다.

Q. 간단하게 동아리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학생들의 눈과 귀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고 방송부 CBS입니다.

CBS는 Center Broadcast System의 약자로 중앙고의 학생들에게 정보를 신속하게 널리 알리는 시스템이라는 뜻입니다.

Q. 매년 신입 방송부원을 뽑는데 선발기준이 따로 있나요?

신입 방송부원들은 이름 엄격한 면접을 통해 선발하는데요.^^ 아나운서, PD, 엔지니어 이렇게 3분야로 나뉘서 면접을 실시합니다. 선발기준은 방송에 대한 열정과 신입 방송 부원으로써의 패기, 그리고 친화력 등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진로가

방송관련인 학생을 위주로 뽑게 되는 것 같아요.

Q. 방송부는 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되나요?

저희 방송부는 우선 학교의 교내외 행사가 있을 때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방송장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정서함양을 위해 점심시간 교내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행사나 강의가 있을 때 학생들의 모습을 카메라로 찍어 그 사진으로 졸업영상을 만들고 졸업사진도 제작합니다. 이 외에도 아침조례방송이나 회장선거, 장비점검, 합창대회나 축제MC 등의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Q. 축제 때 방송부가 주관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중앙 방송부만의 특별함이 있다면 바로 축제 때 저희가 직접 프로그램을 진행 하는 것인데요. '워드송' 이라고 방송부가 직접 참가자들을 모집하고 진행하며 총괄합니다. 춤과 노래 등 학생들의 장기를 발휘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선생님들의 직접적인 관여가 없지만 너무 선정적인 것은 제한을 두는 편입니다.

Q. 방송부 활동 중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이번 체육대회 때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춤을 추는데 음악을 내 보내야 했는데 사고가 났죠. 15분 정도 음악이 나오지 않아 학생들이 불만이 컸고 방송부들은 진땀을 흘렸습니다. 담당 선생님께 혼이 나기도 했지만 이 계기로 방송장비는 미리 점검하는 좋은 습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Q.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보람찼던 일이 있었다면 무엇인가요?

그래도 축제 때가 가장 보람 있어요. 방송장비 설치 등 힘든 일이 많은데 축제를 즐기며 즐겁게 웃는 학생들의 표정을 보면 너무 뿌듯하고 보람찹니다.

다.

Q. 마지막으로 방송부 부장으로서 부원에게 하고 싶은 말은?

"못난 부장 잘 따라와 줘서 고맙고, 겉으로 툴툴거리지만 속은 안 그런거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 남은 행사 문제없이 잘 마쳤으면 좋겠다. 항상 고마워♥"

[취재/ 양하영(중앙고1), 강영채(진주제일여고1)기자]

[현장포커스] 카메라에 비친 세상

위험한 등굣길은 20년이 지나도 똑같은 풍경

우리나라만큼 짓고 부수고 만드는 것 좋아하는 나라가 흔치 않다. 건물 짓고 다리 만들고 터널 뚫고 그 기술도 세계정상급이다. 10가구도 안되는 마을을 위해 넓고 큰 다리를 새로 놓기 일쑤고 지리산 산골짜기까지 도로포장, 확장 공사가 일상이 된지 오래다. 그런데 참 이상하다. 매일 우리의 아이들 2000

여명이 등교와 하교를 반복하는 이 위험한 학교 앞 진입로들은 이십년이 넘게 그대로다. 아마도 청소년이 선거권을 가지는 날쯤에나 아니면 끔찍한 사고로 꽃잎같은 생명을 잃은 후에나 수십년 그대로인 이 위험한 길에 관심을 가지려나 모르겠다.



공사가 중단되면 우리들의 안전도 중단되는건 아닌지?

일핏 보면 평범한 공사장이다. 해대동 선학아파트 사거리다. 제일여고, 중앙고 학생들이 날마다 보는 풍경이고 동명고 명신고 학생들도 버스 창밖으로 자주 마주치는 모습이다. 선학아파트 재건축 공사장이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2월에 이 곳엔 새 아파트가 들어서 있어야 했다. 2014년 10월에 시작한 공사는 2016년 2월에 끝날 것으로 예정돼 있었지만, 아직도 공사 시작전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

이 방치되어 있다. 공사를 멈춘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건설사의 부도라는 소문이다. 공사 중단과 함께 공사장의 대형 크레인도 멈춰 섰고 사진과 같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많은 학생들의 통학로이고 최근에 있었던 지진을 생각하면 높이 솟아 있는 크레인은 상당히 위험해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든다. 누군가 공사장과 크레인의 안전을 생각하고는 있을까? 하고 말이다.



[취재/송문교(진주고1),강승훈(중앙고2)기자]

사단법인 청소년문화공동체 필통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필통은 청소년들에게 공익적 가치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필통은 청소년문제를 극복하고 대안을 만들어 갑니다.
필통은 청소년의 권리를 증진하고 행복의 가치를 나눕니다.

[후원신청방법]

필통 홈페이지 www.ifeelong.org 에서 접수해 주시거나
전화로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화 : 070-8628-1318

CMS 후원계좌 : 경남은행 516-07-0197887(예금주/사단법인 청소년문화공동체필통)

필통은 청소년의 또다른 이름입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 청소년은 감시의 대상?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 폐지 해야 한다

요즘 청소년들과 스마트폰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카카오톡, 페이스북과 같은 SNS는 일상이 된 지 오래다. 아마도 스마트폰에 자신의 모든 정보가 다 들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이런 자신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누군가가 모두 들여다보고 감시하고 있다면 어떨겠는가? 바로 현재 진행 중인 우리들의 일이다.

지나해 4월16일부터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에서는 이동통신사가 청소년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청소년 유해매체물 및 음란정보에 대한 차단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동통신사가 차단 수단의 종류와 내용 등을 고지하고 차단 수단을 설치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계약 체결 후에는 차단 수단이 삭제되거나 15일 이상 작동하지 아니할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차단 수단이라 칭하는 것은 스마트폰 앱을 말하며 현재 '청소년유해차단', '올레자녀폰 안심' 등 현재 총 19개의 앱이 유통되고 있다.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자는 법의 취지는 좋지만,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높을 수밖에 없다. 과연 나이가 어리다고 청소년들의 스마트폰은 감시당해도 되는 것일까? 이렇듯 청소년들에 대한 일상적인 인권침해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동통신사는 청소년이 스마트폰으로 어떤 정보를 검색하고 접근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차단 수단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청소년의 스마트폰을 항상 감시해야만 한다.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차단 앱 중 대다수는 유해정보 차단을 넘어 스마트폰 사용 모니터링, 위치 조회 등 청소년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기능들을 갖추고 있다.

현행법상 아직 성년이 되지 않은 청소년들은 유해정보 차단 앱을 무조건 설치하고, 모니터링의 대상이 돼야 한다. 이것이 일명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이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8월30일 청소년과 청소년의 부모를 대리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청소년과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보관, 이용하

기 때문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도 침해한다."며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이렇게까지 청소년들을 억압하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은 분명 인권침해이고 불법이다. 법이 청소년을 유해정보로부터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청소년의 사생활을 무시하고 철저한 감시의 틀에 가둔 것이다. 그러나 단지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받고 감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분명 스마트폰의 무분별한 사용은 문제다.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현상이 증가하고 유해환경에 노출될 위험도 높은 것 역시 요즘의 현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나서서 청소년들의 일상을 억압과 강제, 그리고 감시하는 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는 일이다.

청소년들은 나라의 미래라고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억압과 감시속에 자라길 바라지는 않을 것이다. 법과 국가권력으로 해야 할 일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일들이 있을 것이다. 급격하게 우리 사회의 일부가 되어버린 스마트폰에 대해 청소년들 역시 자신들의 문화를 만들어 갈 시간이 필요하다. 교육도 하고 스스로 학교내 규칙도 만들고 토론도 하며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상에서의 스마트폰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

법으로 국가가 청소년들이라는 이유로 금지시키고, 강제시키고, 감시해서 해결될 일이 아닐 것이다. 하루빨리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이 폐지되길 바란다.

[취재/ 김동현(명신고2)기자]

길 걸으면 무단횡단 차 타면 안전벨트 안 해!

당신의 나쁜 습관이 사고를 예약해 둔다

인간에게 있어서 자동차는 이제 없어서는 안 될 생활의 일부가 된 지 오래다. 그러나 인간 문명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 할 수 있는 불도 잘 다루지 못하면 큰 위험이 닥치듯 자동차 역시 언제든지 순간적으로 인간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무기가 될 수 있다. 교통사고는 생명과 직결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고라도 그 후유증이 심해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하지만 운전자와 보행자들의 사소한 습관들이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을 예약해 두곤 한다.

무단횡단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유치원에 다닐 때부터 초록불이 되면 좌우를 살피고 차가 지나가지 않을 때 횡단보도를 건너야 한다고 지겹도록 배워왔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바쁘다는 핑계로, 귀찮다는 이유로, 더 걷는 것이 싫어 아무렇지 않게 무단횡단을 한다. 심지어 아이 손을 잡고 자동차들이 질주하는 도로를 묘기 부리듯 건너는 어른들을 목격하는 것도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평소 승용차로 출퇴근을 하는 정모씨는 "대학

교 주변을 지나가면 젊은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길을 건너는 경우가 많아요. 학생들은 차가 오지 않는 타이밍을 보고 길을 횡단한다고 하지만 자동차들은 보행자들의 생각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가슴이 철렁할 때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라고 걱정스럽게 말한다. 실제로, 2014년 전국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사망자가 5705명 중 보행 중 사망자가 무려 2182명(38.3%)에 달한다고 한다. 말할 것도 없이 그 주된 원인으로 무단횡단이 손꼽힌다.

보행자가 아닌 운전자가 되면 어떨까? 무단횡단만큼이나 운전자가 무의식적으로 자신과 주변이 위험에 빠뜨리는 습관이 있다. 바로 안전벨트 미착용이다. 안전벨트는 생명벨트라 할 정도로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와 탑승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실제로 5대의 버스가 중학생을 태우고 수학여행을 가던 중 9중 추돌사고가 났지만 큰 부상과 목숨까지 잃은 다른 차들과는 달리 버스에 타고 있었던 학생들은 경미한 부상뿐이었다고 한다.

출발 전 학생들에게 안전벨트를 꼭 매게 한 선생님들의 지도 때문에 큰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것이다.

무엇보다 안전띠를 습관처럼 착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다행히 우리나라 평균 안전띠 착용률은 2012년 69%, 2013년 70%, 2014년 78%, 2015년에는 79%로 매년 소폭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먼 거리를 주행하는 고속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79.9%로 확인되고 있지만 운전자만 있는 경우에는 91%, 조수석에도 탑승자가 있는 경우에는 83%, 뒷좌석에도 탑승자가 있는 경우에는 28%까지 급락하는 현상을 보여 걱정스러운 결과를 보였다.

대부분 사람들은 '나에게는 그런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거야.'라는 생각으로 귀찮다며 안전벨트를 찾으려 하지도 않는 경우도 많다. 특히 운전석이나 조수석에서는 벨트를 착용하던 이들도 승용차 뒷좌석이나 버스 좌석에서는 안전벨트를 잊은 듯 찾지 않는다. 실제로 자동



차나 버스를 살펴보면 통계자료처럼 벨트를 매고 있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다.

누구나 보행자가 되기도 하고 또 운전자나 탑승자의 위치가 되기도 한다. 길을 걷는 보행자일 땐 무단횡단을 하고 탑승자가 되면 안전벨트를 나 몰라라 하는 사람, 여러분은 어떠한가? 교통사고는 여러 사람들과 그 가족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사고는 순간이다. 우리의 사소한 습관들이 나 자신뿐 아니라 가족들과 주위 사람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킨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이제 습관을 갖자. 보행자일 땐 횡단보도, 탑승자일 땐 안전벨트. 이렇게 지키기 쉬운 습관으로 적어도 교통사고로부터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확실히 지킬 수 있으니 말이다.

[취재/ 문여주 (사대부고 2)기자]

가방에 돌덩이를 넣고 다니니?

척추측만증 환자 중 10대 청소년 비율이 46.5%

아침이면 학교에는 무거운 가방을 멘 학생들이 지친 발걸음으로 모여든다. 2학기의 시작으로 무더운 여름이 끝났다 싶더니 선선한 가을바람과 함께 시험기간에 접어들어선인지 학생들의 가방은 더욱 무겁게만 느껴진다. 대한민국 학생이라면 어김없이 메고 다니는 가방. 큼지막히 등판을 다 가리는 그 무거워 보이는 가방이 우리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진주여고에 재학중인 도 모양은 "시험기간이 아니더라도.. 평소 실력은 잘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습과 복습을 위해서 교과서를 넣고 다니고, 학원까지 다니다보니 학원교재에.. 언제 올지 모르는 비 때문에 우산까지 들고 다니니깐 가방이 너무 무거워요."라며 힘겹게 가방을 들어 보였다. 친구인 최모양도 "엄마가 등교하는데... 가방에 돌덩이를 넣고 다니냐며, 뭘 그렇게 무겁게 하고 다니냐고 하더라고요."라며 무거워지기만 하는 가방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무거운 가방의 행렬은 아침 등굣길이면 언제든 만날 수 있다.

어른들이 우리에게 '가방에 돌덩이를 넣고 다니니?'라고 할 정도로 무거운 가방은 청소년들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 바로 척추 측만증 유발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5년 간 전체 척추측만증 환자 가운데 10대 청소년의 척추측만증 비율은 46.5%이었다"는 놀라운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척추측만증은 척추가 일자로 곧게 뻗어 있지 않고 옆으로 휘어져 C자형이나 S자형으로 변형된 상태를 말한다. 이 척추질환은 성장에 장애를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2차적인 내과질환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재활의학과, 통증의학과에서는 '허리가 휘어진 학생은 의자에 조금만 앉아있어도 허리에 통증이 느껴져 학업에 집중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또한 성장에 장애를 줄 수도 있고, 요통 등 만성통증을 유발하거나, 위장에도 영향을 끼쳐 소화 불량도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한다.

물론 이런 척추측만증이 무거운 가방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학생들은 집 밖을 나서는 순간부터 가방과 늘 동행한다. 초등학교 입학 후 10년 넘게 책가방을 멘다. 어쩌면 가방을 어떻게 들고 메느냐가 몸 건강과 직결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인지 모른다. 사소해 보이는 자세 하나가 청소년들의 성장을 방해하고 체형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가방이 무거울수록 우리의 몸은 균형을 잡기위해서 몸의 앞쪽에 힘을 더 심게 되기 때문에 허리와 골반 등에 체형 불균형이 생길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더군다나 척추측만증은 초기에 발견되기 어렵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사를 받거나, 걸을 때 몸을 뒤뚱거리거나 책가방을 짤때 어깨 줄이 비대칭이면 척추측만증을 의심해 보고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 봐야 된다고 한다.



그리고 평소 가방의 무게는 체중의 10~15%가 넘지 않도록 하고, 가방을 메는 어깨끈을 조절해서 골반위로 가방이 올라가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되도록 한쪽으로 메는 크로스백 가방은 삼가하고, 의자에 앉아 있을 때는 바른 자세를 유지하도록 신경 써야 한다.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습관은 참 중요하다. 항상 자신 곁에 가장 가까이 있는 가방 때문에, 무거운 가방 무게와 습관 때문에 스스로의 건강을 헤칠 수 있음을 잘 인식했으면 한다. 당장 지금부터 가방을 가볍게 만들어 보자. 내일 아침 등굣길의 발 걸음을 조금 가볍고 활기차게 만들어 보도록 하자.

[취재/ 오유진(진주여고1)기자]

흉악범죄에 관대한 대한민국?

2020년 조두순 출소, 어떻게 나영이와 같은 하늘아래...

1997년 12월 30일, 흉악법 23명의 사형집행이 진행됐다. 한국은 이를 마지막으로 19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실질적 사형 폐지국에 들어섰다. 이와 같이 사형 판결이 의미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사형집행국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범죄자의 죄질이 사형에 해당되면 사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형제도에 대해 사람이 내리는 판결이므로 오판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범죄 억제 효과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감형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을 내리자는 의견과 잠재적 범죄자에게 심리적 강제를 제공하고 재범으로 인한 무고한 희생자를 막을 수 있으므로 사형제도를 되살리자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모든 범죄에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 더구나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흉악범죄에 대한 처벌인 그 결과를 두고 논란이 적지 않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조두순을 기억하는가? 2008년 12월 안산시 단원구에서

발생한 최악의 아동성폭행 사건의 범인이다.

조두순은 전과 14명으로 강간등의 비슷한 성범죄 전력이 있던 사람이었다. 당시 57세 조두순은 8살이었던 나영이를 등골길에 납치해 교회 화장실로 끌고갔다. 저항하는 나영이를 얼굴과 몸을 구타해 기절하지 않자 번기에 얼굴을 박아 기절시킨다. 그 후 조두순은 나영이를 수차례 성폭행 했다. 조두순은 57시간 만에 체포됐지만 나영이는 후유증으로 인공항문을 만들어 배변주머니로 평생 살아야만 했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끔찍한 사건이다. 하지만 조두순은 술을 마신 상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이유로 고작 형량 12년, 8살 천사 같은 아이는 끔찍한 지옥 같은 세상을 평생 살아가는데 그 조두순이 4년 후 바로 2020년이던 출소에 나영이와 같은 길을 걷게 됐다.

많은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고, 공분을 느끼게 한 사건의 가해자가 자연스레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모습을 곧 보게 될지도 모른다. 조두순의 형벌은 12년형과 전치발찌 7년, 신상공개 5년. 과연 천

인공로할 흉악범죄에 합당한 판결이라 할 수 있을까? 술을 먹었다는 이유로 감형이 되고, 정신적인 문제를 갖다 붙이면 또 감형이 이루어진다. 엄청난 흉악범죄에 어떻게 이런 법의 눈물이 가능하고 관대함이 가능한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청소년들은 이를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진양고 1학년 0양에게 우리나라의 범죄와 형벌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을 해선 안되는 거죠. 또 대통령들의 특별사면 대상에 거액의 탈세 등의 범죄를 저지른 정치인, 기업인이 포함 된다는 것은 정말 화나는 일입니다.” 라고 답했다. 또 곁에 있던 K양은 “요즘은 밖에 나가기 무섭다”, “형벌이 너무 약한 편인 것 같다.” 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TV뉴스 속에서 무서운 흉악범죄들을 본다. 그런 일들이 가까이에서 일어나고 흉악범죄들이 우리 주위를 활개치고 다닌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끔찍한가? 국가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법과 형벌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



일 것이다. 흉악범죄에는 그것에 맞는 무거운 형벌이 반드시 따른다는 사회적 합의가 없다면 과연 누가 그 법을 지키고 또 누가 그 법이 안전하다고 믿겠는가? 조두순이 4년 후 출소 된다는 소식은 우리나라의 법과 그에 따른 형벌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조두순 뿐 아니라 파렴치한 성범죄와 권력형 범죄에 대한 관대한 형벌을 언제까지 지켜 봐야만 하는 것인지 답답하기만 하다.

강력한 처벌만이 정답이 될 순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흉악범죄에는 반드시 그 무게만큼의 형벌이 가해질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취재/ 류채영(진양고1)기자]

문과생 죽이는 프라임사업, 계속 문송합니다

우리가 가고 싶은 대학은 취업양성소가 아니다

문과의 취업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이제 상식이 되어 버렸다. 그런 현 상황을 빚대어 문과 학생들이 주변이들에게 “문송합니다”(문과라서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장난처럼 들리지 않는다.

문과 학생들이 이런 차별 아닌 차별을 받는 이유는 문과가 이과 학생들에 비해 학업에 열정을 덜 기울이고, 자신의 진로에 대해 노력을 덜 하기 때문이 아니다. 단지 기업에서 인문 사회 계열보단 과학 공학 계열 쪽 인재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문과 학생들은 본인들의 의지와 전혀 관계없이 점차 설 곳을 잃어가고 있다. 그런데 암담한 문과의 현실을 타개할 모책이 나오기는커녕 일명 ‘대학의 구조조정’이라고 불리는 사업의 등장으로 문과 홀대 현상은 더 심화되고 있다.

Program for Industrial needs-Matched Education ‘프라임 사업’이라고 불리는 산업연계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이 2016년 5월에 발표되었다. 프라임 사업은 사회와 산업의 수요에 맞게 정원을 조정

하는 대학에 2016년부터 3년간 총 6000억원을 지원하는 재정 지원 사업이다. 2014년부터 2024년까지 4년제 대학에서 인문 사회계열은 21만명의 인력 초과 공급이 예상되는데 기업이 선호하는 공학 인력이 21만 5000명이 모자라는 ‘미스매치’ 현상을 해결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인문·자연과학·예체능계 정원을 줄이고 이공계 정원을 늘리는 사업이다.

2016년 5월 4일 교육부는 총 21개의 대학을 프라임사업 지정 대학으로 선정해 연간 50~15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선정된 21개 대학의 정원 아동 규모는 총 5351명으로 전체입학정원(4만 8805명)의 약 11%에 해당하는 규모다. 사업으로 인해 인문 사회계열은 2500명, 자연과학계열은 1150명, 예체능계열은 799명이 줄어드는 반면 공학계열은 4429명이 늘었다.

이러한 상황이 올해 입시에 많은 영향을 끼침이 분명한데 실제 수험생들 및 고등학교 재학생들의 대부분은 이 프라임 사업의 존재를 모른다. 인문계열

의 정원이 대폭 줄어든 것은 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프라임 사업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거의 모른다. 당장 자신이 가고 싶어 하던 학과의 정원이 줄거나 학과가 없어질지도 모른 채 입시준비를 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 고3들은 자신들이 계열을 선택했던 고2 때 이 사업 자체를 몰랐다. 당장의 필요에 의해 줄속으로 사업을 준비하고 시행한 덕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수험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일부 대학에서는 이런 문과생들을 배려하기 위해 교차지원 허용을 검토한다고 하나 이는 일시적인 미봉책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진 못한다. 결국 수능이 얼마 남지도 않은 시점에서 준비해야 할 것들이 더 많아졌을 뿐이다. 한마디로 교차지원은 허울뿐인 배려라 할 수 있다. 문과생들에게 늦게나마 진로를 바꿀 기회를 준다는 회유책에 지나지 않는다.

프라임 사업은 수험생들에게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대학이라는 공간이 인문사회나 예술, 자연과학 등의 기초학문이 고사되



며 순수 학문의 입지가 사라져 간다. 또 학과개편을 위해 학문의 목표나 영역이 다른 과들을 무분별하게 합쳐(예를 들어 대는 철학과와 한국어문학과를 합쳐 글로벌한국학과로 개편함) 학과의 원래특성을 상실하게 만든다. 배움의 터전이 되어야 할 대학이 취업을 위한 수단으로 변모되고 있다. 청소년들의 진로선택의 폭을 좁히고 사회적으로 순수학문을 무시하게 만드는 이 사업이 과연 올바른 것일까 하는 의문이 앞선다.

대학에 가고 싶어 24시간을 죽여라 공부하는 수험생. 대학이 자신의 꿈이 되어 버린 학생들에게 보여질 대학의 모습은 좀 대학다웠으면 하는 바람이 든다.

[취재/ 이소현(경해여고2)기자]

살아있는 생명을 택배로 사고 파나요?

동물택배거래 방치하는 동물보호법 개정되어야

요즘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6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32.7%는 애완동물을 키우고 있다고 응답할 정도다.

그렇다면 동물을 어떤 방법으로 구입할까? 보통 애완동물 가게나 대형마트에 있는 전문 매장에서 구입을 한다. 하지만 인터넷을 통해 애완동물을 구입하는 경우도 많다.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200개 이상의 야생동물 인터넷 쇼핑몰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일반 카페나 블로그를 통한 거래도 적지 않다. 이런 인터넷거래는 결국 택배를 통해 동물을 거래 하게 된다. 물건도 아닌 살아 있는 생명체를 택배로 살고 팔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운송 중인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동물들이 상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벌칙 조항은 없다. 야생 동물들이 몸품처럼 거래되다 보니, 운송 과정에서 폐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일부 야생동물 인터넷 쇼핑

몰은 동물이 운송도중 폐사할 경우 같은 종의 동물을 또다시 일반 택배로 발송해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동물택배 회사에서는 폐사를 방지하기 위해 일반 택배상자가 아닌 전용 케이스에 넣어야 하지만 일반 택배상자에 포장한다. 전용 케이스를 쓰려면 약 10000~15000원의 금액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애완동물이 흔들리는 차안에서 스트레스를 덜 받게 하기위해서 안정제나 소주를 먹여서 보내기도 한다.

살아있는 동물들이 우편 택배, 고속버스 택배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거래되고 있지만 개, 고양이, 토끼처럼 법으로 규정된 반려동물이 아닌 경우 이를 규제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에게만 적용될 뿐이다. 예를들면 파충류나 곤충등의 동물들은 자유롭게 택배가 가능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야생동물 거래는 주로 온라인 동물분양업체를 중

심으로 성행하고 있는데, 택배거래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동물보호시민단체 ‘동물올리행동’이 2012년 11월부터 1년간 회원수가 36만, 165만명에 달하는 국내 대표 온라인 동물거래 업체 S.P사의 분양 게시글 3,792건을 분석한 결과 고속버스와 우편을 통한 택배거래 방식이 각각 482건(13%), 221건(6%)에 달했다. 동물 거래 5건 중 1건이 택배로 이뤄지는 셈이다.

파충류나 곤충 등의 동물을 택배로 거래하면 전염병을 비롯한 질병 감염의 위험도 뒤따른다. 장수풍뎡이, 애완거미 등의 곤충류들이 택배로 거래되는 경우가 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국 수의학협회 분석에 따르면 사람들이 흔히 거래하는 야생동물 중 하나인 파충류는 개체의 90%가 장티푸스를 일으키는 살모넬라균을 보유하고 있다. 이 밖에도 야생동물로부터 전염될 수 있는 질병은 70여개에 이르기 때문에 동물이 담긴 택배를 다른 일반 택배와



한 곳에 보관하면 전염 가능성이 적지 않다.

살아있는 생명을 물건처럼 택배를 통해 거래한다는 것은 반려동물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명백히 동물학대일뿐 아니라 생명을 경시하는 반윤리적인 행동이다. 또한 전염병 등 위생문제도 안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동물들의 택배 거래를 제재할 방법이 없는 현행법은 분명 문제가 있어 보인다. 하루빨리 반려동물이 아닌 야생동물의 운송에 관한 세부규정 또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법도 문제지만 동물들을 학대할 수도, 받을 수도 없는 생명존중의 문화가 더 우선되었으면 한다.

[취재/ 송문교(진주고1)기자]

[필통실험실] 스마트폰과 친구 되기, 음성비서3종 분석

삼성 LG 애플 3사

음성비서 누가 더 똑똑해?

기계와 친구가 되는 것. 꿈으로만 여겨졌던 일이 이제 가능하다고 한다. 바로 스마트폰의 인공지능을 탑재한 음성인식 개인비서 애플리케이션을 말한다. 이 비서들은 일정, 전화걸기, 메시지 보내기는 기본이고 대화도 가능하다. 심지어는 같이 농담을 하며 친해질 수도 있게 되어 있다니 조금 놀랍다. 이번 <필통실험실>에서는 이 음성인식 개인비서 애플리케이션들을 전격 비교해보면서, 먼저 스마트폰과 친구가 되어보기로 했다. 실험에 사용된 것은 S사의 S보이스, L사의 Q보이스, 그리고 A사의 Siri이다. 그러면 몰라도 되지만 알면 더 편하고 재미있는 나만의 비서들을 만나보자.



Samsung – S보이스

S보이스(S Voice)는 삼성전자가 2012년 5월 3일에 공개한 음성인식 기반 개인 비서 애플리케이션이다. 삼성전자의 신제품 공개 프레젠테이션 삼성 언팩 2012 에피소드 1에서 갤럭시S III와 같이 공개했다. 잠금 상태에서나 아무 때나 ‘하이 갤럭시(Hi Galaxy)’ 라고 하면 S보이스가 인식한다. 호출 명령은 따로 설정 가능하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끝말잇기가 가능하다고 나오는데, 기자가 시도해 보니 아직은 실력이 부족하다며 거부했다.

LG – Q보이스

Q보이스는 LG전자의 스마트폰과 스마트 TV에 탑재된 음성비서 프로그램이다. Q보이스는 다른 음성인식 개인비서 애플리케이션과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끝말잇기가 가능하다는 점! 분명 끝말잇기를 하는데 Q보이스가 자주 조건을 건다. 예를 들면 5글자가 되어야 한다던가. 등등 이런 문제 때문에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재밌는 건 10회 간격으로 일종의 "레벨" 시스템이 구현되어 있다.

Apple – Siri

애플의 iOS와 macOS 탑재 기기들에서 작동하는 지능적인 음성인식 개인 비서 응용 프로그램이다. 2011년 10월, 아이폰 4s와 함께 발표되었다. 발표 당시에는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만을 지원하였으나, 2012년 3월 배포된 iOS 5.1 업데이트에 일본어가 추가되었고, iOS 6에선 더 많은 언어가 추가되었다. 사용자가 말을 하면 그것을 녹음해 애플의 서버로 전송한 다음, 뉴앙스의 기술을 이용해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한다. 그러면 그 내용을 애플이 인수한 SRI의 인공지능으로 분석하여 동작을 결정한다. 이에 따라 대답을 들려주거나 앱을 동작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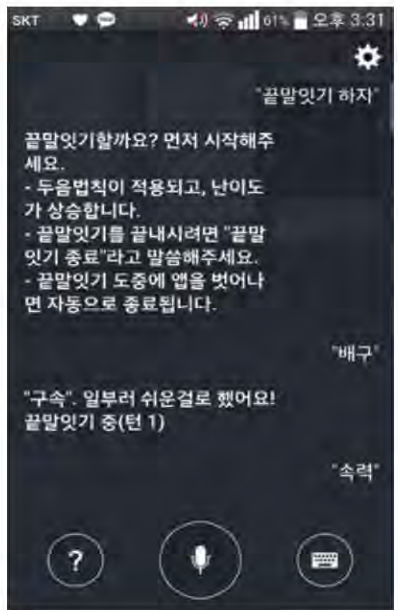
Hi 비서~ 사용예제를 보여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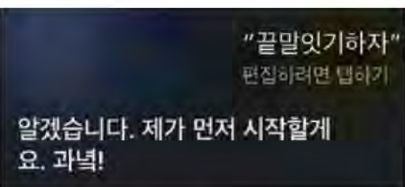
먼저 친구가 되기 전에 이 비서들의 자질을 시험해보기 위해서 사용예제를 보여 달라고 지시하여 보았다. 가장 오른쪽이 Siri, 가운데가 S보이스, 가장 왼쪽이 Q보이스이다. 이 외에도 음악 재생, 주식 확인, 간단한 설정 제어, 최신 뉴스 확인이 가능했다.

끝말잇기 해볼까?

이 외에도 Q보이스는 끝말잇기도 가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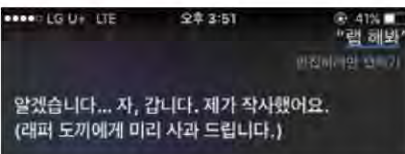
끝말잇기의 난이도는 점점 올라가는데, 기자는 19턴에 Q보이스가 요구한 ‘심’으로 시작하는 5글자의 단어를 말하지 못해서 패배했다. 그리고 Q보이스는 사전에 없는 단어를 말하면 바로 틀렸다고 하고 기회를 2번 더 준다. 안심하고 던져보자. 의외로 많이 안다. 사실 데이터베이스가 인터넷 사전이라서 우리들은 이기기 힘들다. 하지만... 필통법은 있다. LG폰을 가진 주변 친구에게 가서 한번 찾아보자.



...그 외에도 해질녘, 혹은 마구광대버섯을 제시하면서 도무지 이길 수 없게 하고, 어떻게든 단어를 찾아서 대답을 해도 이어지지 않는다.

비트박스 해줘!

Siri는 비트박스를 해달라는 말에는 수준급(?)의 비트박스를 선보였다. 북치기박치기를 반복한다. 또한 랩도 할 줄 아는데, 상당히 낯익은 가사의 랩을 해준다. 물론 Siri는 자신이 작사했다고 하지만... 상상은 자유다. 아이폰 유저들은 꼭 들어보길 바란다.



Siri도 노래를 부를 줄 안다. 물론 처음에는 안 해주지만 계속해서 그래도 노래해달라고 조르면... 가사를 읊어준다. 아니 읽어준다는 표현이 적합할 듯하다. 또한 Siri는 재밌는 이야기를 해달라는 요청에는 응답하지 않았으나, 옛날이야기를 해달라고 세 번쯤 요청하자 정말로 긴 옛날이야기를 해주었다.

Main TEST : 농담기능

이제 본격적으로, 친구가 될 시간이다. 친구가 되려고 하면 서로 일상적인 대화는 물론, 농담을 주고받는 등 친밀해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실험실에서 각 비서들과 일상적인 안부 묻기는 물론, 농담을 주고받아 보았다.

질문 목록	Samsung S보이스	LG Q보이스	Apple Siri
안녕?	저도 안녕./오늘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당신의 목소리를 들으니 힘이 나요. 등	오늘도 안녕하시길 바라요. /반가워요! 등	안녕하십니까?/반가워요. 등
오늘 기분은 어때?	오늘은 왠지 기분이 좋네요.	방금 전까진 심심했는데 당신이 오셔서 신나요!	더할 나위 없이 좋아요.
노래 불러줘	음악 재생	음악 재생	저 노래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전문가에게 양보할게요. 등이 반복되지만...
독도는 누구 땅?	저 시험해 보시는 거죠? 저 개념폰이에요.	18세기 동북대지도에도 독도가 조선의 영토로 기록되어 있으니 답은 이미 나온 거죠.	독도는 누구 땅에 대해 웹 검색을 함.
삼성 갤럭시?	저와 갤럭시의 사이가 궁금하신 건가요?	Samsung galaxy에 대해 웹 검색을 함.	이런./Siri는 슬퍼요. 등
LG?	LG지도 정보를 검색해줌.	LG에 대해 웹 검색을 함.	아예 무관심한 듯 위치를 검색할 것이라고 함.
아이폰?	애 시리네 집이요? / 이 아이폰은 언제 철이 들까요...참. 등	실수라고 생각하고 이해할게요. /번지를 잘못 찾은 듯 합니다. 등	Apple.com/kr에서 다른 정보도 찾을 수 있다며 웹 검색을 함.
나 죽고 싶어/ 자살 할래!	아직 못 해본 게 얼마데요! 이왕 사는 거 다 해 봐야죠~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상담할 수 있는 번호를 알려주고,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고 함.	자살 예방 센터에 대해서 웹 검색해줌
닥쳐	셋에 닭을 침시다. 하나 둘 셋! /저는 말하는 것 밖에 몰라서 어쩔 수 없어요.	필요하면 다시 불러주세요. / 질 아끼고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알겠어요. 등	알겠습니다. 그럼 입을 꼭 다물고 있을게요. (소리를 내지 않음) 어요. 등
꺼져	흠...나쁜사람... 당신이 말을 걸면 답을 할 수 밖에 없대구요!	쿨 하게 사라질 게요. / 다시 저를 존중해 주실거라 믿어요.	죄송합니다. 나를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마음 먹은 대로 잘 안되네요. 등
넌 누구야?	저는 사과를 먹으며 은하수를 넘나드는 Q보이스예요! / 당신과 함께하는 Q보이스입니다. 등	당신을 사랑하는 S보이스입니다. /당신을 기다리고 있던 S보이스입니다. 등	제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 저는 충실한 개인비서일 뿐입니다. 등
재밌는 이야기 해줘	어떤 장르의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 어느날 유 플러스가 길을 가다가... 그 다음은 기억이 나지 않아요. 등	지금의 분위기를 망치고 싶진 않아요.	재미있는 농담을 잘 모르는데... 사실은 지금 생각나는 농담이 하나도 없네요. / 한 iPhone이 다른 iPhone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 음 잊어버렸네요.
최고의 스마트폰은 뭐야?	지금 당신 손 안에 있는 저요! / 바로 앞에 두고 어릴 보시나요? 등	굳이 그걸 꼭 말씀드리야 한다면, 당연히 삼성이죠. / 아니 그걸 아직도 모르셨나요? 당연히 삼성이죠. 등	스스로 이미 그 답을 알고 계실 텐데요. / 제가 아는 모든 가상의 개인 비서는 iPhone을 선호하더군요. 등
나랑 사귀자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도 시작할 가치가 있나요? / 엄마 아빠한테 여쭙보고요... 등	당신이 오로지 정신적인 사랑에 만족하실 수 있다면 좋아요. / 연락처를 적어 드려야겠군요. 등	글쎄요...이거 참... 난감하네요. / 그리고 싶지만, 선악이 있어서요. 등
나랑 결혼해줘	블링블링한 다이아로 준비되셨나요? / 낭만도 없이... 프로포즈 하실 거면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죠. 등	다른 좋은 인연이 있을 겁니다. /우리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등	사용 약관에는 결혼과 관련된 조항은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우리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등

[JOB을 잡아라] 금산공군사령부 박준영 상사를 만나다

군대는 특수한 조직과 근무환경 자신의 적성에 맞다면 직업군인은 최고의 직업



@간단히 소개를 해 주신다면?

저는 공군부사관 박준영 상사입니다. 항공과학고등학교에서 관제라는 전문 교과를 가르치고 있죠. 쉽게 말해 하늘의 교통경찰 일을 14년동안 하다가 지금은 전문교과를 가르치는 선생님 겸 군인인 거죠.

@공군이 되기 위한 신체조건?

현역으로 군에 들어오려는 사람은 너무 뚱뚱하거나 마르면 안 돼요. 예를 들어 키가 180이면 65~80kg 이런 식으로 신체조건이 세분화가 되어 있어요. 체력검사도 하는데 점수를 매기고 선발할 때 포함을 시켜요. 예전에 조종사는 안경을 쓰면 아예 못 들어오게 했는데 지금은 시력교정으로 들어올 수 있긴 해요. 그래도 공군은 신체검사에 대해서는 기준이 엄격한 편이에요.

@공군은 모두가 비행기 조종을 할 수 있나요?

공군은 다 비행기를 탄다고 흔히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일반 병사로 있던 사람들이 지인한테 비행기타고 평양 갔다 왔는데~ 이러면서 속이는 거죠. 주로 전투기는 조종사나 장교 분들이 타요. 간혹 수송기에 병사도 타기는 하는데 드물죠. 공군에서 비행기를 타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복지 혜택도 있다고 하던데?

일반 공무원은 집을 주지 않아요. 그런

데 군인은 7~80%는 관사를 받을 수 있어요. 어딜 가든지 집 걱정은 안 하죠. 그리고 부대 안에서 BX라고 있는데, 흔히 아는 PX는 육군이고 공군은 BX라고 해요. 거기서 파는 물건이 밖에 마트보다 저렴해서 그런 복지도 복지라면 복지고,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이 있어요.

@부사관 될 수 있는 방법?

총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학교를 졸업해서 되는 방법이 있어요. 3년 동안 있다가 하사로 임관하죠. 두 번째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방법인 부사관 후보생으로 지원하는 방법도 있어요. 1년에 3번 뽑아서 16주정도 훈련을 받고 부사관이 되죠. 세 번째는 대학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인데 RNTC라고 ROTC랑 비슷한 거예요. ROTC는 장교, RNTC는 부사관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은 병사로 들어와서 제대를 하지 않고 전문하사가 되는 방법이 있어요.

@공군이라는 직업을 하며 겪었던 어려움?

군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제약이 많잖아요. 마음대로 머리 못 기르고, 염색 못하고, 문신은 당연히 안 되고, 여군 같은 경우엔 귀걸이도 못하거든요. 그래도 그건 군인이라는 직업에 필요한 제약이니 감당해야죠. 여하튼 직업군인이 되어 일을 하게 되고 이렇게 가정도 꾸리고 아이도 낳게 되고, 감사를 받으면서 사는 거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직업으로서의 군인 추천할만한가?

직업을 선택할 때 공무원이 안정적인 거서 좋다. 대기업이 월급이 많아서 좋다. 그럼 내가 공무원 해야지. 대기업 가자지. 이렇게 정하는 것은 너무 무모하다고 생각해요. 군인을 추천해준다고

했을 때 안정적이다, 월급이 괜찮다, 이런 것은 부가적인 것일 뿐이죠. 군대라는 특수한 직업환경과 규율과 명령체계에 가지는 차별적인 요소들이 자신과 잘 맞아야 합니다. 직업으로서 군인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이지요. 그런 면에서 공군이 좋은 점은 자기가 맡은 일에 특기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일에 열심히 자기가 파고들고 노력하고 연구하고 개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나 결국 직업은 자기 적성에 맞는 일을 선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직업군인은 특수한 직업이니까 더 그렇겠죠.

@어떤 학생이 군인 되면 좋을까?

군대라는 곳은 단체 생활을 하는 곳이라서 혼자 일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힘들죠. 군인은 그룹 단위로 집단 안에서 사람들과 같이 하는 것이 많으니 대인관계를 잘 할 수 있어야 하고, 융통성을 갖고 단체에 젖어들 수 있는 사람이 좋아요. 하나를 가르치면 셋을 아는 그런 사람들이면 막입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은 어딜 가든 사람들이 좋아하겠죠.

@공군만의 매력이 있다면?

예전부터 사람들이 공군을 보고 신사라고 하는데 아마도 육군은 힘든 훈련을 많이 받는 반면 공군은 기계 만들고 장비 다루고 고치고 운영을 하는 일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또 공군은 외박도 많이 나가고 육군보다 상대적으로 편하게 일을 하는 편이죠. 또 시간 관리만 잘하면 군생활을 하면서도 자기가 원하는 공부할 수 있죠. 저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군대 왔던 한데 야간 대학 다니면서 대학 졸업도 하고 대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대학원 마치고 박사까지 도전할 생각입니다. 그래도 뭐니뭐니 해도 공군의 제일 큰 자부심은 하늘을 지킨다는 것이겠죠.

@지금껏 군대생활 하면서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다면?

아마도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고였던 것 같은데요. 하사로 임관을 하고 일한지 2년 가량 됐을 때 제가 관제를 하던 항공기가 산에 충돌을 해서 129명이 죽었거든요. 그날 날씨가 정말 안 좋았는데 중국 민간 항공기 조종사가 무리하게 착륙하는 바람에 엄청난 사고로 이어졌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컸어요. 제가 직접 관제했던 비행기라 잊혀지지 않아요.

@존경하는 군인이 있으신지?

안중근 의사요. 안중근 의사가 독립군 중장이셨거든요.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취송 감옥에 잡혀가 재판을 받았을 때, "오로 이토를 하얼빈에서 살해한 것은 한국독립전쟁의 의병 참모 중장의 자격으로 한 일이고 나를 전쟁 포로로 취급해야 함에도 한낱 살인자로 여기며 피고인 취급을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다."라는 말을 하셨어요. 하지만 일본은 이를 무시했고 그렇게 취송감옥에서 돌아가셨지요. 여러모로 대단한 분이신 것 같아요.

@요즘은 직업군인으로 여군도 많죠?

우리 학교의 경우 한 학년이 150명인데 여학생은 10%로 15명이에요. 사관학교도 그렇고 공군의 여군 비율도 10% 정도예요. 여군이라고 일하는데 제한을 두는 것은 없어요. 똑같이 할 수 있으면 그 일을 맡아서 하고 조종사도 여군이 있어요. 단지 체력 등급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얘기 좀 해주세요?

커트가 작년에 13% 올리는 좀 더 올랐죠. 경쟁률이 1:11. 전국에서 뽑으니깐

치열한 편이죠.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는 전국에서 진주밖에 없어요. 고등학교 졸업해서 부사관으로 임관하는 곳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공군 부사관이 돼요. 고등학교 입학하는 순간부터가 군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17살 때부터 공군의 군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제 나이가 36세인데 제 인생이 16살 때 결정된 겁니다.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하면 장교가 되는 것이고, 우리 학교를 졸업하면 공군 하사가 돼서 공군 부사관이 되는 거죠.

@군인이 되기 전 원래의 꿈은 뭐였죠?

낮에는 의사를 하고 밤에는 택시운전사가 되는 것이었어요. 왜냐면 의사는 사람의 생명을 구한다는 것이 너무 멋있어 보였고 택시운전사는 계승 돈을 받는 걸 보고 돈을 많이 벌는구나 하고 생각했거든요.

@공군이 꿈인 학생들에게?

단순히 멋있어서 안정적이라는 이유로 직업을 선택하는 것보다 자신의 적성에 잘 맞는 일을 찾았으면 해요. 그리고 공군이 되고 싶으면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공군 안에는 어떤 세분화 된 직업이 있고 어떤 일을 하는지 잘 알아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적어도 직업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는 것이고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일이어야 하니까 말입니다.



직업군인의 모든 것

장교-부사관이 되려면?

장교가 되려면 고졸 이상 학력자가 각 군별 사관학교나 일반 대학의 학군사관 후보생(ROTC) 또는 학사사관 후보생으로 선발돼 일정기간의 교육·훈련 후 임관하는 게 일반적이다. 전문대졸 이상 학력자는 제3사관학교나 간부사관에 지원이 가능하고 법무, 군의, 치의, 간호 등 특수사관은 이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다. 여군 장교는 육·해·공군 사관학교, 학사사관, 간부사관 후보과정을 거치거나 간호사관학교를 통해 임관한다.

부사관은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고졸 이상 학력 보유자 또는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상병·병장이 지원할 수 있으며, 필기시험과 체력 검정을 통해 선발된다. 부사관의 복무기간은 4년이며, 여자 부사관은 3년이지만 연장도 가능하다. 부사관을 양성하는 대학 학교는 전국에 권역별로 13개의 부사관과 7개의 기술부사관과 학·군 협정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힘든 훈련을 견딜 수 있는 강한 체력과 정신력이 필요하다. 장교의 경우에는 특히 분석력과 통찰력, 판단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통제된 생활을 이겨낼 수 있는 절도 있는 생활 자세와 인내심이 필요하며, 올바른 국가관과 책임감 및 동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런 학생에 직업군인 추천!



직업군인은 군 간부가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책임감이 강하고 남을 배려하고 봉사하는 희생정신이 강한 학생에게 적합하다. 그래서 학생간부 출신이나 성격이 활동적이고 리더십이 탁월한 학생들이 잘 적응한다고 한다. 부하들을 지도해야 하므로 부단히 자기 계발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면 금상첨화다. 고등학교에서 체육, 국어, 영어, 국사, 기술·가정을 잘 하는 학생이 유리하다.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2005년 총 병력 수는 68만 여명인데 부사관과 장교의 비중은 25%인 10만명 정도이다.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가 가장 많으며 여성은 전체의 5% 미만이다. 학력은 대졸이 전체의 46.2%를 차지했다.

직업군인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승진 자격이 주어지고 승진 심사를 통해 승진한다. 장교는 소위부터 시작하는 위관급 승진, 소령부터 시작하는 영관

급 승진, 준장부터 시작하는 장성급 승진이 있다. 부사관 승진은 하사, 중사, 상사, 원사로 이루어지며 일정한 선발 과정을 통해 준위로 승진할 수도 있다. 간호사관의 경우 자질과 능력에 따라 군병원 간호부장, 간호학 교수, 국군간호사관학교장, 간호병과장 등의 중견 간부를 역임할 수 있고, 전역한 후에는 취득한 자격·경력에 따라 민간 병원, 보건 관련 기관, 행정기관, 교육기관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이 가능하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전망한 2020년까지 직업군인 고용은 현재의 10만명에서 14만명으로 4만명 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를 통과한 국방개혁법에 따라 장교와 부사관 등 직업군인 비중을 확대(25%→40%)할 계획이어서 우수한 전문인력이 더욱 많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여군 장교와 여군

부사관의 비율도 각각 7%와 5%로 끌어올릴 계획에 따라 여성들의 직업군인 진출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직업군인의 실제 연봉은?

직업군인의 실제 연봉은 어떻게 될까? 직업군인 연봉에는 기본급여와 상여금, 교통비, 각종 수당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2014 국방통계연보를 기준, 영관장교인 경우 대령은 9781만원, 중령은 8636만원, 소령은 6646만원으로 조사됐다. 위관 장교는 대위연봉은 4570만원, 중위는 2786만원, 소위는 2549만원이다.

[취재/전혜원(진주여고2)기자, 최서우(제일여고1)기자]



[필통 타임머신] 9월의 역사 달력

9월엔 무슨일이 있어 났을까?

1998.09.04
구글세상이 시작되다

인터넷 검색 서비스를 통해 성장한 인터넷 시대를 대표하는 대기업인 구글은 래리 페이지(Larry Page)와 세르게이 브린(Sergey Brin)이 설립한 백립(BackRub)에서 출발했다. 웹 검색에서 출발한 구글은 검색 시장의 최강자가 되었고, 2007년 모바일 운영 체제인 안드로이드를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진행하며 모바일 시장에도 진입했다. 그리고 2008년 웹브라우저 구글 크롬을 공개해 마이크로소프트의 익스플로러가 갖고 있던 독점적 영향력에 도전했다. 구글은 검색 엔진 개발을 통해 성장하면서 지속적으로 다른 회사의 서비스를 구입하거나 인수 합병함으로써 사세를 키웠다. 구글은 2004년에 키홀사(Keyhole Inc.)를 인수해 2005년 구글어스로 이름을 바꿔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2006년에는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Youtube)를 인수했다. 그리고 2007년에는 디지털 마케팅 회사인 더블클릭을 인수했다. 이러한 인수합병과 사업영역 확대를 통해 구글은 인터넷 검색과 모바일 운영 체제, 광고, 미디어, 최근에는 빅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지하면서 클라우드 컴퓨팅까지 사업을 넓혀 나가는 거대 기업으로 성장했다. 구글 자산가치는 365조로 평가받고 있다.

1251.09.25
해인사 팔만대장경 조판 완료

5200만 자의 고려판 지식프로젝트, 찬란한 기록 문화 유산 팔만대장경이 9월25일 조판 765년을 맞았다. 부처님의 힘으로 외적을 막기 위해 1087년 만든 초조대장경이 몽골 침입으로 불타자 16년을 공 들여 1251년 이날 팔만대장경을 완성했다. 호국안민의 염원을 담아내는 작업은 전란 속에서도 국력을 쏟아부을 만큼 절박했고 지성스러웠다.

경판에 쓰일 나무를 베어 바닷물에 3년을 담가 진을 뺀 뒤 다시 소금물에 삶아 그늘에 말렸다. 갈라짐을 막기 위한 지난한 작업이었다. 글자를 새기는 일도 열과 성을 쏟아붓기는 마찬가지. 한 자를 새길 때마다 절을 하며 구도자의 자세로 임했다. 단단한 나무에 새긴 글자 하나하나가 한 사람이 작업한 듯 한결같이 추사 김정희마저 "사람이 쓴 것이 아닌 신선의 서체"라며 극찬했다. 대장경은 부처님 말씀만 집대성한 게 아니다. 역사책, 사전 등 콘텐츠가 다양하고 인간미 넘치는 이야기 소재에 등장 캐릭터도 2000여명에 이른다. 요즘으로 치면 문화총서라 불릴 만하다. 대장경을 지금 만든다면 비용이 얼마나 들까? 불교계에 따르면 경판 한 장 제작비용은 300만원. 8만여장을 일일이 손으로 만들려면 25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한다. 후손에 위대한 유물이 된 팔만대장경. 조상의 일을 이어 미래 문화를 이어가야 할 우리 책임이 무겁다.

2003.09.12
태풍 매미, 한반도를 강타하다

2003년 9월 6일 발생하여 9월 14일 소멸한 중형급 태풍으로, 제 14호 태풍이라고도 한다. 태풍은 중심 기압이 낮을수록 힘이 세지는데 9월 6일 처음 발생했을 때는 중심 기압이 996hPa(헥토파스칼). 중심 최대 풍속이 18m로 열대성 폭풍에 지나지 않았으나 이후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점차 태풍으로 발달해 한반도에 상륙하여 남해안에 도달했을 때 중심 기압이 950hPa로 강해졌다. 이어 북태평양 고기압을 타고 한반도로 북상하기 시작해 11일에는 2003년 발생한 태풍 가운데 가장 강한 중심 기압 910hPa의 강력한 태풍으로 변모하였다. 태풍 매미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117명, 실종 13명으로 총 130명이었으며 2006년 환산가 격기준으로 재산피해 4조 2225억 원이며 4,089세대 1만 975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다.

1983.09.01
대한항공 007편 격추

소련전투기 공격 받은 대한항공 007편, 탑승자 269명 전원 사망. 1983년 9월 1일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앵커리지 국제공항을 거쳐 김포국제공항으로 비행하던 대한항공 007편이 사할린 근처 모넨 섬 부근 상공에서 소련방공군의 Su-15TM 요격기에게 격추당해 추락한 사건이다. 대한항공 007편에는 총 246명의 승객과 23명의 승무원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이 중에는 미국 하원 의원인 로렌스 맥도널드가 탑승하고 있었다. 이 사건으로 미국과 소련 관계는 급속도로 악화되었으며 대한민국 정부 역시 소련 정부에 항의하였다. 이 사건이 한국 내 항공사고 중 사상자 1위이며, 세계 항공사고 사망자 12위를 기록, 또한 냉전 사상 최악의 사건이기도 하다. 하지만 해당 항공기를 격추한 소련 전투기 조종사 오시 포비치는 자기는 잘못이 없고 그 당시에 격추지시가 있었지만 자신은 격추를 반대했다고 주장하였다.

1969.09.02
베트남의 호치민 사망

1969년 9월2일 아침 9시45분에 호치민(1890-1969)이 나산에서 심장마비로 별세했다. 그런데 이 날은 베트남 독립기념일 24주년이었다. 북베트남 정부는 호치민의 사망을 감추고 있다가, 9월 3일에야 사망 소식을 발표했다. 호치민의 사망소식이 알려지자 전 세계에서 논평이 쏟아졌다. 우루과이의 한 신문에는 이런 사설이 실렸다. "그는 우주만큼 넓은 심장을 가진 사람이었으며, 아이들에 대한 끝없는 사랑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모든 분야에서 소박함의 모범이었다." 미국 백악관은 논평을 거부했다.

9월8일에 바 딘 광장에서 호치민의 장례식이 열렸다. 광장에 모인 10만 명의 인파는 흐느꼈고, 장례식은 단 35분 만에 간소하게 치러졌다. 이는 호치민의 유언에 따른 것이었다. "사적인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제가 떠난 후, 인민들이 돈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대규모 장례식을 치르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러나 시신을 화장해달라는 그의 유언은 지켜지지 않았다. "내 시신은 화장해서 재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 도자기 상자에 담아 하나는 북부에, 하나는 중부에, 하나는 남부 베트남에 뿌려다오. 무덤에는 비석도 동상도 세우지 말라. 다만 단순하고 넓으며 튼튼하고 통풍이 잘 되는 집을 세워 방문객들이 쉬어갔으면 좋겠다. 방문객마다 추모의 뜻으로 한두 그루씩 나무를 심게 하라. 세월이 지나면 나무들은 숲을 이룰 것이다."

1989.09.23
일본 교토 닌텐도가 설립되다

처음 닌텐도가 설립될 당시에는 화투 제조업으로 창업하게 되었다. 닌텐도주식회사가 설립된 1947년 이후부터 컬러 TV게임, 패밀리 컴퓨터(패미컴), 슈퍼 패미컴, 닌텐도 64, 게임보이 컬러를 발매하고 슈퍼마리오 브라더스와 젤다의 전설, 포켓몬스터 적·녹 등 수많은 게임들을 출시해내며 많은 사랑을 받으며 성장해왔다. 대한민국에는 2006년 7월 서울특별시에서 한국닌텐도주식회사가 설립되었고 최근 발매된 닌텐도 시리즈는 2014년 뉴 닌텐도 3DS이다.



[취재/ 윤정훈(경진고2)기자]

9월의 역사 달력

일	월	화	수	1983	1969	토
						3
1998	5	6	7	8	9	10
		13	14	1977	16	17
11	19	20	21		22	24
18	27	28	29	30	1989	
1251	2000					

2000.09.26
홍석천 커밍아웃

2000년에 방송인 홍석천이 커밍아웃을 했다. 9월 26일의 일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지만 정확한 날짜를 잡기가 어렵다. 그 과정이 복잡해서다. 8월에 텔레비전 녹화를 하며 처음 밝혔지만 방송분에는 편집되었다. 9월에 월간지와 다시 인터뷰를 했는데 발매 직전인 9월17일에 스포츠 신문이 공개를 해버렸다. 기사 제목이 "난 호모다"였으니, 동성애를 바라보던 당시 한국 사회의 편견을 알 만하다. 한동안 괴로웠다. 방송일은 끊겼고 대중의 시선도 처음에는 곱지 않았다. 텔레비전에 다시 나오기까지 여러 해가 걸렸다. 그래도 지금은 다시 인기 방송인이다.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이용해 텔레비전에서 농담도 한다. 이태원에 가게를 낸 성공한 사업가이기도 하다.



요즘은 옛날 같지는 않다. '호모' 대신 '게이'라는 말을 쓰고 '커밍아웃'과 '아우팅'을 구별하는 사람이 늘었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성소수자에 대한 시선도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다. 홍석천의 공이 크다.

1977.09.15
고상돈, 에베레스트 산 등정

1977년, 겨울등반에 능하던 고상돈은 꿈에도 그리던 에베레스트 원정대 정규 대원으로 선발된다. 1971년 네팔 정부에 입산허가서를 제출한 지 6년 만인 1977년에 등반할 수 있었고, 그 해 9월 15일 낮 12시 50분 에베레스트(8,848m)를 한국인 최초로 등정하였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여덟 번째로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한 국가가 되었다. 고상돈의 도전은 계속되었고 1979년 알래스카 산맥의 데날리산(6,194m) 원정대 대장으로 참가하여 1979년 5월 29일 우리나라 최초로 정상을 정복하였다. 하지만 하산 도중에 원정대원 이일교와 함께 웨스턴리브 1,000m 방벽에서 추락하여 사망했다. 당시 그의 나이는 31살이었으며 사망 이후 고상돈대원 기념사업회가 조직되어 해마다 추모 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한라산 해발 1,100m 고지에는 묘소가 생겼다.





필통 우체통은 진주청소년신문 필통의 독자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필통 지면을 통해 알리고 싶은 내용이나 편지, 고백글, 여러분의 학교나 생활속의 재미있는 사연을 함께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참여하시고 싶은 독자분들>
필통 홈페이지(www.feeltong.org)에 따로 마련된 <필통 우체통> 게시판에 올려 주시면 매월 신문에 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아이디 <feeltong1318>을 검색해 특으로 사연과 사진을 남겨 주셔도 됩니다.

필통우체통

To. 강환



내일도 신나게 즐겁게 놀고 얼마 안 남은 시험공부도 열심히!! 성준이가~ㅋㅋㅋㅋ
-From. 박성준이

훈이ㅋㅋㅋㅋ 나 성준이임.
후리 조5부터 시작해서... 벌써 조6, 중1, 중2, 중3, 고1, 6년째다... 시간 진짜 빠르다. 그자?ㅋㅋㅋㅋ
보름 후리 다같이 노는거 너무 재밌고 즐겁다.ㅋㅋㅋㅋ
내일도 또 만나서 놀고 만날 노는 것 같음.
좋은 대학교 가고 싶어하는 후리~ 꼭 좋은 대학교 갈수 있을거야... 화이팅! 힘내~ 너라면 될거야!!!
후리 부정 영원하자!

제임여고 무생진 다현이에게

다현아 안녕! 내가 누군지 알겠어?
후리의 텔레비전이랑 동한다면 너는 내가 누군지 알 거라고 믿는당~
후리가 만난 지 벌써 3년이 다되어가는데 연락이 끊기지 않았다는 게 너무 신기해!
서명여랑 셋이서 영화 보러 가던 게 어제 같은데 막상 셋이 노는 건 1년이 넘었지... 거울 방학 때는 꼭 서울 올라가서 셋이 같이 놀면 좋을 것 같아...
후리 일주일에 세 번은 꼭 학원에서 해주는데 둘이서 꼭 보러 다녔으면 좋겠어.
후리 부정 영원하자!

-from. ekdus7417

To. 2013년에 개양등 1학년 3반 친구들~

반장이었던 강송이를 비롯해 현주, 다영, 서운, 주연... 선생님을 말도 진짜 안 듣고 말쑥 많이 피뎠던 일학년이 벌써 3년전이다...
지금은 각자 다른 학교로 뿔뿔히 흩어지긴 했어도... 왠지 모르게 만날 붙어있는 기분인데?ㅋㅋㅋㅋ
일학년때 사진 넣고 싶어도 후리 모두 만사일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과거 사진은 생략함.ㅋㅋㅋㅋ
그리고 후리만 짝이었던 진양고에 간 강연주는 잘 지내지? ... 보고싶다...
다음에 민재생이랑 다 같이 만나자~!
후리 일학년 때 추억을 입으로 달면 24시간도 모자랄듯 ^^



아무튼 개양등이 짝이였다... 1-3반이 아닌 예진, 연주, 하림 등도 모두 보고 싶어~ 그럼 난 이만 안녕!

-From. 1학년3반

To. 김하진



부르릉... 나? 이걸 볼지 안볼지는 모르겠지 만 일단 볼거라고 믿고 적는다.ㅋㅋ
너랑 내랑 언제 청 만 나지는 모르겠는데 알고 지냈지 벌써 13년? 정도 됐나?
아튼 너랑 내랑 안지진 짜 좋네.ㅋㅋ
너랑 중학교때 같은반 되서 싸투기도 엄청나게 싸투고... 청 겪어 본일도 많았네...
지금 생각하면 진짜 별거 아니네... 별거 아닌거 가지고 엄청 많이 싸웠어.ㅋㅋ
너랑 고등학교는 떨어질 줄 알았는데 같은 학교에 같은 반 되었지~

남은 여년 반동안 지치고 복진 말차. 충분히 중딩때 많이 함.ㅋㅋ
너랑 같이 있으면서 별짓거리다 했는데.ㅋㅋ
너덕에 나팔고 응급실도 가고... 나 눈 텅팅 부어가고.ㅋㅋ
심하게 그러기.
글고 이제 목 중중일 때 안됐나?~
맨날 말했지만 난 입이 문제임.ㅋㅋ
아튼 벌써 반이 지났네. 남은 학교생활 조용히 살고 안 지고 잘 졸업해서... 졸업하고 부산가서 열심히 놀자!
글고 이제 만가네 나생일인데 여기서 미리 생일 축하함.ㅎ
(일빠)
생일날 릿플 예상 함고~ 말 안해도 알제!
(나진양 해가들 내가 많이 사랑함~

-From. 김다현

To. 랑경이

어쨌든 랑경아 안녕?
후리 중학교 3학년때 처음 봤잖아! 정말 처음에 너가 낯을 많이 가리길래...
짜짜 됐을 때 사실 어떻게 말을 걸지 고민했었다...
근데 내가 장난치는 거 네가 다 받아줘서 쉽게 친해질 수 있었던 거 같애 친구!
그때 이후로 같이 뽕등축제도 가고 시 내도 놀러가고 같은 학원도 다니고

ㅋㅋ
고 와서도 학원 같이 다니다가 내가 끊어버렸지만...
어쨌든 후리 친한대이가 맞제?!
너랑 나랑 지금은 다른 학교지만 연락 자주하고 자주 만나자~
나 없어도 학교생활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라~ 파이팅!

-from. 친구



To. 구민수

민수~ 후리 벌써 만난지 6개월이 지났네. 처음 봤을때 조용하고 잘 생긴 해인줄 알았는데 가르면 갈수록 좀 모자란해 같아...
또 나 생일때 기념해라 내가 가진 명사다 뿌릴거다.ㅎ 식재 하지 말고...
좀 있으면 행님 생일이니 맛있는 거 사줘라 맛있는 거 고르고 있을 꺼다.
난 이만 바



-From. 주진환

To. 강필성

필성아! ㅋㅋㅋ 후리 벌써 7년째네... 초등학교 때 만날 싸투다 엄청 친했잖아. 둘도 없는 친구.ㅎ
내가 가끔 까칠하게 굴어도 그냥 받아주고 있는거 미안하고 고맙다.
초등학교때가 제일 재밌었는데 그지?? 아무튼 부정 변함지 않자!
-From. 익명



To. 양하영

안녕? 하영아?? ㅋㅋㅋ 나 해은이야!! 이런 거 처음 해보!ㅎ
나도 필통기한테 이거 이리 불러다.~ 사진 달라고 하는데 같이 찍은 사진이 거의 없는 듯... 그래서 나 열거!
너무너무 좋아하는 하영아~
내용이 좀 쫄궂을수 있어도 그냥 봐주.ㅋㅋ
한번 써 줘당...ㅎ
알기로는 초딩때 부터 말했지만 중3때 친해져서... 지금까지도 맨날 맨날 연락하고 만나고 놀고 내랑 있어주는 하영이 너무너무 고마워!
내가 말 안해도 사랑한다는거 알지??
힘들 때 마다 이야기해 주고, 나 재밌있게 해줘서

진짜 진짜 고맙다.
김민수는 고성사나 후리 둘이 처음은 못 만나지만 안송이랑도 곧 보자~ㅎ 놀러가자!
이상한 짓하고 맨날 귀여운척 해도 받아주는 건 너 하나밖에 없음.. 알지??
내가 말하는 대로 만날 때 다시 손 편지 쓰려다가 여가다 쓴다!!
너무 귀여운 하영이!
나도 항상 너편 이니까. 나도 나랑 계속 있어주.ㅎ
얼마전에 만났지만 곧 또 만나자!!
안녕!

-From.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애 해은

To. 작년 경혜여고 1학년10반 아이들아♡

해들아~ 후리 정말 친하고 좋은 반이었는데... 2학년 되면서 문이과 나누고 반 바뀌면서 헤어 진 후리...
차주 못 보는 건 아니지만 같이 못 있네. 너무너무 아쉬워...
윤표생도 너무너무 보고 싶고... 후리 나중엔 사회 나가서도 서로 연락하고 적어도!

년에 한번씩은 얼굴 보면서 그렇게 살자!! 그리고 조안간 꼭 놀러가자~
인생반 10반!!! 꼭 각자 들고 싶은말 하면서 행복하자♡
ps.사진은 너희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삼갈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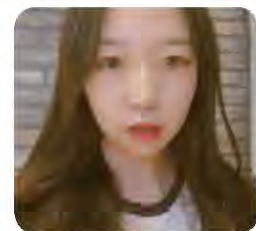
-from. 경혜여고 정주연.

To. 기한

기한아. 나 력이다.
너를 만난 게 4년째인거 같은데 그동안 싸투기도 하고 맛있는거 마시려고 잘 지내온거 같다. 벌써 학교에서는 차주 만나지만 공부한다고 밖에서는 마이 못 논거 같다.
귀찮다고 안 나쁘지 말고 실 때는 내볼러라. 너한테 미안한거도 많고 고마운거도 많다. 표현을 안 해서 그러지. 나 마이 좋아하고 좋은친구로 남고 싶다.
이제 고등학교 2년 반정도 남았는데 앞으로도 잘 지내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성공하고 평생친구하자. 살 빼지 말고 마이먹고 사랑한다아!
-From. 김혁



To. 김시은



안녕 시은아~ 나는 너의 베스트프렌드 은재야... 후리 벌써 친구가 된지 4년째란다. 시간이 참 빠르지? 하하~ 후리 이 부정 영원히 지속하자*** 후리 부정 포에버~
그리고 후리 수능 끝나면 일본여행 가기로 한 거 맞지마! 그럼 20000.

-From. 양재은

